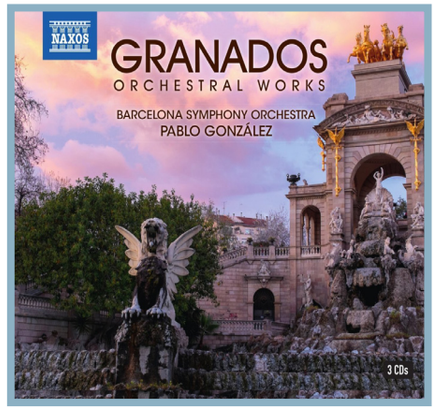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전집

카탈루냐 국립 바르셀로나 교향악단(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외

그라나도스 탄생 150주년 기념 시리즈 전집

그라나도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낙소스 레이블에서 선보인 관현악 시리즈가 전집으로 발매되었다.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현악 작품들은 피아노 작품들 못지않게 폭넓고 다채롭다. 그의 관현악 작품들은 특히, 이국적인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 카탈루냐의 인상을 다루는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 바그너와 인상주의로 부터 받은 영향 등을 보다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강렬한 음색과 리듬감, 일렁이는 선율, 뭉클한 서정을 아우르는 악단의 연주는 작곡가의 감성을 오롯이 드러낸다.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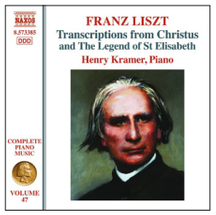
8503295 [3CD for 2]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클로드 베이커: 피아노 협주곡 1번 '정오에서부터 별이 빛나는 밤까지' & 《백조의 노래》로 부터
마르크-앙드레 아믈랭(피아노), 후안 호 메나 & 길버트 바르가(지휘)
시와 음악 속에 흐르는 시간의 인상, 그림 속 그림을 연상시키는 작품
8559804

카바초니 외: 이탈리아 리체르카레 전집
글렌 윌슨(하프시코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프시코드 5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음반
8572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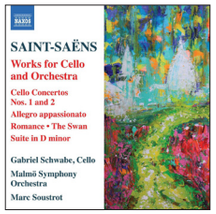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집 47
헨리 크래머(피아노)
리스트의 만년, 구도자로서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작품
8573385

프로코피에프: '유년기 작품' & '나이든 할머니의 이야기들' & '6개의 소품'
알렉상드르 도신(피아노)
앙팡테리블의 색채 – 프로코피에프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작품들
8573435

비제: 카르멘 모음곡 1 & 2번, 아를의 여인 모음곡 1 & 2번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우아한 정열, 서사적인 흐름이 돋보이는 연주
8573546

클레멘티: 건반소나타 Op.23, 1–3번 & Op.34, 1번, 환상곡과 변주곡 '달빛 속에서', Op.48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즈(피아노)
반짝이는 광채, 또렷한 울림, 순수함과 아기자기한 색채를 두루 갖춘 연주
8573608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7번' & '세 개의 오렌지를 위한 사랑 (모음곡, 발췌)' & '키제 중위 모음곡'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지휘)
프로코피에프 삶의 마지막 메시지,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세련된 연주
8573620



생상스: 첼로 작품집('첼로 협주곡' 1 & 2번, '로망스', '모음곡 d 단조',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첼로와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우아한 자태 속에 묻어나는 강렬한 에너지, 봄날의 망중한
8573737

헤버갈 브라리언: 교향곡 8 & 21 & 26번
뉴 러시아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알렉산더 워커(지휘)
쇼스타코비치와 엘가, 딜리어스의 색채가 섞인 하버갈 브라이언의 교향곡 작품들
8573752

피아졸라의 유산
토마스 코틱(바이올린), 타오 린(피아노)
밀롱가 어느 살롱을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 작품의 멋을 살리는 기교와 앙상블
8573789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3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3호 | October 2017

*Key Issue

Divox 첼로의 보석 '니페네거' CD

온다 리쿠의 장편소설 '꿀벌과 천둥' CD

*Cover Story

C major 2017 브레겐즈 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DVD, Blu-ray

Key Issue

Divox 첼로의 보석 '니페네거' CD 3
온다 리쿠의 장편소설 '꿀벌과 천둥' CD 37

Cover Story

C major 2017 브레겐즈 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DVD, Blu-ray 4-5

CD

Accentus 6
Arco Diva 6
BR Klassik 7
Capriccio 7
Collegium 8
Delphian 8
Divine Art 9
Dynamic 9
Divox 10
Edition Taschephilharmonie 11
Grand Piano 11
Hitasura 12
J.S. Bach-Stiftung 14
Klanglogo 14
LPO 15
MD&G 15
Naxos 16-25
Ondine 26
Orchid 27
Paladino 28
Resonus 29
Rondeau 30
Solo Musica 30-31
Sono Luminus 32
Tactus 33
Toccata Classics 34-35
Tonknstler 36

DVD & Blu-ray

Accentus 38
Arthaus 39-44
BelAir 45-47
C Major 48-53
Dacapo 54
Dynamic 55
EuroArts 56-63
Naxos 64
OpusArte 65-70

★ 11월 공연소식 알림 ★

자세한 내용은 **page 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Divox 레이블을 통해 '첼로의 보석' 니페네거와 그녀가 연주한 '보석 같은 첼로곡'을 만나다!

전성기인 1970년대에 많은 녹음에 임했지만, 정작 에스터 니페네거(1941~)의 첼로 소리는 LP시대가 지난 CD시대에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이 침잠하는 첼로의 힘을 잘 살리면서도 여성적인 섬세한 곡 해석으로 유명하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니페네거는 빈터투어 음악원과 취리히 음악에서 수학했다. 파블로 카잘스(1876~1973)와 엔리코 마이나르디(1897~1976)라는 첼로계의 양대산맥을 스승으로 둔 니페네거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빈터투어 음악원 · 루체른 음악원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1986년에 도쿄국립음대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취리히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DIVOX CDX 25249/50–2
[2CD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1~6번)
에스터 니페네거(첼로)
비교하는 재미와 함께 바흐에게 더욱 깊이 빠지다
현재 취리히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에스터 니페네거(1941~)는 파블로 카잘스와 엔리코 마이나르디라는 첼로계의 양대 산맥을 스승으로 둔 여성 첼리스트다.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약 20년 간격으로 녹음을 하는 동안 그녀는 세 가지 첼로를 사용했다. 모음곡 1 · 6번은 구아르네리 1657년산을, 모음곡 2 · 5번은 테스토레 1740년산을, 모음곡 3 · 4번은 샌드너 1968년산을 사용했다. 구아르네리는 울림이 풍부하며, 테스토레는 건조하고 날렵하고, 샌드너는 부드러운 사운드를 연출한다. 여러 악기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지만, 세 악기를 관통하는 것은 역시 니페네거 특유의 '여성스러운 멋'이다. 리마스터링이 맑은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DIVOX CDX 55257–2
[7CD for 2]

'첼로의 보석들':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 쇼팽/ 슈트라우스...외
에스터 니페네거(첼로), 제라드 휘스(피아노), 아네트 바이즈브로트(피아노/CD4)
전성기에 들려주는 19세기 낭만주의 첼로 명곡들
파블로 카잘스(1876~1973)와 엔리코 마이나르디(1897~1976)라는 첼로계의 양대산맥을 스승으로 둔 에스터 니페네거(1941~)의 일흔 살 생일을 축하하며 디복스 레이블이 선사하는 낭만주의 첼로 모음곡집이다. 전성기인 1970년대 중후반(1975 · 1978년)에 녹음했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5곡/CD1 · 2), 브람스 첼로 소나타 전곡(2곡/CD3)과 멘델스존(CD5), 쇼팽(CD6), 리하르트 슈트라우스(CD7)의 소나타가 이 박스물의 핵심을 이루며, 2000년에 녹음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편곡 버전)와 도흐나니 첼로 소나타도 만날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작곡가들의 명작이 총망라된 이 앨범은, 정말이지 '여성이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섬세한 음악성'이 돋보인다. 35쪽 분량의 곡목해설(독 · 영)이 수록되어 있다.

CD 1. **Beethoven,L,v :** 1–1. Cello–Sonata No.1 op.5 (Beethoven)/ 1–2. Cello–Sonata No.2 op.5/2/ 1–3. Cello–Sonata No.3 op.69
CD 2. **Beethoven,L,v :** 2–1. Cello–Sonatas No.4 op.102/1 (Beethoven)/ 2–2. Cello–Sonatas No.5 op.102/2 (Beethoven)/ 2–3. 3 Cycle of Variations op.66 WoO 45 and 46 (Beethoven)
CD 3. **Brahms,J, Schubert,F. :** 3–1. Cello sonatas No.1 op.38 (Brahms)/ 3–2. Cello sonatas No.2 op.99/ 3–3. Arpeggione–Sonata (Schubert)
CD 4. **Brahms,J, Dohnanyi E.v, Fuchs,R :** 4–1. Violin–Sonata op.78 (Brahms' own transcription for Cello) (Brahms)/ 4–2. Violin–Sonata op.8 (Dohnanyi)/ 4–3. Fantasiestucke op.78 (Fuchs)
CD 5. **Mendelssohn–Bartholdy, F, Schumann, R :** 5–1. Cello–Sonatas No.1 op.45 & No.2 op.58 (Mendelssohn–Bartholdy)/ 5–2. 5 Stucke im Volkston op.102 (Schumann)
CD 6. **Chopin, F, Franck, C, Grieg, E :** 6–1. Cello–Sonata op.65 (Chopin)/ 6–2. Violinsonata (Transcription for Cello and Piano by Jules Delsart) (Franck)
CD 7. **Strauss, R, Pfitzner, H, Janacek, L :** 7–1. Cello–Sonata op.6 (R.Strauss)/ 7–2. Cello–Sonata op.1 (Pfitzner)/ 7–3. 'Pohadka' for Cello and Piano & Presto (Janacek)

호수 위, 카르멘의 뜨거운 유혹
2017 브레겐츠 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DVD, Blu-ray [한글자막]

국내에서 지난 6월 14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며 화제를 모았던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비제 '카르멘' 공연 실황물(7월 19 · 21일)이다. 영상물은 현장의 거친 음향도 잘 걸러내어 담고 있다. 유럽의 여느 오페라극장과 마찬가지로 호반을 울리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또렷하다. 보너스 트랙(14분)에는 연출가 카스퍼 홀텐과 디자이너 에스 데블린의 인터뷰(영어 · 독일어 자막), 그리고 세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상이 담겨 있다.

런던 로열오페라의 예술감독 카스퍼 홀텐이 연출을, 아델 · U2 · 테이크 댓 · 펫샵 보이즈 · 카니예 웨스트 등 팝스타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에스 데블린이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지휘는 2015/16 시즌에 '투란도트'를 지휘했던 파올로 카리야니. 라모 · 륄리 · 비발디 등 바로크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메조소프라노 가엘르 아르케는 색다른 카르멘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목소리와 요염한 연기력이 인상적이다. 영상물은 현장의 거친 음향도 잘 걸러내어 담고 있다.

C Major 742208 [DVD]

C Major 742304 [Blu-ray]

가엘르 아르케(카르멘), 다니엘 요한슨(돈 호세), 스콧 헨드릭스(에스카미요), 엘레나 찰라고바(미카엘라)/ 파올로 카리야니(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레겐츠 페스티벌 합창단 · 프라하 필하모닉 합창단/ 카스퍼 홀텐(연출), 에스 데블린(무대디자인)

[보조자료]

2017/18 시즌,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비제 '카르멘'을 선택했다. 본 영상물은 개막하던 7월 19일과 21일 실황을 담은 것으로, 국내에도 지난 6월에 14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프로덕션은 런던 로열오페라의 예술감독 카스퍼 홀텐이 연출을 맡았고, 아델 · U2 · 테이크 댓 · 펫샵 보이즈 · 카니예 웨스트 등 팝스타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데블린이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지휘는 2015/16 시즌에 '투란도트'를 지휘했던 파올로 카리야니.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현재의 유명세보다는 세계적 명성을 갈망하는 젊은 성악가 위주로 캐스팅한다. 타이틀 롤의 메조소프라노 가엘르 아르케는 라모 · 륄리 · 비발디 등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그녀의 음반은 아르모니아 문디 · 알파 · 아파르테 등의 레이블을 통해 나와 있다. 하지만 '카르멘'의 무대 위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안정적인 목소리와 요염한 연기력이 인상적이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무대는 성악가들이 마이크를 사용한다. 공연에서 음악은 무대 세트에 잘 숨겨진 대형 스피커를 타고 장내로 흘러온다. 때로 현장의 소리가 아니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이 영상물은 현장의 거친 음향을 잘 걸러내어 담고 있다. 유럽의 여느 오페라극장과 마찬가지로 호반을 울리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또렷하다.

카스퍼 홀텐의 연출은 콘스탄스 호수를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처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1막에서 담배공장의 여공들은 호수가로 나와 물을 뜨고 목욕을 하고, 후반에 카르멘은 호세의 도움으로 탈출하며 호수에 뛰어들었다. 다소 밋밋하게 보이던 카드에 2막부터 영상과 조명이 더해지면서 변신이 시작된다. 3막 밀수꾼들의 합창은 모터보트를 타고 물 위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사랑을 거절당한 호세의 복수 장면 피날레도 호수가 사건 현장이었다. 호세는 카르멘을 호수 물에 빠뜨린 채 목을 조른다.

본공연(124분)의 자막은 한국어 ·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보너스 트랙(14분)에는 연출가 카스퍼 홀텐과 디자이너 에스 데블린의 인터뷰(영어 · 독일어 자막), 세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주는 영상이 담겨 있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명작을 다시 보고 싶다면]

– 2009년 베르디 '아이다' (C major DVD 707908/ Blu-ray 708004)
– 2011년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C major DVD 702808/ Blu-ray 702904)
– 2013년 모차르트 '마술피리' (C major DVD 713708/ Blu-ray 713804)
– 2015년 푸치니 '투란도트' (C major DVD 731408/ Blu-ray 731504)

● 콘 서 트 소 식 ●

★ 베를린 필하모닉 & 사이먼 래틀 내한공연

일시: 2017년 11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R. 슈트라우스/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 **(협연: 조성진)**
브람스/ 교향곡 4번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진은숙/ **(*위촉곡 한국 초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 다니엘레 가티의 RCO, 롯데콘서트홀 내한공연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8시
장소: 롯데 콘서트홀
프로그램: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1번 C장조, Hob. VIIB:1
(협연: 타티아나 바실리바)
말러/ 교향곡 제4번 G장조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8시
장소: 롯데 콘서트홀
프로그램: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61
(프랑크 페터 짐머만)
브람스/ 교향곡 제1번 c단조, Op.68

Accentus www.accentus.com

추천 음반

accentus music

ACC30410

J.S. 바흐: 베이스 칸타타 BWV 56, 82, 158

미하엘 폴레(바리톤), RIAS 실내합창단,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라파엘 알퍼만(지휘)

유럽 정상의 바리톤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바흐의 베이스를 위한 교회 칸타타

미하엘 폴레는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정상급 바리톤 오페라 가수로,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파우스트' 독일극장상 수상자이자 2009년과 2014년에 독일의 전문지 '오페른벨트'에 의해 '올해의 오페라 가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음반은 바흐의 베이스 칸타타 세 곡을 수록했는데, 바리톤 오페라 가수가 베이스 칸타타를 부른다는 독특한 컨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주는 비교적 가볍고 밝은 음색을 갖고 있으며, 가사가 가진 극적인 특징을 포착하고 있다. 콘서트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Arco Diva www.arcodiva.cz

추천 음반

ARCODIVA

UP0175

페트르 피알라: 마리아 미사 & 체코 크리스마스 미사 & 신비의 장미, 마리아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합창), 페트르 피알라(지휘)

담담한 울림에 담긴 순전함, 페트르 피알라의 합창 음악

체코의 작곡가이자 합창 지휘자 페트르 피알라는 지금까지 협주곡, 실내악, 독주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180여 작품을 작곡했다. 본 음반에는 그의 합창 음악 중에서도 마리아를 주제로 한 종교 음악 세 작품이 수록되었다. 작품 활동 초기에 작곡된 '마리아 미사', '체코 크리스마스 미사', '마리아, 신비의 장미'는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큼 대중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다. 드로브작의 '레퀴엠'으로 반향을 일으킨(일본 《레코드 예술》 2011년 '특선') 체코 브르노 필하모닉 합창단의 담담한 울림은 마리아의 순전함으로 감상자를 이끈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추천 음반

BR KLASSIK

900320

뒤뤼플레: 레퀴엠 & 레스피기: 그레고리오 풍(風)의 바이올린 협주곡

오카 폰 데어 담라우(메조 소프라노), 류보미르 푸시카리치(바리톤), 헨리 라우달리(바이올린), 막스 한프트(오르간),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합창), 뮌헨 방송교향악단(연주), 이반 레푸지치(지휘)

귀천(歸天), 기꺼이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미소

2017/18 시즌부터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는 이반 레푸지치는 악단과의 첫 번째 음반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배경으로 한 두 작품을 담았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안식의 긍정,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 시각 중 뒤뤼플레의 '레퀴엠'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반 레푸지치는 〈상투스〉의 한 대목('Hosanna in excelsis,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이 보여주듯 장엄하고도 찬란하게 귀천(歸天)의 순간을 묘사한다. 레스피기의 '그레고리오 풍(風)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아련한 여운으로 뭉클한 마음을 달랜다.

(2017년 3월 16–18일, 뮌헨 헤르츠–예주스–키르셰 교회 실황 녹음)

Capriccio www.capriccio.at

DIGITAL CAPRICCIO DDD

C5292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보 스코부스(바리톤), 스테펜 블라다르(피아노)

리트의 서정성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겸비한 비교할 수 없는 호소력

가곡을 모노드라마로 확장한 슈베르트는 가곡은 혁명이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예술가를 위한 노래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곡 묶음과 연가곡에서 더욱 분명했다. 하지만 '백조의 노래'는 예외이다. 슈베르트 사후에 유작을 모아 출판하면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슈베르트의 일관된 감성은 여전히 울적하게 만드는 감동을 이끌어 낸다. 오페라와 가곡을 넘나드는 보 스코부스의 음성은 강한 호소력으로 이를 더욱 고조시키며, 소박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블라다르의 반주는 가슴을 더욱 아련하게 한다.

C5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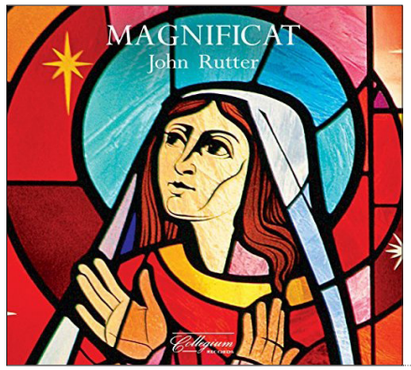
프란츠 & 칼 도플러: 플루트 작품 전곡 4집

클라우디 아리마니 · 구도 시게노리 · 발터 아우어 · 마시모 메르첼리(플루트), 앨런 브랜치 · 존 스틸 리터 · 미켈 와게만 · 마르타 구야시(피아노), 엘체 시립 교향악단(연주), 레오나르도 마르티네즈(지휘)

발레음악을 연상시키는 총총한 리듬과 우아한 서정

악기의 개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레퍼토리의 확장. 19세기 플루트의 가능성 또는 외연이 비약적으로 확장된 배경에는 테오발트 뵘과 도플러 형제가 자리하고 있다 해도 좋을 법하다. 도플러 형제들의 플루트 작품 전곡 시리즈 4집에는 '슈베르트의 오페라 《모반자들》에 의한 콘서트 페러프레이즈',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주제에 의한 이중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으로 익숙한 헝가리 민속 음악 차르다시를 편곡한 작품 등이 수록되었다. 발레음악을 연상시키는 총총한 리듬과 우아한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Collegium www.collegium.co.uk



CSCDS401

존 루터: 마니피카트

패트리샤 포브스(소프라노), 캠브리지 싱어즈(합창), 시티 오브 런던 신포니아(연주), 존 루터(지휘)

'수태고지'의 기쁨을 담은 존 루터의 대표작

1990년도에 작곡된 존 루터의 '마니피카트(마리아의 노래)'는 존 루터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으로 자리하고 있다.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46–55절의 인상을 표현한 장엄하고도 활기 가득한 울림, 15세기 영국 시를 텍스트로 한 'Of a Rose'의 세련된 감성, 'et misericordia(그 인자하심)'의 영롱하고도 몽글한 반향 등 작품은 '수태고지'의 성스러운 분위기와 환희를 두루 담고 있다. 작곡자가 직접 지휘한 캠브리지 싱어즈의 합창은 해당 작품의 명반으로 남아있다.
감동의 여운을 다시 느낄 수 있어 반가운 음반이다.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94

지오반니 스테파노 카르보넬리: 실내소나타(1–6번)

일리리아 콘소트(연주), 보얀 치치치(바이올린)

작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고아한 연주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지오반니 스테파노 카르보넬리는 당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다.
그는 런던으로 이주해 헨델과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12개의 '실내소나타'는 작곡가의 유일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플로레기움의 리더이자 내한 공연에서 인상적인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던 보얀 치치치가 음악의 폭 넓은 탐구를 위해 결성한 일리리아 콘소트는 고아한 연주로 코렐리, 헨델, 비발디를 연상시키는 작품의 매력적인 색채를 오롯이 표현하고 있다.
작품과 더불어 작곡가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음반으로 손색이 없을 듯싶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5153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의 극적인 순간들 2집

앤드류 라이트(피아노)

피아노 건반에 일렁이는 오페라의 극적인 순간들

오늘날 우리는 드라마, 영화의 OST를 들으며, 작품의 명장면을 회상한다. 19세기에는 특히 피아노로 편곡된 오페라의 명장면이나 아리아들이 이런 역할을 대신했다. 1집(DDA25113)에 이어 2집에는 리스트가 편곡한 '리엔치', '로엔그린'의 한 장면과 앤드류 라이트가 직접 편곡한 '베르디의 《미제레레》에 의한 페러프레이즈', 레세티츠키가 편곡한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이 수록되었다.
피아노 건반에 일렁이는 오페라의 극적인 순간들은 1집에 버금가는 감탄을 자아낸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99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파르노키아(소프라노), 보니타티부스(메조소프라노), 조르디(테너), 데스포시토(바리톤), 플란데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알베르토 체다(지휘)

십자가 앞에서 슬픔에 잠긴 성모를 노래한 로시니의 드라마틱 사운드

조아키노 로시니는 1810년부터 30년간 40곡의 오페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덕분에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가 오페라의 표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가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이후 약 40년간 그가 거장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소한 작품들만을 남겼는데, 단 〈스타바트 마테르〉만은 품위를 지켰다. 이 곡은 성가라기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슬픔에 잠긴 성모를 다룬 오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벨기에 안트베르프에 위치한 플란데런 오페라는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으며, 더욱 로시니다운 사운드를 들려준다.

CDS7791

마르탱–피에르 달비마레: 3개의 소나타

파올라 페루치(하프)

고전적인 스타일에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더한 달비마레의 하프 작품들

루이 16세와 나폴레옹 시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음악가 달비마레의 하프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당대 하프의 명인으로 이름을 얻었던 달비마레는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과 그녀의 딸이자 훗날 나폴레옹 3세의 어머니가 되는 오르탕스의 하프 교사를 맡기도 했는데, 작곡가의 위상을 보여주듯 하프는 달미바레 작품 목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에 수록된 3편의 하프 소나타들에는 고전적인 스타일에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을 더해 품격과 자유로움의 조화를 꾀했던 달비마레의 색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뛰어난 기교가 담겨 있다.

Divox www.divox.com

Divox 레이블을 통해 '첼로의 보석' 니페네거와 그녀가 연주한 '보석 같은 첼로곡'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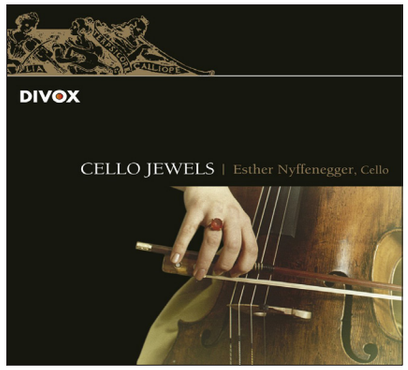
DIVOX CDX 25249/50–2 **[2CD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1~6번)

에스터 니페네거(첼로)

비교하는 재미와 함께 바흐에게 더욱 깊이 빠지다

현재 취리히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에스터 니페네거(1941~)는 파블로 카잘스와 엔리코 마이나르디라는 첼로계의 양대 산맥을 스승으로 둔 여성 첼리스트다.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약 20년 간격으로 녹음을 하는 동안 그녀는 세 가지 첼로를 사용했다. 모음곡 1 · 6번은 구아르네리 1657년산을, 모음곡 2 · 5번은 테스토레 1740년산을, 모음곡 3 · 4번은 샌드너 1968년산을 사용했다. 구아르네리는 울림이 풍부하며, 테스토레는 건조하고 날렵하고, 샌드너는 부드러운 사운드를 연출한다. 여러 악기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지만, 세 악기를 관통하는 것은 역시 니페네거 특유의 '여성스러운 멋'이다. 리마스터링이 맑은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DIVOX CDX 55257–2 **[7CD for 2]**

'첼로의 보석들'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 쇼팽/ 슈트라우스...외

에스터 니페네거(첼로), 제라드 휘스(피아노), 아네트 바이즈브로트(피아노/ CD4)

전성기에 들려주는 19세기 낭만주의 첼로 명곡들

파블로 카잘스(1876~1973)와 엔리코 마이나르디(1897~1976)라는 첼로계의 양대산맥을 스승으로 둔 에스터 니페네거(1941~)의 일흔 살 생일을 축하하며 디복스 레이블이 선사하는 낭만주의 첼로 모음곡집이다. 전성기인 1970년대 중후반(1975 · 1978년)에 녹음했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5곡/CD1 · 2), 브람스 첼로 소나타 전곡(2곡/CD3)과 멘델스존(CD5), 쇼팽(CD6), 리하르트 슈트라우스(CD7)의 소나타가 이 박스물의 핵심을 이루며, 2000년에 녹음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편곡 버전)와 도흐나니 첼로 소나타도 만날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작곡가들의 명작이 총망라된 이 앨범은, 정말이지 '여성이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섬세한 음악성'이 돋보인다. 35쪽 분량의 곡목해설(독 · 영)이 수록되어 있다.

Edition Taschephilharmonie www.solo-musica.de

ETP008

브루크너: 실내교향곡(현악오중주 편곡) / 말러: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타셴 필하모니, 페터 슈탕겔(지휘)

위대한 심포니스트 브루크너와 말러의 음악 속에 숨겨진 실내악 텍스처

위대한 심포니스트 안톤 브루크너는 교향곡에 못지않은 규모를 갖춘 실내악들을 남겼으며, 이 음반은 그 중 하나인 '현악오중주'를 관악오중주와 현악육중주로 편성된 11개의 악기를 위한 앙상블로 편곡된 버전을 수록했다. 이 편곡은 브루크너의 중후한 화음 속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음색의 조화를 들려주어 브루크너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한다. 이와 함께 말러가 남긴 마지막곡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를 연주한다. 한 파트에 한 악기를 배정하는 타셴 필하모니(주머니 관현악단)의 연주는 말러의 실내악적인 텍스처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686–87 **[2CD for 1.5]**

헤슬러: 360개의 전주곡, 그랜드 소나타, 소나타 6번, 환상곡과 소나타

피틀라우스 폰 혼(피아노)

모차르트와 견주었던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남긴 백과사전적 업적

요한 빌헬름 헤슬러는 모차르트와 함께 오르간 연주 대결을 펼쳤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당대 대단히 유명한 음악가였으며, 또한 널리 인정받던 최고의 연주자였음을 의미한다. 작곡가로서 〈360개의 전주곡〉은 가공할 그의 업적이다. 한 조성에 15개의 짧은 전주곡 묶음을 24개의 모든 조성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조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열다섯 종류의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여 음악적 백과사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또한 〈그랜드 소나타〉는 그의 대표작으로, 하이든 최고의 작품들과 견줄 만한 걸작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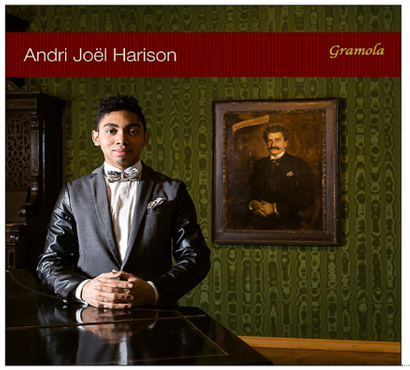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38~41번

켐프 잉글리시(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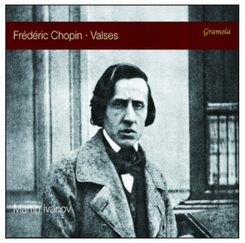
고전을 추억하며 선보이는 노거장의 재기 넘치는 소나타들

레오폴트 코젤루흐는 빈 고전 음악의 한복판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고전음악 작곡가이자 건반연주자였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1807년부터 1809년 사이에 작곡된 곡들로, 베토벤을 비롯한 당시 활동했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18세기 스타일에 대한 완고한 고집을 내비친다. 영국의 건반음악의 영향을 보이면서도 재기 넘치는 빈 스타일은, 당시 혁신적인 작품들에 대한 노거장의 지난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소나타 41번〉의 론도에서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여 만든 모차르트적인 터키풍 텍스처는 매우 흥미롭다. **[세계 최초 녹음]**

Gramola www.gramola.at



99139
안드리 조엘 해리슨 피아노 리사이틀
안드리 조엘 해리슨(피아노)
투명하고 여린 터치, 눈 녹아 물 흐르는 초봄의 감성
빈 출신의 1995년 생 피아니스트 안드리 조엘 해리슨은 생후 13개월부터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현재 성악과 지휘 등 다방면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음반에는 낭만주의 빈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담고 있다. 인상을 표현하는 세밀하고 여린 터치, 또렷하고 조화로운 울림을 갖춘 영민한 연주, 눈 녹아 물 흐르는 초봄의 감성은 슈베르트와 요한 슈트라우스의 감성과 닮아 있다. 투명한 감성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게 되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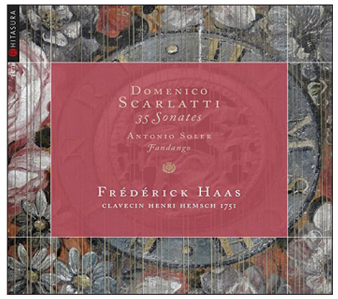
99146
쇼팽: 왈츠(1–17번)
마르틴 이바노프(피아노)
작품 본연의 생기를 표현하는 자연스럽고 시상(詩想) 가득한 터치
올해로 17세를 맞이하는 불가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르틴 이바노프는 영 비르투오소 콩쿠르(소피아, 2004), 마리아 유디나 콩쿠르(2007)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음반에 수록된 쇼팽의 '왈츠'는 작년 말부터 쇼팽의 작품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바노프 연주의 일면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다. 호로비츠와 굴드 그리고 치프라의 연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술회하는 그의 연주는 작품 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품고 있는 쇼팽 '왈츠' 본연의 변화무쌍한 생기를 자연스럽고 시상(詩想) 가득한 터치로 표현한다.

99147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S.178, 1965 & 1975년 녹음)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냉정과 열정사이',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에 담긴 파울 바두라–스코다 영감의 순간들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대하는 파울 바두라–스코다의 순간들, 엄청난 연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연주가 담긴 음반이다. 연주자 자신이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영감 가득한 순간이 담긴 연주 중 하나'라고 회고한 1965년 3월 카네기홀 실황과 이로부터 6년 후 작품을 반추하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1965년 연주가 패기에 가득 찬 그야말로 저돌적인 연주라면, 1971년 연주는 차분하고 관조적이며, 때로 냉담하기까지 하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연주자의 손길, 시간의 흐름이 배어있는 연주자의 감성은 모두 놀랍기 만하다.

Hitasura www.hitasura-productions.com

히타수라 레이블은
벨기에의 하프시코드 연주자 프레데리크 아스(b.1969)가 설립한 레이블이다. 바흐 · 쿠프랭 · 라모 등 독일 · 프랑스 바로크 음악에 능한 그는 이 레이블의 대표 이전에 음악가로서, 소리에 자유를 주고, 자유를 통해 소리를 내기 위하여 자신만의 레이블을 설립했다고 한다. 히타수라 레이블의 홈페이지에 적힌 프레데리크 아스가 생각하는 음반이란 이런 것이다. '음악은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작업 · 기술 · 투자를 거친 호화로운 예술 형식이다. 음반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담는 데에 가능한 완벽해야 한다. 이것 역시 호화로운 음악을 담는 호화품이기 때문이다.'

히타수라 레이블의 소속 아티스트로는 아스가 창단하고 이끌고 있는 앙상블 아우소니아 외에 그래픽 디자이너 애드 반데르 쿠베, 사진 작가 로젠 퀴리, 음향엔지니어 위그 데쇼가 함께 활동한다. 그래서 음반 재킷은 음반을 대변하는 이미지이자 독립된 예술적 완성도를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프레데리크 아스가 사용하는 악기는 앙리 앙쉬(1700~1769)가 제작한 1751년산 명기다. 홈페이지(hitasura-productions.com)에 들어가면 악기의 부분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게 해 놓았다.



HITASURA

HSP002 [3CD]
스카를라티:
하프시코드 소나타 35곡
프레데리크 아스(하프시코드)
'스카를라티의 보석'을 연주하다
스카를라티는 기교적인 연주자였기에 그의 곡은 예나 지금이나 연주자들에게 난제다.
이 앨범은 스카를라티의 하프시코드 소나타 35곡을 3장의 CD에 수록한 것이다.
프레데리크 아스(b.1969)가 사용하는 악기는 앙리 앙쉬(1700~1769)가 제작한 1751년 산이다.
젊은 연주자 특유의 활력,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기품 있는 하프시코드의 울림, 작은 소리도 맑게 담아내는 녹음 기술이 빚은 성과물이라 하여도 좋다.
이 앨범은 프레데리크 아스가 직접 설립한 히타수라 레이블에서 제작한 것으로, 듣고 있노라면 음반 속에 악기 소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간파하고 이 앨범을 제작한 것 같다.
CD는 '소리와 디자인의 총집합체와 같다'는 아스의 믿음 때문에 내지의 디자인도 아름다우며, 해설지에는 스카를라티에 관한 인터뷰(프 · 독 · 영)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트랙의 스페인 작곡가 안토니오 솔레르(1729~1783)의 '판당고'가 대미를 장식한다.

HSP003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 · 2권 (2CD)
프레데리크 아스(하프시코드)
1751년 명기의 울림, 맑은 소리를 담은 녹음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은 바흐가 24개의 장조와 단조로 쓴 전주곡과 푸가의 모음곡이다.
이 앨범에 수록된 CD마다 12곡의 전주곡과 12곡의 푸가가 수록되어 있다.
프레데리크 아스(b.1969)가 사용하는 하프시코드는 앙리 앙쉬(1700~1769)가 제작한 1751년 산 명기로 기품 넘치는 사운드를 선사한다. 특히 이 앨범은 프레데리크 아스가 직접 설립한 히타수라 레이블에서 제작한 것으로, 아스는 유려한 선율과 우아한 장식미를 연출하며, 레이블을 대표하는 음향엔지니어 위그 데쇼의 선명한 음향 환경이 소리를 든든히 받쳐준다.
CD는 '소리와 디자인의 총집합체와 같다'는 아스의 믿음 때문에 내지의 디자인도 아름다우며, 해설지에는 바흐와 클라비어곡집에 관한 인터뷰(프 · 독 · 영)가 수록되어 있다.

J.S.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J.S. Bach-Stiftung
St.Gallen

B592
바흐: 칸타타 67, 96, 121번
바흐 협회 합창단,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 루돌프 루츠(지휘)

바흐 협회가 제시하는 바흐 음악의 새로운 레퍼런스
스위스의 북동쪽 끝의 아름다운 도시 상크트 갈렌에 위치한 바흐 협회는 바흐의 성악 작품 전곡을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음반은 67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와 96번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121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를 수록했다. 바흐 협회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계적인 독창자들과 상크트 갈렌을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루돌프 루츠가 함께하는 이 음반은, 풍부한 음향과 종교적인 경건함, 그리고 세련된 음색으로 바흐의 새로운 레퍼런스를 제시한다.

Klanglogo www.klanglogo.de

klanglogo

KL1412
노트르 담: 마쇼부터 바로크까지
비엔나 보컬 콘소트

14세기 마쇼부터 18세기 바로크까지 폴리포니의 역사
빈의 선두적인 보컬 앙상블인 비엔나 보컬 콘소트가 중세부터 바로크까지 아홉 명의 작곡가의 성모 마리아 성가들을 연주했다. 비엔나 보컬 콘소트는 이 음반을 만들면서 14세기의 기욤 드 마쇼의 음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현대인이 오래 전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익숙한 경험은 아닐 것이기에, 그들은 비교적 익숙한 바로크까지 연결하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폴리포니를 탐구한다. 마쇼부터 뒤파이, 데프레, 루에, 팔레스트리나, 빅토리아, 갈루스, 미흐나, 그리고 18세기 이리바렌까지 고음악 역사의 흐름이 이 한 장에 들어있다.

KL1519
파헬벨: 푸가, 토카타, 샤콘, 리체르카르 등 건반음악
마르톤 보르사니(하프시코드, 오르간)

17세기 후반 독일 남부 건반음악을 대표했던 파헬벨의 진면목
'카논 D장조'로 유명한 요한 파헬벨은 독일 남부의 건반음악을 대표하는 거장이었다. 그는 특히 합창곡을 편곡한 '코랄 프렐류드'라는 장르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했는데, '죄 없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등 이 장르의 작품을 수록했다. 또한 파헬벨은 푸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이 음반은 '리체르카르'와 '푸가'를 수록하여 그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르사니는 하프시코드뿐만 아니라 17세기의 음색을 재현한 페터 마이어의 포지티브 오르간을 사용했다.

LPO www.lpo.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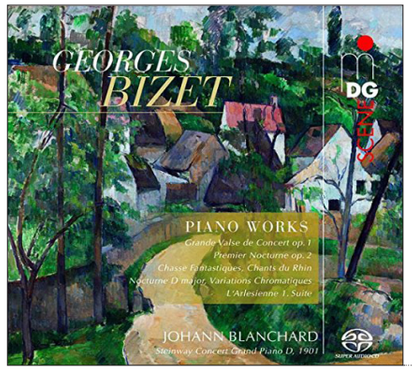
LPO–0096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피델리오' 서곡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런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젊은 '영웅'의 당찬 해석과 박진감이 돋보이는 베토벤 '영웅' 교향곡
로열 페스티벌홀의 베토벤 교향곡 3번(2014년 1월), 로열 앨버트홀의 '피델리오' 서곡(2015년 9월) 실황이 담겨 있다. 2007년부터 런던 필의 수석지휘자로 활동 중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b.1972)와 악단의 만남은 서로를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이다. '영웅' 부제가 붙은 교향곡 3번은 '고전'의 형식을 깨고 '낭만'의 시대를 열었던 작품으로 유로프스키의 해석은 악기들의 앙상블을 끈끈히 하며, 탄력 있게 차고 나가는 박진감이 살아 있다. '피델리오'도 짧은 곡이지만, 그의 젊은 감각과 힘이 돋보이는 수연이다. 런던 필 자체 레이블(LPO)에선 처음 발표된 베토벤 교향곡 3번은 LPO 레이블 베토벤 컬렉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쿠르트 마주어의 교향곡 1 · 4번(LPO 0093)이 있는데, 선배들의 명성을 잇는 음반이다.

LPO–0104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교향적 무곡'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젊은 지휘자와 영국 악단의 중심이 만나 만든 라흐마니노프 찬사!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죽음의 섬'(2004년 8월)과 '교향적 무곡'(2003년 10월)이 수록된 음반으로, 스튜디오 녹음에선 볼 수 있는 실황 공연(로열 페스티벌홀)의 에너지와 재미를 선사하는 음반이다. 2007년부터 런던 필을 이끌고 있는 유로프스키는 2001년 객원으로 첫 호흡을 맞추었고, 2003년부터 수석객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니 2003 · 2004년에 녹음된 이 음반은 정식 취임 전, 이들의 호흡과 미래를 점치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죽음의 섬'에서 유로프스키는 극적 굽이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자연스러운 다이내믹으로 적확한 색채를 표현한다. 악장 피터 쉐만의 독주 활약도 눈에 띈다. 또한 박진감 있으면서도 정연함을 잃지 않는 강건한 울림으로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무곡'을 선보인다.

MD&G www.mdg.de



DG

904 2018–6 [SACD]
조르주 비제 피아노 모음곡
요한 블랜차드(피아노)

비제의 재발견! 비제의 피아노 세계
'카르멘'의 비제가 피아노곡을 작곡했다는 것을 하는 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 블랜차드는 희소적 가치가 높은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엠데게 레이블에서 발매한 프랑스 여류 작곡가 세실 샤미나드(1857~1944)의 연습곡을 출반(904 1871–6)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본 앨범에 수록된 비제의 '무언가'(4~9), 녹턴(10), '아를의 여인' 모음곡(12~15트랙)은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지만, 브랜차드는 매우 자연스럽게 건반의 목청을 울린다. 1901년산 스타인웨이로! 듣다보면 비제를 국한 짓던 '카르멘'과 스페인의 색채를 풀고, 그의 더 넓은 음악세계를 보게 된다.

Naxos

www.naxos.com

8111406

프리츠 크라이슬러: 전곡 레코딩 7집

프리츠 크라이슬러(바이올린), 후고 크라이슬러(첼로), 찰튼 키스 & 칼 램슨(피아노)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여유롭고 우아한 크라이슬러의 매력

프리츠 크라이슬러 전곡 레코딩 7집에는 1920년에서부터 1925년 사이의 녹음이 수록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군인으로 참전했던 크라이슬러는 이제 그에게 가해졌던 비난을 극복하고 런던과 파리 등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빅터 그리고 HMV를 통해 집중적으로 녹음을 남기기 시작했다. 인생의 전기해도 좋을 법한 이 시기, 극동 지방으로 순회 연주를 떠났던 크라이슬러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1923년). 빛바랜 듯 들리나 여유롭고 우아한 크라이슬러의 매력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답다.

8572880

슈만: 피아노 듀오를 위한 편곡 4집

에케를 피아노 듀오(연주)

작품의 매력을 살린 편곡의 묘미, 선명하고 정밀한 연주

원하는 음악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피아노 혹은 통기타로 편곡된 악보들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슈만이 살았던 시대에는 특히 피아노로 편곡된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단순히 연주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녹음 장비가 없었던 시대, 가정이나 살롱 등 연주회장 밖에서 해당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슈만의 '봄날'이 담긴 '교향곡 2번', 슈만의 처남인 볼테마르 바르기엘이 편곡한 '게노베바 서곡' 등을 에케를 피아노 듀오의 선명하고 정밀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적극 추천한다. *** '교향곡 2번'(1–9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 녹음.**

8573685

스비리도프: '눈이 내리네',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러시아의 표류'(레제트니노프 편곡,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

밀라 시키르틸(메조 소프라노), 니콜라이 마자라(피아노), 세르게이 볼로시추크(프렌치 호른), 국립 상트 페테스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유리 셰르노프(지휘) 외

텍스트와 음악의 절묘한 결합, 가슴 시린 러시아의 서정

러시아의 작곡가 스비리도프는 푸슈킨의 《고 이반페트로비치 벨킨의 이야기》 한 대목을 음악으로 표현한 '눈보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텍스트와 음악의 결합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능숙했는데, 음반에 수록된 '러시아의 표류', '눈이 내리네'의 가슴시린 서정은 작곡가의 이 같은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제자로서 스비리도프에게 드리워 있던 스승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 '눈보라'와 함께 감상할 것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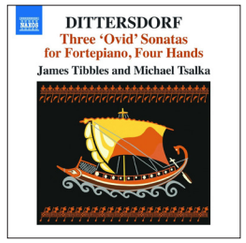
8573686

페르난드 소르: 성악과 기타를 위한 가곡집

네레아 베라온도(메조 소프라노), 에바 베네케(기타)

페르난도 소르의 알려지지 않은 가곡들

페르난도 소르는 당대 최고의 기타 연주자라는 위상을 보여주듯 주로 기타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기타 작품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페르난도 소르의 가곡들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페인 가곡 중 애국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따로 덧붙였다. 기타와 성악을 위한 버전으로 편곡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의 장면들, 스페인 민요의 정열적인 색채는 기타 작품만큼이나 매력적이다.



8573740

디테스도르프: 3개의 오비디우스 소나타 (네 손을 위한 포르테 피아노 편곡 버전)

마이클 찰카 & 제임스 티블스(포르테 피아노)

네 손을 위한 포르테 피아노 버전으로 감상하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빈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 이자 작곡가인 디테스도르프는 《의사와 약종상》을 비롯한 오페라 작품으로 당대에 인기를 누렸다. 그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주제로 15편의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 중 출판된 것은 여섯 작품뿐이었다. 본 음반에는 유실된 아홉 작품 중 네 손을 위한 포르테 피아노 버전으로 남아있는 세 작품이 수록되었다. 《변신 이야기》의 장면들('아이아스와 율리시즈', '신이 된 헤라클레스', '황금 양털을 구한 이아손')을 극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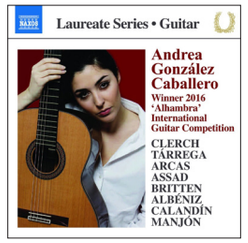
8559826

손타키스: '아나사', '트루 컬러즈', '언포게터블'

데이비드 크라카우어(클라리넷), 에릭 벌린(트럼펫), 루오샤 팡 & 유니스 킴(바이올린), 올버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데이비드 알란 밀러(지휘)

이국적 색채 속에 생동하는 영감의 향연

지휘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타키스의 협주곡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호흡' 또는 '생기'를 뜻했던 '아나사'에서 제목을 따온 클라리넷 협주곡은 유대 민속 음악인 클레즈머의 색채와 크레타 지역의 민속 악기인 리라와 라우토의 음색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재즈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트럼펫협주곡 '트루 컬러즈', 슬라이드 이미지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언포게터블'에 이르기 까지 3개의 협주곡에 담긴 영감의 향연은 그라베마이어 상을 수상(2005년)했던 작곡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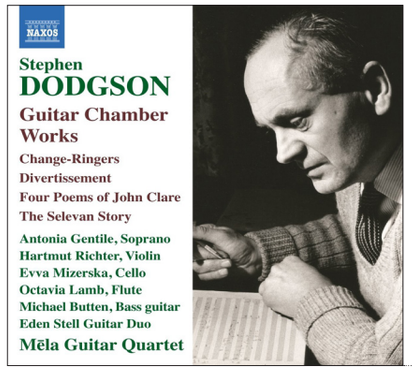
8573767

안드레아 곤잘레스 카발레로 기타 연주집

안드레아 곤잘레스 카발레로(기타)

원숙하고 세련된 색채, 때로는 대가의 일면을 연상시키는 연주

안드레아 곤잘레스 카발레로의 2016년 알함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이다. 음반은 타레가, 알베니스, 호아킨 클레르티 등 기타 연주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하고 있는 작품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아킨 클레르티의 '트레몰로 연습곡', 세르히오 아사드의 '훌리안 아르카스를 위한 헌사', 벤자민 브리튼이 다울랜드의 '오라, 깊은 잠이여'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 '녹턴'(12번 트랙)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원숙하고 세련된 색채로 작품을 대하는 연주는 때로 대가의 일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호아킨 클레르치, '트레몰로 연습곡'(1번 트랙), 세르히오 아사드, '훌리안 아르카스를 위한 헌사'(11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62

스티븐 도지슨: 기타 실내악 작품집

안토니아 젠타일(소프라노), 하르트무트 리히터(바이올린), 에바 미제르스카(첼로), 옥타비아 램(플루트), 에덴 스텔 기타 듀오(기타), 마이클 버튼(옥타브 베이스 기타), 멜라 기타 사중주단(연주)

기타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절묘한 어울림

스티븐 도지슨은 줄리언 브림과의 만남 이후 기타 작품에 천착하게 되었고, 이후 기타는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특징짓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스티브 도지슨은 그의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실내악에서도 기타와 다양한 악기의 조합을 시도했는데, 본 음반에는 기타 앙상블과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성악의 어울림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기타 앙상블의 재치가 담긴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체인지-링어즈', '성 스테파노 찬가'의 고결함, 넘실거리는 기타 선율 위를 표류하는 매력적인 시상(詩像)이 담긴 '존 클레어의 4개의 시'는 음반의 백미이다. ***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체인지-링어즈'(1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813

리우 시앤지: 기타 연주집

리우 시앤지(기타)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중국인 최초 우승자, 리우 시앤지의 우승 기념 음반

중국인 최초로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한 리우 시앤지(劉憲續)의 우승 기념 음반이다. 연주자의 기교와 기타의 다양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작품들의 면면은 시간적으로는 스카를라티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영국을 아우를 정도로 폭 넓다. '새로운 지평'에 대한 리우 시앤지의 기대감은 작품의 색채를 소박하지만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주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특히, 레녹스 버클리의 '소나티나'(op.52–1)와 타레가 작품들에서의 매혹적인 표현력이 인상적이다. 우승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8579008

에릭 에센발즈: 합창음악 작품집

포틀랜드 주립대학 첨버 합창단(합창), 포틀랜드 주립대학 현악 앙상블(연주), 에단 스페리(지휘) 외

자연과 신앙의 영감이 담긴 에릭 에센발즈의 대표작

라트비아의 작곡가 레익 에센발즈의 합창음악은 아르보 페르트의 작품 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음반에는 에릭 에센발즈의 합창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이누이트족의 전설이 담긴 '최초의 눈물', 오로라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 '빛의 강', 마더 테레사를 주제로 작곡된 '대양의 물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서사시 '수난과 부활'은 자연과 신앙의 영감을 극적으로 승화시키는 작곡가 특유의 스타일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을듯 싶다. 세인트 스티븐 성당의 아름다운 반향이 특히 인상적이다.

8573598

발렌틴 실베스트로프: 기억의 순간들(2), '메신저'(피아노 & 현악 & 신디사이저 편곡 버전, 1997), '고요한 음악', '현을 위한 세레나데', '후기를 덧붙인 두 개의 대사'

이리나 스타로덥(피아노), 키에프 비르투오시(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인상'과 '잔상', 의식의 흐름

그 어떤 것과의 교감없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주고받은 인상에 대한 반응. "나는 새로운 음악을 쓰지 않는다. 내 음악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자 반향이다."라고 말한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음악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음반에는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인상, 모차르트와 쇼팽의 색채가 담긴 편린을 통해 과거의 잔상을 대하는 작곡가의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대화하는 아련한 의식의 흐름, 관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인상'과 '잔상'의 긴 여운이 인상적이다.

8573414

바그너: 연주회용 서곡 모음집

MDR 라이프치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윤 메르쿨(지휘)

바그너의 처음과 끝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음반이다. '요정'과 '연애금지' 서곡을 비롯해 '연주회용 서곡' 등 바그너의 초기 작품들은 베토벤과 슈만, 멘델스존의 색채와 더불어 벨리니, 오베르 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 트랙인 '지그프리트 목가'는 이 같은 색채들을 기반으로 한 바그너의 끊임없는 실험이 거둔 결실임을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다가온다. 바그너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키듯 산뜻하고 풋풋한 연주 속에서 바그너 음악의 '처음과 끝'은 도드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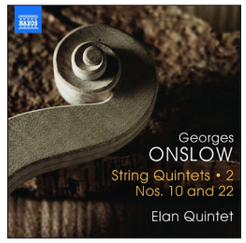
8573648

라이타: 교향곡 8 & 9번(관현악 작품 6집)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니콜라스 파스케(지휘)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작곡가의 시선

1959년 작곡한 '교향곡 8번', 1961년 작곡한 3악장의 '교향곡 9번'. 라즐로 라이타의 관현악 작품 6집에는 작곡가 일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의 발발과 좌절을 목도했던 라이타는 그의 아내가 '위안 없는 비극'이라 묘사한 '교향곡 8번'에서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라이타에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향악 작곡가 중 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가져다 준 '교향곡 9번'은 삶의 마지막 순간,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작곡가의 어떤 순간보다도 아름다운 눈빛을 보여준다.



8573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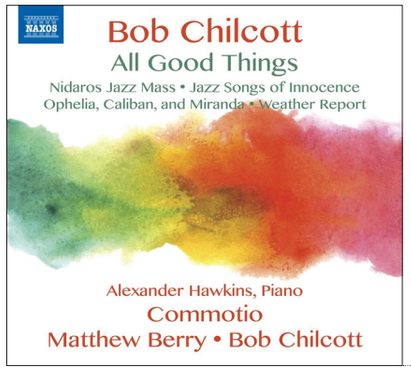
온슬로: 현악 5중주 2집(현악 5중주 10 & 22번)

엘란 오중주단(연주)

평온함 속에 감추인 열정, 묘한 매력을 안겨주는 연주

온슬로의 '현악 5중주' 10번과 22번이 수록된 '현악 5중주 시리즈' 2집이다. 도메니코 드라고네티와의 만남을 보여주는 편성(더블 베이스), 슈만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작품의 면모는 1집(8.573600)을 잇고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베토벤이 사망하던 해 출판된 '현악5중주 10번'은 베토벤적인 색채가, 온슬로가 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명예 회원으로 선정된 해에 출판된 '현악 5중주 22번'은 슈베르트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어 흥미롭다. 평온함 속에 감추인 열정, 묘한 매력을 내뿜는 엘란 오중주단의 연주는 차기작을 기대케 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383

밥 칠콧: 합창음악 작품집 – 모든 좋은 것들

수 그린웨이(색소폰), 라파엘 미즈라키(더블 베이스), 알렉산더 호킨스 & 밥 칠콧(피아노), 존 스콧(드럼), 코모티오(합창), 매튜 베리 & 밥 칠콧(지휘)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합창음악 작곡가 밥 칠콧의 최근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듯한 담백하면서도 유쾌한 재즈 색채는 리처드 베넷이 1970년대에 편곡한 거쉰의 작품들을 모델로 했다. 작품들은 캠브리지 싱어즈와 존 루터의 만남을 연상시키듯 활기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 블레이크와 윌리엄 볼드윈의 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재즈를 사용한 미사곡에서는 평범함 속 비범함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음반, 감상을 권하고 싶다.

*** '파버티 부인과의 결혼'(4번 트랙), '그대 내 사랑, 아트 페어'(12번 트랙), '웨더 리포트'(14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 녹음.**

8573629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회화적 연습곡'(Op.33), '사랑의 슬픔'(크라이슬러 작곡, 라흐마니노프 편곡), '아버지의 폴카(Polka de W. R)'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카를로스 미구엘 프리에토(지휘)

러시아의 봄, 도약하는 에너지

지난 몇 장의 앨범에서 보여준 호연으로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보리스 길트버그의 신보이다. 전작에 이어 다시 한 번 러시아 레퍼토리, 그 중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을 다루고 있는 본 음반은 쇼스타코비치와 리스트 작품에서 보여준 길트버그의 장점들(입체적이고도 세밀한 터치, 흑백의 명암과 다채로운 색채감의 능숙한 표현)이 집약되어 있다. 인상주의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묘사적 연주, 겨울의 침울함 보다는 그 끝의 '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길트버그의 터치와 산뜻한 조화를 이룬다. 적극 추천한다.

8573717

페르난트 리스: 바이올린 소나타 2집

에릭 그로스만(바이올린), 슈잔 카간(피아노)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작품성, 리스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매력

예전에 비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해도 영화 등에서 접하는 페르난트 리스의 모습은 명민하기보다는 약간 어수룩하다. 그의 스승인 베토벤에 비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리스는 베토벤의 제자로서 자신의 색채가 담긴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고전과 낭만 사이의 우아함과 독창성이 담긴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베토벤의 모사가' 정도로 평가되는 리스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작품성, 리스의 매력적인 면모가 담긴 작품들이다. 1집(8.573193)과 더불어 감상을 권하고 싶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23

드보르작: 피아노 3중주 2집(피아노 3중주 1 & 2번)

템페스트 트리오(연주)

넘실거리는 열정 & 세상의 끝에서 되돌아오는 환희

드보르작의 피아노 3중주 1번에는 작곡 당시 오스트리아 국비 장학생 선발을 계기로 고무된 창작열이 물씬 배어있다. 일면 호방하면서도 민속음악의 색채에 배어있는 서정과 악흥은 걸작 '둠키'로 일단락되는 여정을 짐작케 한다. 자식을 잃은 일생의 슬픔 속에 작곡된 '피아노 3중주 2번'은 '백일몽'을 연상시키듯 어둡고 몽롱한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되돌아오는 환희로 마무리된다. 템페스트 트리오는 작품의 스케일과 열정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1집(8.573279)과 더불어 필청할 만한 음반이다.

8573731

카밀로 토니: 플루트 작품집

로베르토 파브리치아니(플루트 & 피콜로), 도로시 도로우(소프라노), 마시밀리나오 다메리니 & 카를로 알베르토 네리(피아노), 빈센초 살다렐리(기타), 이 카메리스티 롬바르디(연주), 마리오 콘테르(지휘)

형식과 자유의 균형에 대한 다양한 시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카밀라 토니가 15세 때 미켈란젤리가 연주로 접했던 쇤베르크의 작품은 그를 신빈악파의 길로 이끌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 선보이게 될 작품들의 기저를 이루게 된다. 특히, '플루트 소나타(8–10번 트랙)'과 '환상 협주곡(21번 트랙)'은 각각 쇤베르크의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음향과 음색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토니의 독창적인 매력은 플루트와 기타, 피콜로, 음성의 조합을 통해 형식과 상상의 균형을 탐구했던 작품 세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 '플루트 소나타'(4–6번 트랙),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5개의 소품'(13–17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 녹음.**

8573751

부조니: 피아노 작품 9집

볼프 하덴(피아노)

훗날을 예견하는 조숙한 면모, 부조니의 어린 시절 피아노 작품들

부조니 피아노 작품 시리즈 9번째 음반에는 그의 나이 11세에서부터 15세 사이에 작곡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마을 축제'(1–6번 트랙)의 묘사적인 선율과 재치, 고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고풍스런 춤곡'(10–13번 트랙)과 '가보트'(14번 트랙), '환상 이야기'(7–9번 트랙)의 정교함, 조숙한 내면의 한 순간이 담긴 '전원 모음곡'(15–19번 트랙) 모두 어린 시절의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조니 피아노 작품집을 통해 독주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각인시키고 있는 볼프 하덴의 연주는 빼어나다.

8573764

비도르: 목관을 위한 작품 전곡

티스 로르다(플루트), 알렉세이 오그린추크 (오보에), 올리비에 파테이(클라리넷), 나이토 준코(바이올린), 베네딕트 엔즐러(첼로), 알레산드로 소코르시(피아노), 베트 모이만(하모늄)

화풍난양(和風暖陽)의 활기와 우아함

오늘날 비도르는 압도적인 스테일의 오르간 작품으로 친숙하다. 오르간 작품들은 그의 작품 세계 본령이자 대표작이지만, 비도르는 오르간 작품 이외에도 실내악,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남겼다. 본 음반에는 이 중에서도 목관을 위한 작품 전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화풍난양, 和風暖陽)'을 연상시키는 활기로 가득하다. 특히, R. 드 리드가 플루트와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피렌체 모음곡'(1–4번 트랙)과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하모늄과 피아노를 위한 세레나데'(14번 트랙)의 우아함이 압권이다.

*** '피렌체 모음곡'(R. 드 리드 편곡 버전, 1–4번 트랙), '3개의 소품'(10–12번 트랙),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하모늄, 피아노를 위한 세레나데'(1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81

마이어: 스타바트 마테르 & 아베 마리스 스텔라(바다의 별이여) & 에야 마테르(오, 어머니)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 & 윤재원(소프라노), 테레자 홀츠하우저(알토), 로베르트 젤리어 & 마르쿠스 쉐퍼(테너), 비르길 미쇼크 & 옌스 하만(베이스), 지몬 마이어 합창단,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극장 합창단(합창),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콘체르토 드 바수스(연주), 프란츠 호우크(지휘)

천상의 아름다움', 《레퀴엠》에 이은 지몬 마이어 걸작의 재탄생

프란츠 하우크에 의해 복원된 지몬 마이어의 '스타바트 마테르'가 수록된 음반이다. 작품 중 하이든의 '넬슨 미사'와 '거룩 미사'에서 가사를 가져온 마지막 악장 'Quando corpus moriotur(육신이 쇠할 때)'는 훗날 《레퀴엠》 중 'Huic ergo(그러므로 그에게)'에서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끈다. 당대에 '천상의 아름다움'이라 찬사를 받았던 걸작을 만날 수 있는 값진 음반으로서 투명함과 때로는 현대적으로까지 느껴질 만한 세련미를 갖춘 작품의 면모는 지몬 마이어 작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프란츠 하우어 역작으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90

영국 작곡가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클레어 호윅(바이올린), 존 폴 에킨스(피아노)

해질녘 풍광,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들

영국 작곡가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엘가의 개인적인 감성과 예술적 기교가 담긴 '바이올린 소나타'와 '마주르카' 등 수록된 작품들은 해질녘 아련한 추억의 편린과 닿아있다. 귓가에 일렁이는 반음의 잔향은 〈나이팅게일을 위한 송가〉(존 키츠)의 구절들을 연상케 할 만큼 짙은 여운을 내뿜는다. 엘가의 작품들과 더불어 딜리어스의 '세레나데', 시릴 스콧의 '석양'과 '꿀벌', 브리지의 '활기차게'는 음반의 백미이다. 영국 여성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룬 클레어 호윅의 또 다른 음반(8.572291)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연주이다.

*** '석양'(7번 트랙), '컨트리 댄스'(13번 트랙), '활기차게(con moto)'(15번 트랙), '사랑의 탄식'(18번 트랙), '명상'(2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9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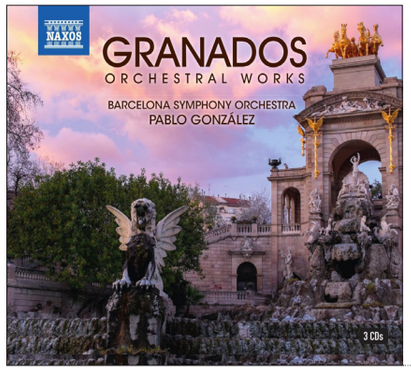
블랑카포르트: 가곡 1집

안나 알라스 이 호베(메조 소프라노), 미켈 비얄바(피아노)

포레와 사티, 몸푸의 색채가 어우러진 블랑카포르트의 가곡들

카탈로니아 출신 작곡가 마누엘 블랑카포르트의 가곡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블랑카포르트는 그의 음악 전부를 카탈로니아에 헌정하려 했다 해도 좋을 만큼 카탈로니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같은 지역(카탈로니아) 출신인 몸푸와의 만남은 그를 사티, 포레 등 파리의 새로운 흐름 속으로 이끌기도 했다. 간결하면서도 아른거리는 색채감, 여유 있는 분위기, 강조점을 찍듯 틈틈이 드러나는 스페인의 억양은 블랑카포르트 일생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느 한 쪽의 분위기에 치중하지 않는 정갈한 연주는 작품의 핵심과 닿아있다.

***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며'1번 트랙), '황소 이야기'(9번 트랙), '그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리'(16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03295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전집(3CD FOR 2)

카탈루냐 국립 바르셀로나 교향악단(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외

그라나도스 탄생 150주년 기념 시리즈 전집

그라나도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낙소스 레이블에서 선보인 관현악 시리즈가 전집으로 발매되었다(3CDs).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현악 작품들은 피아노 작품들 못지않게 폭넓고 다채롭다.
그의 관현악 작품들은 특히, 이국적인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 카탈루냐의 인상을 다루는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 바그너와 인상주의로부터 받은 영향 등을 보다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강렬한 음색과 리듬감, 일렁이는 선율, 몽롱한 서정을 아우르는 악단의 연주는 작곡가의 감성을 오롯이 드러낸다. 적극 추천한다.

8559804

클로드 베이커: 피아노 협주곡 1번 '정오에서부터 별이 빛나는 밤까지' & 《백조의 노래》로 부터

마르크-앙드레 아믈랭(피아노),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후안호 메나 & 길버트 바르가(지휘)

시와 음악 속에 흐르는 시간의 인상, 그림 속 그림을 연상시키는 작품

클로드 베이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인디애나 음대 설립 100주년 기념 작품이다. '정오에서부터 별이 빛나는 밤까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작품은 월트 휘트먼의 시 5편에 대한 인상을 아이브스의 《콩코드 소나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노래》 중 '봄', 메시앙의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말러의 《대지의 노래》 한 대목을 빌어 표현했다. 슈베르트의 가곡 《백조의 노래》를 새롭게 해석한 '《백조의 노래》로 부터'에 이르기까지 수록된 작품들은 '그림 속 그림'을 연상시킨다. 여름을 지나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의 색채, 시와 음악 속에 녹아든 시간(또는 시절)의 흐름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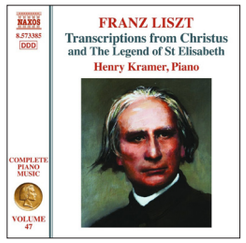
8572998

카바초니 외: 이탈리아 리체르카레 전집

글렌 윌슨(하프시코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프시코드 5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음반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 티티아노 라파엘로 등의 후원자로 유명한 교황 레오 10세는 당대 음악가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레오 10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카바초니를 비롯해 당시 작곡가들의 리체르카레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은 레오 10세 당시 카바초니가 연주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프시코드 50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산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르간으로 연주되던 리체르카레를 글렌 윌슨의 하프시코드 편곡 버전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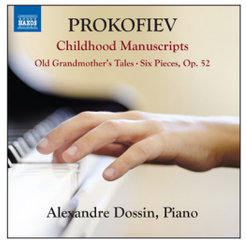
8573385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집 47

헨리 크래머(피아노)

리스트의 만년, 구도자로서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작품

리스트의 만년, 구도자로서 삶의 궤적은 그가 작곡한 종교음악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리스트 피아노 작품 47집에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두 작품,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와 '성 엘리자베스'의 일부분을 리스트 자신이 피아노로 편곡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2016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2위에 오르기도 했던 미국의 피아니스트 헨리 크래머는 선명한 터치, 말끔한 기교를 바탕으로 작품 전반에 흐르는 장대하고도 극적인 서사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세 왕의 행진'과 '십자군 행진'에서 드러나는 작품의 역동적인 색채는 작곡가와 연주자의 친밀한 교감을 짐작케 한다.



8573435

프로코피에프: '유년기 작품' & '나이든 할머니의 이야기들' & '6개의 소품'

알렉상드르 도신(피아노)

앙팡테리블의 색채 – 프로코피에프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작품들

상트 페테스부르크 시절, 프로코피에프는 그의 스승들로부터 정상적인 코스와는 거리가 먼 '어딘가 이상한 학생'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세계를 유년 시절부터 이해했던 스승이자 지음(知音)은 라인홀트 글리에르였다. 본 음반은 라인홀트 글리에르와 함께 했던 프로코피에프 유년 시절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 '유년시절 원고들' 이외에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긴 '나이든 할머니의 이야기들', 초기 작품들을 편곡한 '6개의 소품' 모두 작곡가의 어릴 적 추억과 관련 있는 작품들이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전통적이지만 누구보다도 변용을 꿈꿨던 '앙팡테리블'의 색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8573546

비제: 카르멘 모음곡 1 & 2번, 아를의 여인 모음곡 1 & 2번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우아한 정열, 서사적인 흐름이 돋보이는 연주

비제의 《카르멘》과 《아를의 여인》. 작곡가를 대표하는 두 작품은 초연의 아픔을 딛고 '모음곡'의 형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 이외에도 작곡가의 친구인 에르네스트 귀로가 다시 편곡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리드미컬하면서도 우아하게 드러나는 '아바네라(Habanera)'와 '세기디야(Seguidilla)'의 정열, 서사적 흐름을 곁들인 '태양의 인상'. 파블로 곤잘레스와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익숙하지만 사뭇 다른 멋을 머금은 필치로 작곡가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을 대하고 있다. 작품의 신선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감상을 추천하고 싶다.

8573608

클레멘티: 건반소나타 Op.23, 1–3번 & Op.34, 1번, 환상곡과 변주곡 '달빛 속에서', Op.48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즈(피아노)

반짝이는 광채, 또렷한 울림, 순수함과 아기자기한 색채를 두루 갖춘 연주

피아노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알게 모르게 지나쳤을 법한 클레멘티의 건반 소나타들은 전문 연주자보다 아마추어를 위한 작품 정도로 인식되는 듯하다. 클레멘티의 영감, 그리고 기교에 대한 탐구와 새로운 시도가 담겨있는 〈환상곡과 변주곡('달빛 속에서')〉, 〈건반소나타, Op.34, 1번〉은 이러한 인식을 바꿔줄 만한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하이든의 영향이 드러나는 '건반소나타 Op.23, 1–3번'에 이르기까지 반짝이는 광채, 또렷한 울림, 순수함과 아기자기한 색채를 두루 갖춘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즈의 연주는 작곡가의 영감을 배가하고 있다.

8573737

생상스: 첼로 작품집

('첼로 협주곡' 1 & 2번, '로망스', '모음곡 d단조',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첼로와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동물의 사육제》중 〈백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우아한 자태 속에 묻어나는 강렬한 에너지, 봄날의 망중한

마르크 수스트로와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상스 작품 3집에는 작곡가로서 생상스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첼로 협주곡 1번'과 뛰어난 기교가 담긴 '첼로 협주곡 2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바흐에 대한 헌사를 표현한 '모음곡 d단조' 등 생상스의 매혹적인 첼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연주자들은 '백조'와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첼로와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이 보여주듯 우아한 자태 속에 묻어나는 강렬한 에너지를 산뜻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한다. 봄날의 망중한을 연상시킬만한 연주이다.

8573620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7번' & '세 개의 오렌지를 위한 사랑(모음곡, 발췌)' & '키제 중위 모음곡'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지휘)

프로코피에프 삶의 마지막 메시지,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세련된 연주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주목할 한만 연주로 기대를 모았던 마린 알솝과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프로코피에프 시리즈가 마지막에 이르렀다. 프로코피에프 일생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교향곡 7번'과 대표작 반열에 올라있는 '세 개의 오렌지를 위한 사랑(모음곡, 발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키제 중위 모음곡'은 일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본인의 신념과 세상의 인정 사이를 맴돌던 작곡가 의식의 흐름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입체감 두드러지는 반향, 세련된 리듬과 전개는 시리즈 대미를 장식하기에도 부족함 없어 보인다. 적극 추천한다.

8573752

헤버갈 브라리언: 교향곡 8 & 21 & 26번

뉴 러시아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알렉산더 워커(지휘)

쇼스타코비치와 엘가, 딜리어스의 색채가 섞인 하버갈 브라이언의 교향곡 작품들

브람스의 '교향곡 1번'과 같은 해에 태어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가 탄생했던 해에 세상을 등진 영국의 작곡가 헤버갈 브라리언.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삶을 누리면서 32개의 교향곡 등 다수의 작품을 남긴 삶의 궤적은 근래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의 교향곡 시리즈 11번째 음반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예리함, 엘가의 스케일, 딜리어스의 서정이 어우러진 교향곡 8 & 21 & 26번이 수록되었다. 이번 음반을 비롯해 낙소스에서 선보이고 있는 하버갈의 교향곡들은 올 해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딸, 잔 퍼니벌을 추모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 '교향곡 26번'(6–8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89

피아졸라의 유산

토마스 코틱(바이올린), 타오 린(피아노)

밀롱가 어느 살롱을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 작품의 멋을 살리는 기교와 앙상블

피아졸라의 대표 작품을 산뜻하게 갈무리한 전작 '누에보 탱고'(8.573166)에 이어 토마스 코틱과, 타오 린은 전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피아졸라의 또 다른 대표작품들을 조명했다. 피아졸라 서거 12주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은 본 음반에는 '부에노스의 사계', '아니오스 노니노(안녕히 아버지)', '에스쿠알로(Escualo, 상어)', '밀롱가의 천사'를 비롯해 피아졸라에게 영감을 주었던 엘비노 바르다로에 대한 작곡가의 헌사가 담긴 '바르다리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밀롱가 어느 살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 작품의 멋을 살리는 빼어난 기교와 앙상블이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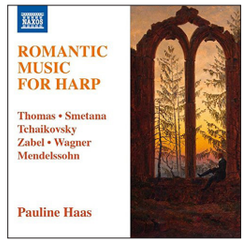
8573793

율리우스 클렌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1–3번, 전곡) & '연주회용 소품 d단조'

마르틴 룸멜(첼로), 마리 카토(피아노)

호방한 스케일, 압도적인 열정과 기교 – 첼로에 대한 작곡가의 헌사

첼로 연주자들에게는 '교본'으로 유명한 율리우스 클렌겔. 그는 작곡가뿐만 아니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과 독주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콘체르티노(소 협주곡)'은 제목에 어울릴 법한 너른 스케일 속에 흐르는 낭만주의적인 색채에, 율리우스 클렌겔 자신이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연주회용 소품 d단조'는 극적인 전개와 압도적인 열정 그리고 기교에 감탄하게 되는 작품이다. 잘 알려진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에서 드러나는 첼로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열정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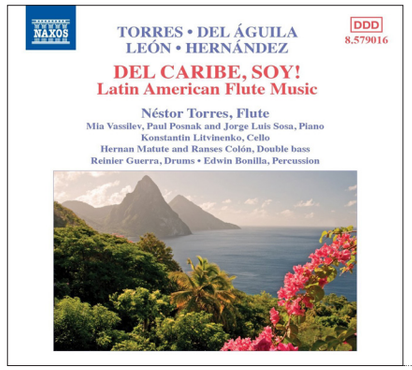
8579015

폴린 하스: 하프 리사이틀

폴린 하스(하프)

가슴 속 깊숙히 파고드는 작품의 심상 – 낭만의 악기, 하프의 매력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주제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멘델스존의 '서주와 푸가'등 원곡과 여러 편곡 버전으로 익숙한 작품들을 하프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이다. 다른 악기와 구별되는 하프 편곡의 매력은 하프가 신화에서부터 중세 음유시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낭만과 함께한 악기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을 바탕으로 폴린 하스가 직접 편곡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에서 '물결'과 '울림'과 '숨결'의 오롯한 반향은 가슴 속 깊숙이 파고든다.



8579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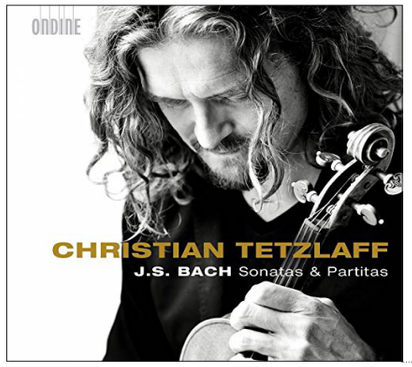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 플루트 작품집

토르 토레스(플루트), 콘스탄틴 리트비넨코(첼로), 란세스 콜론(콘트라베이스), 미구엘 델 아길라 · 타니아 레온 · 파울 포스낙 · 호르헤 루이스 소사(피아노), 레이니르 게라(드럼), 에드윈 보닐라(타악기)

수평선에 아른거리는 햇빛의 풍광, 카리브해의 인상을 머금은 플루트 선율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작곡가이자 라틴 그레미상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플루트 연주자 토르 토레스의 2015년 마이애미 공연 실황이 담긴 음반이다. 토르 토레스 자신이 작곡한 '마르타와 마리아', 미구엘 델 아길라가 토르 토레스에게 헌정한 '마이애미 플루트 모음곡' 등 수록된 작품들은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리듬과 정열 속에 카리브해 지역의 인상을 머금고 있다. 작품의 산뜻한 활력도 인상적이지만 바닷물에 아른거리는 햇빛의 풍광을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영감과 즉흥적인 멋을 표현하는 토르 토레스의 연주는 음반의 가장 큰 매력이다.

Ondine www.ondine.net



ODE1229-2 [2CDs]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전곡)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바흐 내면의 자화상에 대한 사려깊은 접근, 고독의 체화(體化)

테츨라프는 건반이 아닌 현이 갖는 무반주의 의미, 작품의 구성과 악보에 남아있는 바흐의 필적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첫 번째 부인의 상실과 관련된 바흐 내면의 자화상으로 본다. 특히, 작품 제목(Sei solo,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단 한사람 또는 혼자)에 주목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홀로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애틋한 마음은 '사랑(戀)'을 뜻하는 옛 일본어 '孤悲(코이)'의 정서와 닮아 있기도 하다. 오래지 않아 바흐에게 다시 다가올 '봄'을 예감케 하듯 옅은 미소를 머금은 마지막 트랙까지 테츨라프는 작품에 체화(體化)된 사려 깊은 연주를 보여준다. 적극 추천한다.

ODE1296-2

카터: 최후의 작품들

피에르-로랑 에마르(피아노), 콜린 커리(타악기), 아자벨레 파우스트(바이올린), 장-기엥 케라스(첼로), 버밍엄 컨템포레리 뮤직 그룹,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올리버 너센(지휘)

복잡한 리듬과 구조 속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음향의 세계

104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난 엘리엇 카터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음악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이 음반은 그의 2003년작 '다이얼로그'부터 마지막 작품 '에피그램'까지, 그의 최후 10년을 조망하고 있다. 카터의 후기 작품들은 계획된 구도에 의해 리듬과 구조의 복잡도를 높이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현대음악의 화려한 음향을 만들어낸다. 에마르와 파우스트, 케라스 등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익숙한 명연주자들은 이 이성적인 음악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ODE1288-2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 & 5번

올리 모스토넨(피아노),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한누 린투(지휘)

예리하고 정교한 감성, 단순 명쾌하게 작품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연주

올리 모스토넨과 한누 린투가 이끄는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째 음반이다. 피아노 협주곡 1 · 3 · 4번이 수록된 1집(ODE 1244-2)에 이어 2집에는 프로코피에프의 시대를 넘어선 시선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2번과 5번이 수록되었다.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에 치우치기보다 예리하고 정교한 감성으로 작품에 담긴 미래지향적인 색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누 린투와 올리 모스토넨의 해석은 1집에 이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다.

Orchid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69

새롭게 해석한 다울랜드의 '눈물'

듀오 반 블리에트(연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울랜드의 '눈물'

'캡틴 베르하트'로 알려진 '돈 반 블리에트'에서 이름을 따온 듀오 반 블리에트의 오키드 클래식스 레이블 데뷔음반이다. '흘러라, 나의 눈물이여'를 비롯한 다울랜드의 두 작품, 벤자민 브리튼의 '눈물' 등 총 7곡으로 구성된 본 음반의 수록곡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울랜드의 대표작 '눈물(라크리메, Lachrymae)'에 대한 인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비올라와 아코디언이라는 의외의 조합, 심연을 파고드는 우수의 다양한 인상은 새롭고 파격적이다. 다울랜드의 원곡과 함께 감상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ORC100070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1 & 2번

매튜 트러슬러(바이올린), BBC 웨일즈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그랜트 레월린(지휘)

명료하고 색채감 살린 해석, 고양된 서정

약 18년의 시간차를 두고 작곡된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은 단순함 속에 무한의 가능성이 담긴 '프로코피에프 의식의 요체'를 연상시킬만한 작품들이다. 거슨의 위트, 메시앙의 인상, 코른골트의 낭만을 두루 섭렵한 매튜 트러슬러는 그랜트 레월린이 지휘하는 BBC 웨일즈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로코피에프의 서정 그리고 의식의 흐름과 마주했다. 바이올린의 정교한 기교, 단순 명료한 흐름을 살리며 작품의 핵심을 명쾌하게 드러내는 연주는 고양된 서정의 순간, 작곡가의 시선으로 감상자를 안내한다.

ORC10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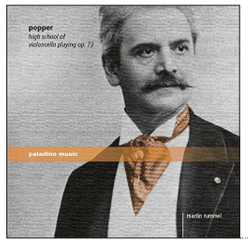
수채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양유엔판 등

양유엔판(피아노)

세계를 무대로 피아노와 작곡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양유엔판의 리사이틀

양유엔판은 영국 에딘버러 태생으로, 2014년 제4회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2015년 클리블랜드 영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현재 런던 왕립음악원 학생으로, 피아노뿐만 아니라 작곡도 공부하고 있는 그는, 리스트 콩쿠르에서 작곡과 즉흥연주 부문에서도 최고상을 받아 작곡 실력을 입증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슈베르트의 즉흥곡과 쇼팽의 연습곡과 환상곡, 리스트의 〈오베르만의 계곡〉 등 낭만음악의 진수와 함께, 감각적인 음화적 묘사가 돋보이는 자신의 〈세 개의 수채화〉를 선보인다.

Paladino www.paladino.at



paladino music

pmr0085 [2CD for 1.5]
포퍼: 고급 첼로 연습곡, Op. 73
마르틴 루멜(첼로)

첼리스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곡
다비드 포퍼는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비르투오소 첼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가곡부터 실내악, 관현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던 작곡가였다. 물론 그중에서도 첼로 작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들은 첼로의 아름다운 음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한계에 다가가는 고난도의 기교를 요구한다. 그래서 '고급 첼로 연습곡'은 오늘날에도 입시곡으로 자주 선택되고 있다. 이 곡은 무대 공연보다는 교육과 실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카잘스는 이 곡에 대해 "어떤 작곡가도 이 악기를 위해 이보다 잘 작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pmr0095
풀렝크: 클라리넷 소나타, 오보에 소나타, 첼로 소나타, 바가텔, 비가
마이(피아노), 데쉬(바이올린), 루멜(첼로), 뎅글러(혼), 그반첼라제(오보에), 쿠티(클라리넷)

특유의 다양한 표정으로 희로애락의 감수성이 녹아있는 풀렝크의 실내악
프랑시스 풀렝크는 반-바그너와 반-드뷔시를 외쳤던 작곡가로, 그의 작품들은 재치가 있는 선율과 가벼운 화음 사용하여 진지하면서도 무게감이 덜하고, 기분을 들뜨게 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러한 풀렝크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록곡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클라리넷 소나타'로, 고음과 저음의 대비를 통해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보인다. '첼로 소나타'와 '오보에 소나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풀렝크의 산뜻하고 청명한 스타일은 부족함이 없다. 풀렝크의 흔치 않은 혼을 위한 작품 '비가'는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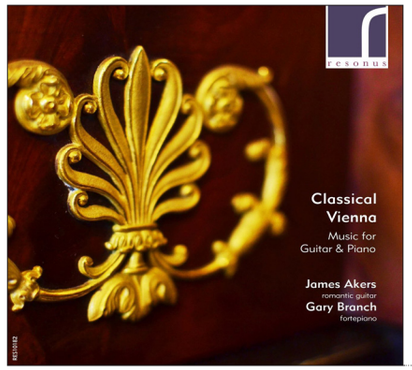
Philharmonia www.opernhaus.ch

PHILHARMONIA
ZÜRICH

PHR 0109
베르디: 오페라 서곡과 전주곡
필하모니아 취리히, 파비오 루이시(지휘)

한 편의 교향시에 필적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속의 관현악곡들
베르디는 오페라에 모든 창작력을 쏟아 부었지만, 오페라에 포함된 관현악 작품들도 이탈리아 기악 음악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무려 열 한곡의 오페라 신포니아와 전주곡, 그리고 발레 음악을 수록한 이 앨범은 이를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유명한 〈운명의 힘〉의 신포니아는 물론, 웅장한 규모와 폭넓은 음역을 사용하는 〈아이다〉의 신포니아는 오페라 전곡을 꿰고 있는 애호가에게도 새로운 발견일 것이다. 〈돈 카를로〉의 발레 음악과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레냐노 전투〉, 〈잔 다르크〉 등은 한 편의 교향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resonus

RES10182
고전주의 시대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제임스 에이커스(로맨틱 기타), 게리 브랜치(포르테 피아노)

시대 악기로 재현하는 18세기 말-19세기초 유럽의 정경
새로운 계층의 요구에 발맞춘 음악과 출판의 성행. 18세기 말-19세기 초, '혁명과 낭만'의 도래와 함께 음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때의 정경을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디아벨리 변주곡'으로 잘 알려진 디아벨리의 작품들, 카룰리의 '로시니 테마에 의한 변주곡', 마우로 줄리아니가 '내 마음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파이시엘로의 오페라 《의심스러운 사랑 또는 방앗간의 하녀》 중)를 주제로 작곡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소박하지만 현란한 색채 못지않은 설득력과 생동감을 머금고 있는 연주는 때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RES10187
미국 합창음악 작품집
멕 브레글(메조 소프라노), 프레드릭 테아르도(오르간), 안나 라이너스먼(하프), 마야 군지(퍼커션), 뉴욕 (5번가) 세인트 토마스 남성 & 소년 합창단(합창), 존 스콧(지휘)

미국 합창음악 70년의 결산
2004-2015년, 존 스콧과 함께했던 기간 동안 뉴욕 세인트 토마스 남성 & 소년 합창단은 헨리 퍼셀에서부터 존 루터에 이르는 폭 넓은 작품들에 걸쳐 《그리모폰》 등의 호평에 어울릴 법한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본 음반에서 그들은 '창조주의 영감'을 갈구하는 듯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편'을 시작으로 렌달 톰슨과 코플랜드의 신비로운 색채, 새뮤얼 바버 특유의 관조미, 흑인 영가 'Deep River'에 깃든 역사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 동안 미국 합창음악을 아우르고 있다. 티 없이 맑은 반향에는 온전한 믿음이 생동한다.

RES10195
텔레만: 비올라 다 감바를 위한 12곡의 무반주 환상곡
로버트 스미스(비올라 다 감바)

가감없이 작품을 읊는 손길, 마음을 움직이는 반향
텔레만 서거 450주년을 맞이하는 해, 로버트 스미스는 1735년도 출판 이후 잊혀 졌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텔레만의 '비올라 다 감바를 위한 12곡의 무반주 환상곡'으로 작곡가에 대한 각별한 경의를 표한다. 로버트 스미스는 행간을 읽는 사색적인 연주, 솔직 담백하고 투명한 색채, 섬세한 균형감으로 작품의 전모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마음을 움직이는 그윽한 반향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못지않으며, 경쾌한 매력은 텔레만의 인기작인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환상곡의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 **놓칠 수 없는 음반!**

Rondeau

www.rondeau.de

ROP6142

케루비니: 장송곡 & 하이든의 죽음에 덧붙인 송가 & 레퀴엠

츠지 아키호(소프라노), 마르틴 라트케 & 파울 크뢰거(테너), 드레스덴 성모교회 실내합창단(합창), 알텐부르크-게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마티아스 그뤼네르트(지휘)

죽은 자의 평안을 바라는 극적이면서도 고아한 기도, 오롯함을 부여한 연주

하이든의 사망 오보와 관련된 한바탕 소동과 루이 16세의 처형 24주기 초연. '죽음'을 테마로 작곡된 케루비니의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작곡가 특유의 극적인 색채를 한층 부각시키는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다. 마티아스 그뤼네르트는 '연송(tractus, 連誦)'의 고아함과 '디에스 이레(dies irae, 진노의 날)'의 극적인 대조, '자비로운 예수(Pie Jesu)'의 장대함을 부각시키며 오롯이 죽은 자의 평안만을 바라는 극적이면서도 고아한 기도의 순간을 연출한다. '장송곡'과 '하이든의 죽음에 덧붙인 송가'는 2017년 개정판으로 연주되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68

브람스: 호른과 바이올린 ·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Op.40 외 베토벤, 슈만, 비트만

미샤 그륄(호른), 허승연(피아노), 안드레아스 얀케(바이올린)

알프스 산맥의 청량한 공기 같은 호른 소리

30대의 젊은 거장 리오넬 브랑기에가 이끄는 스위스 취리히 톤 할레 오케스트라에 재직 중인 미샤 그륄의 특징이라면 호른 치고 맑은 소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 음반은 베토벤, 슈만, 비트만, 브람스 레퍼토리를 통하여 그륄이 지향하는 투명한 호른 사운드의 텍스쳐를 느낄 수 있다. 취리히 음악원에 재직 중인 허승연의 피아노도 그륄이 지향하는 음색의 지향점을 함께 향한다. 연주자와 듣는 이의 거리를 통해 호른의 울림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르크 비트만의 독주곡은 현대음악이지만, 그 기법이 독특하여 듣는 이에게 추천하고 싶다. 스피커를 가득 메우고, 알프스 산맥을 맴돈 메아리가 다가오는 듯한 입체적인 연출이 매력적이다. 2005년, 독일에서 설립된 '솔로무지카' 레이블의 균형감 있는 음량 밸런스가 돋보이는 음반이다.

SM258

에르미타쥬의 이탈리아 로코코 음악

라 체트라 콘소트(연주), 클레어 게네바인(플라우토 트라베르소)

에르미타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탈리아 로코코 음악

이탈리아 로코코 음악을 주제로 예카테리나 2세 당시 에르미타쥬 극장의 한 순간을 재현한 음반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발다사레 갈루피, 지오반니 파이젤로는 예카테리나 2세의 초정을 받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안토니오 사키니의 오페라를 테마로 한 토마소 지오르다니의 작품은 갈루피의 작곡 기법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왕의 궁정에서 봉직했던 페르디난드 티츠는 독일 출신 작곡가이지만 수록된 작품은 보케리니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우아한 필치로 당시 한 장면을 재현하는 긴밀하며 유기적인 앙상블이 인상적이다.

SM262

아쿠아(Aqua)

아르타 아르니카네(피아노)

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

물은 자연스럽고 정해진 틀이 없을 만큼 유연하다. 물은 또한 모든 인상을 머금을 만큼 너른 스케일과 다양한 인상을 갖고 있다. 작곡가들은 물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인상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를 음악에 담았다. 피아니스트 아르네 아르카이네는 라벨, 쇼팽, 드뷔시, 리스트, 그리그 등의 작곡가들이 물을 주제로 작곡한 음악들을 한 곳에 모았다. 투명하고 사색적인 터치,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있는 연주는 '물의 명상'이라 할 만 하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인상과 함께 여름을 보내는 휴식의 순간은 평온함을 안겨준다.

SM269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번

마야 베버(첼로), 페르 룬베리(피아노)

내면의 깊은 나에게 내밀히 속삭이는 듯한 따스하고 풍부한 음향

첼리스트 마야 베버는 런던에서 밀레니엄상을 수상했으며, 크레모나와 부벤로이트의 콩쿠르 우승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으로부터 실내악을 배웠으며, 보로딘 사중주단의 첼리스트인 베를린스키로부터 지도를 받는 등 실내악에 큰 관심을 가졌다. 피아니스트 페르 룬베리는 노르웨이 음악원 반주 및 실내악 교수로, 역시 실내악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정상급 실내악 연주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동료로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연주면서도 내밀히 속삭이는 듯한 풍부한 음향이 매력적이다.

SM270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존 케이지: One 8

율리우스 베르거(첼로), 이마누엘 윤 베르거(노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듣는 새로운 방법

이 음반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모음곡 1번' 전주곡이 마르틴 루터의 코랄 '높은 하늘에서 내가 왔도다'의 변주라는 의견이다. 베르거는 1, 3, 5번에 앞서 존 케이지의 〈One 8〉로 만든 신비한 영적 아우라를 배경으로 자신의 아들이 부르는 코랄로 시작하여, 종교적 함의를 일깨운다. 둘째는 '모음곡 6번'을 연주하는 악기가 새로운 악기가 아닌 5현 첼로라는 것으로, 베르거는 바로크 시대에 제작된 롬바우츠의 5현 첼로로 연주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바흐에 대한 새로운 감흥을 선사한다.

SM275

이자이: 여섯 개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등

세르게이 말로프(바이올린)

헌정자와 관련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한 독특한 프로그램

이자이의 '여섯 개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는 당대 최고의 연주 기술을 사용하여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곡은 여섯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작곡되었는데, 세르게이 말로프는 이에 착안하여 1번 시게티는 바흐, 3번 에네스쿠는 에네스쿠의 작품, 4번 크라이슬러는 크라이슬러의 작품 등 각 곡에 앞서 헌정자와 관련된 작품들을 수록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는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며 유연한 프레이징을 구사한다. 또한 극적 표현에 적합한 음색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17
바흐, 포레, 데 파야, 피아솔라, 패르트 등: 첼로와 기타를 위한 음악
로라 멧캘프(첼로), 루퍼트 보이드(기타)

뜻밖에 어울리는 환상의 조합이 들려주는 애틋한 이중주
신혼부부듀오 '보이드가 소녀를 만났다'가 애틋함 가득한 앨범을 내놓았다. 바흐와 포레, 데 파야, 피아솔라, 패르트 등 유명한 작품들의 편곡부터 비교적 익숙지 않은 세나몬, 에드워즈, 냐탈리 등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세 작곡가의 작품들은 첼로와 기타를 위한 오리지널 작품들로서 현대인의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며, 이 두 악기가 매우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놀라움을 준다. 마지막 곡 '인간의 본성'은 마이클 잭슨의 앨범 '스릴러'에 들어있는 곡으로, 포크송 스타일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

DSL.92214 **[3CDs]**
한계를 넘어서(BEYOND)
로스엔젤레스 타악기 사중주단(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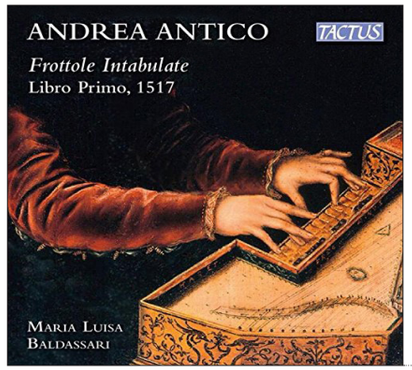
지평선 너머 시간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소리의 흐름
다른 악기보다 인간의 감성과 맞닿아있는 타악기만의 독특한 매력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음색 그리고 심연을 파고드는 파장 때문이 아닐까 싶다. 로스엔젤레스 타악기 사중주단의 신보는 타악기가 갖고 있는 매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3장의 음반에 걸친 타악기의 장대한 서사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듯하다. 풍경을 모티브로 자유롭고 감각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안나 쏘르발드스도티르의 '아우라(Aura)'는 음반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뻗어나가는 소리의 흐름이 압권이다.

[CD/ Blu-ray Audio]

SLE-70010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1~6번)
리차드 내러웨이 (첼로)

1930년산 첼로의 울림, 바로크적 기법의 만남
2015년에 녹음한 이 앨범이 출시되기 전부터 리처드 내러웨이는 '그만의 바흐'와 '자신만의 바흐'를 소유한 젊은 첼리스트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이 첼리스트는 이 음반에서 칼 베커가 제작한 1930년산 첼로를 사용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바흐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상상했던 소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잉과 비브라토, 슬러와 장식음 등은 바로크 스타일의 원칙'을 절충하며 연주한다.
현대 악기의 울림과 바로크적 기법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추를 잡아가는 내러웨이의 감각과 노력이 느껴진다.
해설지에는 연주자가 직접 쓴 해설이 수록, 그중 'My Approach'장은 여타의 첼리스트들과 다른 각도에서 이 곡에 접근하려는 내러웨이만의 바흐론(論)이라 할 수 있겠다.

Tactus www.tactus.it



TC480101
안티코: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집 1권 (1517)
마리아 루이사 발다사리(하프시코드, 오르간, 스피넷, 클라비코드, 클라비침발룸)

로마에서 최초로 출판된 악보집 중 하나를 당대의 악기로 듣는 역사적 재현
안드레아 안티코는 16세기 초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로, 로마에서 첫 악보 출판업자로서 음악 발전에 큰 공헌을 학도 했다.
당시 출판된 악보는 오늘날과 같이 소리 중심으로 기록된 오선보가 아닌, 연주 방법 중심으로 기록된 타블라처로 되어있다. 이 음반은 그가 1517년에 출판한 그의 건반악기를 위한 소품집으로, 발다사리는 이 음반을 위해 스피넷, 클라비코드, 클라비침발룸, 하프시코드, 오르간 등 다섯 가지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악기들은 하프시코드를 제외하고 모두 작곡가가 생존했던 15~16세기에 체르비나티와 콜롬비가 만든 것이다.

TC591304
마리니: 마드리갈과 심포니, Op. 2 (1618)
파비오 미사지아(바이올린), 이 무지칼리 아페티, 로소포르포라, 발터 테스톨린(지휘)

17세기 초 성악의 극적 표현과 기악의 기교를 집대성한 기념비적 작품집
비아지오 마리니는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현악 작품들을 많이 썼다. 하지만 성악 작품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으며, 관악기 작품들도 여럿 남겼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분실되었는데, 다행히도 출판된 소수가 남아있다. '마드리갈과 심포니'는 1618년에 출판된 곡으로, 당시 '심포니'는 오늘날의 교향곡과는 달리, 다양한 편성과 자유로운 형식을 가진 다성부 작품을 의미했다. 이 곡은 성악곡과 기악곡을 번갈아 배치하여 마리니의 뛰어난 극적인 성악적 표현력과 기교적인 기악적 이해력을 고루 보여준다.

[세계 최초 녹음/ DVD 영상포함]

TC621602
판돌피 메알리: 발레 소나타 (1669)
파브리치오 롱고(바이올린), 오페라 크빈타

신비에 싸인 초기 바로크의 거장 판돌피 메알리의 살아남은 대작
지오바니 안토니오 판돌피 메알리는 17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곡가로, 1660년에 인스부르크 소재의 페르디난트 공의 궁정에 고용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일설에는 카스트라토 가수를 살해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도주하여 그 곳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출판된 극소수의 작품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이 음반에 수록된 '발레 소나타'는 1669년 로마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작품은 발레를 위한 음악으로서 리듬이 명료하며, 타악기를 자주 사용하여 민속무곡과 같은 활력이 넘치는 대작이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ATA CLASSICS

TOCC0017

라이하: 여섯 개의 푸가, 피아노 연습곡

헨리크 뢰벤마르크(피아노)

고전음악의 거장이 들려주는 완벽한 푸가와 광활한 변주곡의 세계

체코 출신의 작곡가 안토닌(앙투안) 라이하는 오늘날 목관 연주자들에게 주로 기억되는 이름이다. 그는 독일과 빈에서 활동하면서 하이든, 베토벤과 가까이 지냈던 고전주의 음악가이며, 38세에 파리로 이주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리스트, 베를리오즈, 프랑크 등을 가르치며 프랑스 낭만주의의 싹을 길렀다. 이 음반은 그가 독일 전통에 기반한 음악양식에 통달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여섯 개의 푸가〉는 바흐를 연상케하는 완벽한 푸가를 들려주며, 〈피아노 연습곡〉은 무려 57개의 변주곡을 제시한다.

TOCC0336

셔먼: 피아노 사중주 1 & 2번, 두 대의 바이올린, 무반주 바이올린 세레나데

리리스 사중주단, 마틴 비버(바이올린), 미하일 코르제프(피아노)

교향곡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가진 다채로운 극적 이미지들의 향연

제라드 셔먼은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1981까지 영국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로리 마젤, 에도 데 바르트 등으로부터 위촉을 받았으며, 피츠버그 심포니, BBC 필하모닉, 바르셀로나 심포니 등이 그의 작품들을 초연했다. 이 음반은 두 개의 피아노 사중주곡과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 〈세레나데〉, 그리고 최근작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수록했다. 그의 작품은 버르토크와 쇼스타코비치, 브리튼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채로운 극적 이미지들이 교향곡에 버금가는 에너지로 펼쳐진다.

TOCC0343

조엘 엥겔: 실내악곡과 유대 민요들

레이첼 캘러웨이(메조-소프라노), 피츠버그 유대 음악제 음악가들

'유대 음악의 아버지'가 들려주는 유대 선율의 아름다움

러시아의 유대인 작곡가 조엘 엥겔(1868-1927)은 '유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는 '슈테틀'이라는 동유럽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민요들을 채보했으며, 이렇게 정리한 히브리 민요와 이디시 민요 선율을 소재로 국민주의의 기조에서 진지한 작품들을 썼다. 그래서 그의 선율은 유대적이기는 하지만 구성과 화음이 고전적인 세련미를 갖추고 있으며, 대중적인 요소도 감지된다. 피츠버그 유대 음악제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으며, 어머니의 음성과 같은 캘러웨이의 노래는 성악적 품격과 민요적 표현을 절묘하게 배합했다.

TOCC0430

호페키르크: 아이오나 섬의 추억, 피아노 모음곡, 두 개의 소리그림 등

게리 슈타이거발트(피아노)

특유의 발랄함이 돋보이는 스코틀랜드의 음악적 풍경들

헨렌 호페키르크(1856-1945)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으며, 1987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스턴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로망스〉, 〈세레나데〉 등 초기 작품들에서는 브람스의 영향이 보이며, 〈다섯 개의 스코틀랜드 민요〉, 〈두 개의 소리그림〉 등 후기의 작품에는 드뷔시의 인상주의에 다가선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각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와 서부 섬지역의 민요와 만나 그만의 독특한 음악이 만들어졌다. 슈타이거발트는 우아한 터치와 명료한 터치를 조화시켜 세련된 화음과 민요적인 특징을 고루 들려준다.

TOCC0408

아놀드 로스너: 실내악 작품집

커티스 매컴비(바이올린), 맥신 노이만(첼로), 데이비드 리치몬드(바순), 마가렛 캠프마이어 & 카슨 쿠맨(피아노)

조성으로부터의 자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이 담긴 작품

미국의 작곡가 아놀드 로스너의 작품은 바로크 이전의 폴리포니, 20세기 음악의 자유로운 조성에 19세기 낭만주의 색채를 입힌 독특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음반에는 '조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추구해왔던 그의 여정을 보여주는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순 소나타 1번'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작곡가의 모습이 담긴 '첼로소나타 1번', '유행하는 춤곡(Danses à la mode)'이 수록되었다. 생전에 작곡가와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었던 연주자들만큼 작곡가의 스타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연주도 없을 듯싶다.

TOCC0410

에밀 타바코프: 교향곡 2집

알렉산더 젬초프(비올라), 불가리아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에밀 타바코프(지휘)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한 순간 폭발하는 에너지의 강렬한 반향

불가리아 출신의 지휘자 에밀 타바코프는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지휘자와 작곡가를 겸했던 음악가들의 자취를 따르고 있다. 현재 9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다수의 협주곡들을 작곡하는 등 타바코프는 작곡가로서도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데, 본 음반에는 그의 '교향곡 1번'과 '비올라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말러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파국의 이미지를 쇼스타코비치의 작법으로 표현한 인상을 준다. 작은 모티브들의 조합이 이루어내는 응축된 힘, 황량한 가운데 한 순간 폭발하는 에너지의 반향은 강렬하다.

TOCC0412

나이젤 클락: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하르멘 반후네(코넷), H. 스티븐 스미스(낭독), 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 윈드 앙상블(연주), 리드 토마스(지휘)

파격적이지만 어색하지 않은 반향

영국의 작곡가 나이젤 클락은 르네 마그리트의 상징(중절모, 중절모를 쓴 신사, 우산, 비둘기, 파이프 담배)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회고한다. '지평선의 신비'는 작품의 제목뿐만 아니라 각 악장 모두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위협적인 암살자', '빛의 지배', '눈물의 맛', '불의 발견')을 주제로 작곡가의 인상을 표현했다. 루퍼트 브룩의 시 한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말레네 셰퍼드 스켈브드의 '더 비옥한 티끌'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파격적이지만 어색하지 않은 반향은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TOCC0290

파울 유온: 피아노 작품 1집

로돌프 리테(피아노)

말없이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순수한 서정

파울 유온의 피아노 작품을 조명하는 시리즈 첫 번째 음반이다. 음반에는 '4개의 소곡', '12개의 즉흥곡', '순간의 서정'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라흐마니노프가 '러시아의 브람스'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듯 러시아와 독일에 기반을 두고 프랑스 인상주의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의 민속 음악 요소를 더해 자신 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었던 파울 유온 작품 세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메트너와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작품을 뭉뚱그려놓은 듯한 색채, 말없이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순수한 서정은 각별하게 다가온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de

TONKÜNSTLER
ORCHESTER

TON100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돈 후안' & '서민귀족 모음곡' & '죽음과 변용'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연주), 윤 메르클(지휘)

쪽빛으로 물들어가는 변용의 인상

사도 유타카와 녹음한 '《영웅의 생애》와 《장미의 기사 모음곡》'(Ton1001)에 이어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레이블의 두 번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녹음이다. 윤 메르클은 《돈 후안》에서는 윤기 흐르는 박력과 날렵한 제스처를, 《서민귀족 모음곡》에서는 '클레옹트의 입장'(8번 트랙)에서 드러나듯 고전과 작곡가의 색채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죽음과 변용》. 치열하기 보다는 서서히 떠오르며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변용의 가뿐한 인상은 카랑카랑한 반향 속에서 쪽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간다.

TON2004

브루크너: 교향곡 9번 & 타케미츠 토루: '(생황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의식, 가을의 송가'

미야타 마유미(생황),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연주), 사도 유타카(지휘)

저무는 모든 것들을 위한 송가

브루크너의 마지막 목소리에 실은 늦가을의 인상. 사도 유타카가 이끄는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는 죽음 또는 쇠락에 관한 단상을 음반에 담았다. 해가 뜨고 지듯 모든 사람 또는 사물이 한 번은 거쳐야 할 세상의 이치.
그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도 유타카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소회가 담긴 메시지는 오케스트라 특유의 카랑카랑한 색채 속에서 한층 직설적으로 다가온다. 햇볕을 머금은 단풍의 인상, 토루 타케미츠의 '가을의 송가'는 조락(凋落)의 잔향을 연상시키며 브루크너의 여운을 훌륭하게 뒷받침 한다.
가을바람을 닮은 명쾌한 선율과 청아한 반향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음반이다.

온다 리쿠의 장편소설 "꿀벌과 천둥" 수록곡 선집 [2CDs]

세계 최고 권위의 S 콩쿠르 우승자를 비롯,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해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요시가에 국제 피아노 콩쿠르.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이 콩쿠르가 지금 시작된다.
한때 천재 소녀로 불렸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대를 떠났던 에이덴 아야.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줄리아드 음악원 출신의 엘리트 마사루 카를로스 데비 아나톨. 음악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악기점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28세 가장 다카시마 아카시. 그리고 양봉가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며 홀로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해온 16세 소년 가자마 진.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들 네 사람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자신과의 싸움. 3차에 걸친 예선을 뚫고 본선에서 우승을 거머쥘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음악의 신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첫 구상으로부터 12년, 취재 기간 11년, 집필 기간 7년! 작가에게 사상 첫 '서점대상 2회 수상'의 영예를 안긴, 걸작 중의 걸작.

AMC2-166 [2CDs]

[수록곡]

CD_1 "1차 ~ 3차 예선 연주곡 셀렉션"

1. 바흐: 평균율 1권 1번 전주곡과 푸가 **(가자마 진: 1차 예선)**
2. 발라키레프: 이슬라메이 **(가자마 진: 1차 예선)**
3.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No.1 **(마사루 카를로스 레비 아나톨레: 1차 예선)**
4. 쇼팽: 연습곡 Op.10 No.5 '흑건' **(다카시마 아카시: 2차 예선)**
5.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2 1st **(가자마 진: 1차 예선)**
6. 사티: 난 그대를 원해요 **(가자마 진: 3차 예선)**
7.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6번 Op.81a "고별" 1st **(에이덴 아야: 1차 예선)**
8. 멘델스존: 무언가 중에서 "봄노래" **(가자마 진: 3차 예선)**
9. 쇼팽: 발라드 1번 G단조 Op.23 **(에이덴 아야: 1차 예선)**
10. 라벨: 소나티네 **(에이덴 아야: 2차 예선)**
11.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소리그림 **(마사루 카를로스 레비 아나톨: 2차 예선)**
12. 쇼팽: 왈츠 No.14 e단조 **(마사루 카를로스 레비 아나톨: 3차 예선)**

CD_2 "본선 연주곡"

1.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2.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
3.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3악장
4.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
5.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3번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08 [DVD]

accentus music

바흐 '마태수난곡'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지휘 · 예술감독), 게힝어 칸토라이베네딕트 크리슈탄슨(복음사가), 크리쉬미르 슈트라젱크(예수), 게를링드 쇠만 · 이자벨 얀츠체크(소프라노), 슈투트가르트의 학생들(무용)

과거와 현재. 바흐의 유산을 다리 삼아 만나다

2017년 3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루트비히스부르크의 슐로스파크의 바흐 '마태수난곡' 실황물이다. 1954년, 헬무트 릴링에 의해 창설된 게힝어 칸토라이와 릴링의 후임으로 이 단체를 이끌게 된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영상물. 특히 라데만이 새롭게 조직하여 이끌고 있는 게힝거 칸토라이 소속 시대악기 오케스트라가 일구는 수준 높은 완성도가 큰 몫을 한다. 라데만은 성악과 기악 앙상블의 구조를 풍부히 가져가며, 베네딕트 크리슈탄슨(복음사가), 크리쉬미르 슈트라젱크(예수) 등의 독창자들도 외적인 효과와 내면적임 감정 표현 사이에서 멋진 균형 감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무대에는 '감동의 바흐!'라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슈투트가르트 1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용수로 참가하고 있다. 독일의 풍부한 합창 유산을 토대로 전문 음악가와 젊은 학생 · 아마추어가 함께 한 이 공연은 음악유산과 창조성이 곧 통한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보조자료]

– 이 영상물은 2017년 3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루트비히스부르크의 슐로스파크의 바흐 '마태수난곡' 실황물이다.

– 마태수난곡은 바흐의 라이프치히 시대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며, 1729년에 초연되었다. 성경의 마태복음 26 · 27장, 그리고 시인 피칸더의 종교시와 성가에 의거하고 있다.

– 바흐의 대부분의 곡이 그러하듯, '마태수난곡'도 잊혀졌으나, 1829년 멘델스존에 의해 발굴되고 초연되었고 그 해에 베를린에서 멘델스존이 이 곡을 초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바흐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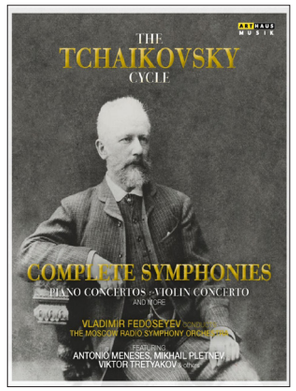
– 1954년 지휘자 헬무트 릴링에 의해 창설된 게힝어 칸토라이는 16세기부터 20세기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릴링의 후임으로 게힝어 칸토라이를 이끌게 된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은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바흐의 칸타타 녹음을 시작한 지휘자다. 이번 영상에는 라데만이 새롭게 조직하여 이끌고 있는 게힝거 칸토라이 소속 시대악기 오케스트라가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의 지휘는 차분하면서도 성악과 기악 앙상블의 구조를 풍부히 가져간다. 게를링드 쇠만 · 이자벨 얀츠체크(소프라노), 베네딕트 크리슈탄슨(복음사가), 크리쉬미르 슈트라젱크(예수) 등의 독창자들도 외적인 효과와 내면적임 감정 표현 사이에서 멋진 균형 감각을 이루고 있다.

– 특히 이 무대에는 '감동의 바흐!'라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슈투트가르트 1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용수로 참가하고 있다. 바흐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몸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100명의 학생에게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풍부한 합창 유산을 토대로 전문 음악가와 젊은 학생 · 아마추어가 함께 한 무대는 위대한 음악유산과 창조성이 곧 통한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 영상에 흐르는 바흐는 부드럽다. 바로크음악의 정서론적 성격에 입각한 라데만의 지휘는 후기 바로크 시대부터 합리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종교적 경건주의가 혼합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자막은 한국어 ·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18 [6DVDs]

ARTHAUS MUSIK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전집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결정판
– 낱장으로 출시되었던 DVD를 박스로 재구성

"예리하고 직관적인 해석" – 해외언론 극찬: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결정판'

19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Alte Oper)에서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이 펼쳤던 차이코프스키 콘서트 실황이다. 6장의 DVD에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교향곡 전 6곡, 로코코 변주곡, 환상협주곡, 1812년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번&2번, 현을 위한 세레나데, 그리고 예브게니 오네긴, 백조의 호수의 명곡들이 실렸다. 보자르 트리오의 멤버인 메네세스가 로코코 변주곡의 첼로 독주를 맞았고,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는 본 고장 일급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다. '폴란드'란 별명이 붙은 교향곡 3번에서 페도세에프는 작품에 스민 러시아의 향토색을 진하게 표출한다. 교향곡 4번에서는 호방한 해석과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금관의 활약이 인상적이다. 금관은 참으로 우렁찬 포효다. 열정적인 연주를 펼치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독주자 빅토르 트레차코프는 196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이다. 1812년 서곡은 대포를 쓰지 않았고 거대한 종, 각종 타악기들의 요란한 울림을 담았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의 독주자는 플레트네프. 별스런 과정 없이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는 연주다. 교향곡 6번 '비창'에서는 호쾌한 금관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선 굵은 연주를 보여주며,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대편성의 현악 앙상블을 쓴 복고풍의 해석을 들려준다. 해외언론으로부터 '결정판'이란 찬사를 받은, 고품격 연주다.

[각 사이클별 리뷰] – 낱장으로 출시되었던 DVD을 박스로 재구성

[DVD 1]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1 교향곡 1번 '겨울날의 백일몽',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로코코 변주곡

안토니오 메네세스(vc)/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1982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안토니오 메네세스가 연주한 로코코 변주곡

차이코프스키는 26세 되던 해인 1866년 자신의 첫 교향곡을 완성하였다. '겨울날의 백일몽'이라는 시적인 부제가 붙어있는 이 교향곡은 전통적인 4악장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와 유사한 교향시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 작곡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차이코프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모국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해 내었다. 단테의 신곡에서 소재를 취한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는 작곡가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달콤한 선율과 폭풍과도 같은 격정이 어우러진 드라마틱한 걸작 관현악이며,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로코코 풍 주제의 변주곡은 여러 첼리스트들의 단골 레퍼토리로 사랑받는 섬세하고도 화려한 작품이다. 1991년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에서 있었던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공연실황으로, 뮌헨 ARD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연이어 석권한 이후 보자르 트리오의 멤버로 활동 중인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안토니오 메네세스가 로코코 변주곡의 독주를 맡았다.

[DVD 2]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2 교향곡 2번'소러시아', 에프게니 오네긴 발췌

리디아 셰르니흐(sop), 알렉산더 네나도프스키(bar)/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교향곡 2번과 본고장 일급 가수들이 노래한 에브게니 오네긴 하이라이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2번은 1872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니콜라이 루빈시타인의 지휘로 모스크바에서 초연되었다. '소러시아'는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1악장과 4악장에 우크라이나 민요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행진곡 풍의 2악장은 자신의 오페라 '운디나'에 사용한 선율을 재활용하였다. 교향곡 4번을 작곡한 이후인 1879년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지금 연주되는 개정판은 제법 세련된 구성과 오케스트레이션을 갖추게 되었다.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과 오페라 양 분야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작곡가이다. 그가

작곡한 10여 편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작품이 바로 1879년에 초연된 '에브게니 오네긴'이다.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을 갖춘 아리아들과 발레 음악을 통해 맹위를 떨쳤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빛나는 기악반주가 돋보이는 걸작으로, 타티아나의 편지장면과 왈츠, 그리고 폴로네이즈 등의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들을 콘서트 형식으로 연주하였다.

[DVD 3]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3 교향곡 3번'폴란드', 백조의 호수 발췌, 콘체르토 판타지아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에프의 향토색 짙은 연주와 플레트네프의 화려한 개인기

1991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가 펼쳤던 일련의 차이코프스키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등장하였다. 본 DVD에는 교향곡 3번 '폴란드'와 작곡가를 대표하는 걸작발레 '백조의 호수'의 관현악 하이라이트, 그리고 한동안 세인들의 기억속에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협주곡 풍의 작품인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판타지아 Op.56이 수록되었다. 교향곡 3번 '폴란드'는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에서 연주빈도가 낮은 작품이지만, 마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처럼 독립적인 성격의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양식의 교향시에 보다 가까운 독특한 성격의 교향곡이다. 폴로네이즈 리듬을 타고 펼쳐지는 마지막 악장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폴란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페도세에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은 이 작품에 스며있는 러시아의 향토색을 훌륭히 펼쳐 보이며, 자유로운 형식 속에 화려한 기교를 담아낸 콘체르토 판타지아에서는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열정적인 명인기가 눈부시게 작열한다.

[DVD 4]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4 교향곡 4번, 1812년 서곡, 바이올린협주곡

빅토르 트레차코프(vn)/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호쾌한 교향곡 4번과 1812년 서곡, 트레차코프의 열정적인 바이올린협주곡

1991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가 펼쳤던 일련의 차이코프스키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등장하였다. 본 DVD에는 작곡가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인 교향곡 4번, 작곡가를 대표하는 인기 관현악레퍼토리인 1812년 서곡, 그리고 로맨틱 협주곡의 대표걸작인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가 수록되었다. 운명과의 격렬한 투쟁을 선 굵은 음악으로 그려낸 교향곡 4번에서는 페도세에프의 호방한 해석과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금관섹션의 우렁찬 포효가 위력을 드러낸다. 바이올린협주곡에서는 196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구소련이 자랑하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의 한 사람인 빅토르 트레차코프가 독주자로 나서서 정열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모스크바를 침공한 나폴레옹의 패퇴과정을 박력 넘치는 음악으로 표현한 1812년 서곡은 본 영상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다. 대포가 등장하지 않는 아쉬움은 있지만, 거대한 종을 비롯한 각종 타악기들의 요란스런 울림을 담아 연출한 피날레의 위용은 손색이 없다.

[DVD 5]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5 교향곡 5번, 서곡 F장조, 피아노 협주곡 2번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에프와 플레트네프의 강렬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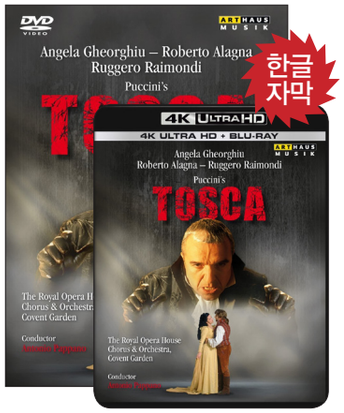
1991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가 펼쳤던 일련의 차이코프스키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등장하였다. 본 5집에는 교향곡 5번, 플레트네프가 독주자로 나선 피아노협주곡 2번, 그리고 쉽게 접하긴 힘든 작곡가의 청년기 희귀 레퍼토리인 서곡 F장조가 함께 수록되었다. 느긋한 템포로 진행되는 교향곡 5번에서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은 우수한 합주력과 본토 악단다운 묵직한 중량감을 맘껏 자랑한다. 호방한 스케일감이 두드러지는 연주며, 뛰어난 호른 솔로에 뒤이어 전개되는 2악장의 서정 또한 감미롭다. 플레트네프는 피아노협주곡 2번에서 건반 위의 비르투오조로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힘이 실린 터치와 막힘없는 기교는 이 작품에 대한 연주자의 강한 자신감을 대변하다. 비록 너무나도 유명한 1번의 위용에 가려져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비운의 작품이지만, 훌륭한 연주자의 손끝을 통해서는 충분히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이 연주가 증명해준다.

[DVD 6]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6 교향곡 6번'비창', 현을 위한 세레나데, 피아노 협주곡1번

미카엘 플레트네프(pf)/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페도세에프의 비창 교향곡, 플레트네프의 피아노협주곡 1번

1991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블라디미르 페도세에프와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가 펼쳤던 일련의 차이코프스키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등장하였다. 본 6집은 수록곡 조합의 지명도에서 단연 돋보인다. 교향곡 6번 '비창'과 피아노협주곡 1번, 그리고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함께 수록되었다. 단 하나의 영상물로 작곡가를 대표하는 세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함께 각각의 연주도 나무랄 곳 없다. 페도세에프는 교향곡 6번에서 호쾌한 금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 굵은 연주를 만들어낸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실내악적인 정치함을 강조하는 최근 연주경향과 달리 대편성의 현악앙상블을 동원한 복고풍 연주다. 무대 전면을 가득 메운 현악주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하다. 피아노협주곡 1번에서 플레트네프는 별다른 과장된 연출 없이도 전곡을 통해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독주자의 냉철한 연주스타일에 넉넉한 살집을 불어넣어준 페도세에프의 서포트도 훌륭하다.



Arthaus 109292 [DVD]
Arthaus 109293 [4K Ultra HD + Blu-ray]

로열 오페라하우스 푸치니 '토스카'

안젤라 게오르규(토스카), 로베르토 알라냐(카라바도시), 스카르피아(루게로 라이몬디), 브느와 자코(연출 · 촬영), 그리스티앙 가스크(세트 디자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다시 만나는 '영화배우' 게오르규와 알라냐
4K ULTRA HD로 만나다

2001년에 발표한 '토스카' 영화로 아트하우스 레이블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바스티유 오페라 등에서 연출하며 오페라 연출계에 자리 잡은 브느와 자코(1947~) 감독의 전력(前歷)을 맛볼 수 있다. OST의 명성과 인기가 이미 보증수표를 했던 이 영상물은 공연을 토대로 한 실황물과 전혀 다른 맛을 선사한다. 대담한 아이디어와 클로즈업을 과감히 사용했으며, 정면 숏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성악가의 클로즈업된 얼굴, 성악가의 주위를 360도 회전하며 잡아내는 미장센 등이 인상적이다. 하나의 화면에 2~3명의 성악가만 출연하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흑백 화면에 담겼고 세트 속의 성악가들을 담은 컬러 화면이 교차편집 되는 재미도 준다.

[보조자료]

–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그리고 안젤라 게오르규와 로베르토 알라냐가 함께 했던 '토스카'는 독특하게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라는 형식으로 발매(EMI)된 바 있다. 프랑스의 영화감독 브느와 자코(1947~)가 2001년에 영화오페라로 제작한 '토스카'의 OST로써, 당시 오페라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음반이다.

– 이 영상물은 그 OST의 전거가 되는 영화로, 2001년에 발표한 '토스카' 영화다. 2010년 바스티유 오페라에서 카우프만 주연의 '베르테르' 등을 연출하며 오늘날 유럽 오페라 연출계에 자리 잡은 브느와 자코 감독의 전력(前歷)을 맛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을 구하려는 토스카는 자신의 몸을 요구하는 경찰청장 스카르피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극한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속에서 터져나오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성당에 기도하러 온 후작 부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마리아를 그리던 카바라도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토스카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부르는 '오묘한 조화', 총살형을 앞두고 토스카와의 즐거웠던 날들을 가슴 저리게 회상하며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등의 명아리아를 최고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즐거움은 여전하다.

– 이 영상물은 무대 공연을 토대로 한 공연 실황과는 180도 다른 맛을 선사한다. 대담한 아이디어와 클로즈업을 과감히 사용했으며, 그 어떤 디테일도 잡아내기 때문에 성악가들도 영화배우 못지않게 영화적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특히 정면 숏을 통하여 만나는 성악가의 클로즈업된 화면, 노래하는 성악가의 주위를 360도 회전하며 잡아내는 미장센 등이 인상적.

– 오페라 공연과 다른 점 중 하나는 화면에 2~3명의 성악가만 출연한다는 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담긴 흑백 화면과 세트 속 성악가들을 담은 컬러 화면이 교차편집되는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오페라를 감상하는 재미와 영화를 보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상물이다.

Arthaus 109338 [2DVDs]
Arthaus 109339 [Blu-ray]

2017 가르니에 극장 실황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필리프 조르당(지휘), 파리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아네 테레사 데 케이르스마커르(안무), 로사스 무용단, 피오르딜리지(자클린 바그너), 도라벨라(미셸 로지에), 페란도(프레데리크 안텅), 굴리에모(필리프 슬리), 데스피나(징거 코스타-잭슨)

미니멀 무용의 여사제와 진취적인 지휘자의 콜라보레이션!

2017년, 필리프 조르당이 지휘하고, 벨기에 안무가 아네 테레사 더 케이르스마커르가 함께 했던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공연 실황이다. 가르니에 극장 내부의 찬란한 조각을 모두 감추어버린 듯한 추상적인 무대는 기존 오페라의 미니멀하고 모던한 무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극-추상의 무대를 보여준다. 바닥에 그려넣은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주를 이루는 케이르스마커르가 즐겨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 그녀의 안무는 무대 위 성악가들의 음악과 어우러게 하기보다는 춤과 음악의 이질감과 생소함이 이 작품을 보는 재미를 제공한다. 조르당의 지휘는 간결하고 속도감있다. 무용수들의 민첩하고 쾌활한 무용이 조르당의 연출하는 속도감을 더욱더 와 닿게 한다. 낯선 남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두 자매의 하녀로 등장하는 데스피나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징거 코스타-잭슨은 조연급 캐릭터를 주연급으로 끌어올릴 만큼 존재감을 발취한다. 자막은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구성.

[보조자료]

– 모차르트의 후기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열렬히 사랑해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녀들의 변심을 다룬 대표적 희극이다. 필리프 조르당이 지휘하고, 벨기에의 안무가 아네 테레사 더 케이르스마커르가 함께 했던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가 올랐던 파리의 저녁. 가르니에 극장에 모인 관객들로 하여금 의견을 치열하게 나누었고, 논쟁의 여지도 많았다고 한다. 이 영상은 그 논란을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공연 실황 영상이며, 인터넷에는 호불호의 기사들이 여전히 떠다닌다.

– 케이르스마커르는 2015년 그녀가 이끄는 로사스 무용단과 함께 내한하여 스티븐 라이히 음악과 동명작인 '드러밍'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음악을 잘 분석하여 몸으로 표현한 결과, 추상적인 현대무용 관람의 재미를 더했던 작품이었는데, '코지 판 투테'는 고전음악과 현대무용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다. 가르니에 극장 내부의 찬란한 조각을 모두 감추어버린 듯한 추상적인 무대는 기존 오페라의 미니멀하고 모던한 무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극-추상을 추구한다. 여기를 채우는 밝은 조명 역시 공간을 창백하게 만들 정도. 바닥에 그려놓은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주를 이루는 케이르스마커르가 즐겨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 그녀의 안무는 무대 위 성악가들의 음악과 어우러지기보다는 춤과 음악의 이질감이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 조르당의 지휘는 간결하고 속도감이 있다. 무대를 누비는 무용수들의 민첩하고 쾌활한 무용이 조르당의 속도감을 더욱더 와 닿게 한다. 지휘자와 안무가의 명성이 성악진보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성악가들이 꾸미는 명연의 현장을 놓칠 수는 없는 법. 낯선 남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두 자매의 하녀로 나오는 데스피나. 그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징거 코스타-잭슨은 열연을 통해 작품 속 조연을 주연급의 존재감으로 끌어올린다. 그녀가 부르는 '여자 나이 열다섯 살이면(Una donna a quindici anni)'과 '남자들과 군인들 안에서(in uomini, in soldati)'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목소리는 이 공연의 백미. 그녀는 '카르멘'의 타이틀 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화려하기보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채도의 무대에서 공존하는 음악과 무용의 만남이 파리는 역시 새로운 유행을 낳고 선도하는 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자막은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구성.

[함께 하면 좋은 영상물]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의 글루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Bel Air BAC044)

피나 바우쉬(안무 · 댄스오페라), 토마스 헹엘브로크(지휘),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 · 합창단, 얀 브리다드(제1무용수 · 오르페우스), 마리아 리카르다 비젤링(메조소프라노 · 오르페우스), 마리안느 쥘로(수석무용수 · 에우리디케), 율리아 클레이터(소프라노 · 에우리디케), 미테키 쿠도 · 임선혜(소프라노 · 아모르)

Arthaus 109336 [1DVD + 2CDs]

20세기 독일이 낳은 위대한 피아니스트

엘리 나이(ELLY NEY 1882–1968) 다큐멘터리 및 베토벤 · 모차르트 연주

악셀 푸어만(영상 · 기록), 엘리 나이(피아노)

음반: 모차르트 4중주와 3중주에는 엘리 나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첼리스트, 루드비히 휠셔가 함께하고 있다

'나치의 성녀'였던 엘리 나이. 그녀의 삶과 연주를 다시 만나다

엘리 나이(1882~1968)는 독일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베토벤 소나타에 있어서는 여사제와도 같았다. 리스트의 제자 에일 폰 자우어 등으로부터 전수받은 19세기 낭만주의 전통은 그녀의 음악적 족보였다. 하지만 '나치의 성녀'라고 불릴 정도로 공공연한 나치 지지자이기도 했다. 전후에 세계 각국의 연주무대와 메이저 음반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영상물은 그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총집합체와 같은 다큐멘터리이다. DVD에는 증언자료 · 영상 · 기록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51분 분량, 자막 영어 · 프랑스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2번 Op.26 연주 영상(1965년)이 수록. CD에는 1961년 독일 투트칭 음악 축제의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1번 K478 · 2번 K493 · 피아노 3중주 K564 실황음원 수록. 171쪽 분량의 부크릿(영 · 프 · 독)에는 본 영상과 실황음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기록과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엘리 나이는 독일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었다. 1882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 베토벤의 도시 본에서 성장한 그녀는 19세기 낭만주의 전통을 전수 받은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을 사사했는데, 그중 에일 폰 자우어는 리스트의 제자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이러한 영향 탓에 리스트로부터 이어지는 독일 후기 낭만파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피아니스트로 평가 받았다. 1904년, 그녀는 유럽을 순회하며 성공적인 연주회를 시작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 엘리 나이는 '나치의 성녀'라고 불릴 정도로 공공연한 나치 지지자였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그 대가를 치루게 되는데, 전후에 세계 각국의 연주무대와 메이저 음반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이후 엘리 나이의 음반은 무명의 마이너 레이블을 통해서나 간간히 발표될 뿐이었다. 엘리 나이는 생전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이름을 통해 히틀러와 함께 베토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1968년 3월,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가졌던 리사이틀에서 고령의 엘리 나이는 주치의로부터 리사이틀을 취소하라는 강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월광'과 함께 했다. 그리고 그 같은 달 31일, 향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트하우스에서 발매한 이 영상물은 크게 다큐멘터리, 연주영상, 음반, 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1) DVD 엘리 나이의 삶과 나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51분 분량)다. 나레이션은 독일어, 자막은 영어와 프랑스어 구성. 보너스 트랙에 수록된 영상(22분 분량)은 1965년 필름으로 엘리 나이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2번 Op.26이다. 베토벤의 동상 옆에서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감상에는 문제가 없다.

(2) CD

[CD 1] 처음 공개되는 음원들 Mozart: Piano Quartet 1, 2/ Piano Trio K.564
Elly Ney(piano), Wilhelm Stross(violin–piano quartets), Heinz Endres(violin–piano trio), Ingo Sinnhoffer(viola), Ludwig Hoelscher (cello)
1961년 독일 남부의 소도시 투트칭 음악 축제에서 연주했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1번 K478, 2번 K493.(1961년 8월 24일 녹음), 피아노 3중주 K564(1961년 8월 27일녹음) 실황음원이 수록되어 있다.

[CD 2] 엘리 나이가 애용하던 벤츠 안에서의 인터뷰, 기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만든 육성 다큐멘터리가 수록되어 있다.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첨부된 부클릿(31–56쪽)에 그 내용이 영문으로 풀어져 있다.

(3) 부클릿 아트하우스에서 발매하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에는 늘 두터운 분량의 부클릿이 함께 한다. 171쪽 분량으로 영문(13~62쪽), 불문(63~112쪽), 독문(113~159쪽)으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①베토벤 소나타 ②다큐멘터리 감독 악셀 푸어만의 기록 ③2018년, 엘리 나이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며 ④말년의 에피소드 ⑤엘리 나이의 구술 ⑥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2번 영상 해설 ⑦투트칭 음악 축제 ⑧엘리 나이의 기사들 ⑨악셀 푸어만의 발굴 자료들 ⑩엘리 나이의 라디오 기사 ⑪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29 [2DVDs]
BelAir BAC429 [Blu–ray]

BelAir classiques

바이에른 오페라극장 2015년 실황
베르크 '룰루'

마를리스 페테르센(룰루), 보 스코푸스(쇤 박사), 마티아스 클링크(알바), 다니엘라 쉬드람(게슈비츠 백작 부인), 마르틴 □클러(곡마사), 키릴 페트렌코(지휘), 바이에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연출)

고전으로 안착한 '룰루'에, 또 하나의 파격을 입히다
1937년, 미완성 상태에서 2막으로 초연된 베르크의 '룰루'는 1979년에 피에르 불레즈에 의한 전막(3막) 초연 이후에도 온전한 공연으로 접하기는 어려운 게 현주소다. 그래서 2015년 바이에른 오페라극장에 오른 3막의 '룰루'는 단연 화제가 되었다. 연출의 '앙팡 테리블'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 2013년부터 바이에른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키릴 페트렌코, 그리고 세기 최고의 룰루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의 합류한 이 무대는 20세기 음악을 전복시켰던 베르크의 우주와 그 전위성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세기가 낳은 최고의 룰루 마를리스 페테르센의 열연과 현대사회의 병폐를 시크하게 그린 체르니아코프의 단색조의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불레즈에 이어 이 작품은 이들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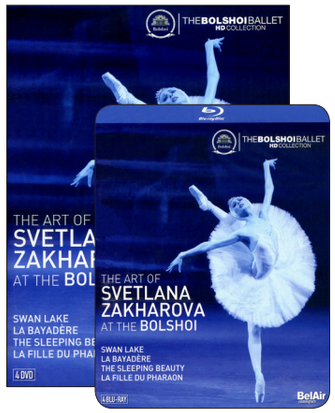
– 오페라 '룰루'는 베르크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이었다. 1937년 미완성인 상태에서 초연되었으나 미망인이던 엘레네 베르크는 쇤베르크에게 관현악 부분을 완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처음에 그는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베르크의 초안을 받은 후 그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헬레네는 그 오페라를 완성시킬 사람을 찾았고, 40년이 넘도록 2막까지만 상영되었다. 그러던 중 1976년에 헬레네가 사망하고 나서 완전판이 만들어졌다. 초연은 1979년,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봉을 잡았다. 현재도 이 작품은 2막까지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3막을 추가한다.

– 사정이 이러하니 3막까지 완성태를 갖춘 '룰루' 공연은 2015년 뮌헨에 위치한 바이에른 오페라극장의 시즌 화제작이었다. 오페라 연출의 '앙팡 테리블'로 각광받는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 2013년부터 바이에른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 그리고 세기 낳은 최고의 룰루인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이 함께 한 프로덕션이었다.

– 타이틀 롤의 마를리스 페테르센만큼 룰루 역에서 그녀를 능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독일 출신의 그녀는 모차르트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물론 현대 오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룰루'와 2010년 빈 오페라극장의 '메데아'를 통해 저명 오페라 전문지 '오펀벨트(Opernwelt)'로부터 '올해의 가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헨델 · 바흐 · 하이든 등의 종교음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리트 가수로도 명성이 높다. 전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상대방을 관능으로 파멸시키고, 제 스스로 파멸하는 여인상을 잘 그려낸다.

– 그녀의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이는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 2010년, 바이에른 오페라극장의 풀랑크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DVD BAC061/BD BAC461) 연출에서 해석을 과도한 범위까지 적용하여 결국 유족들이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 과격함은 베르크가 '룰루'에 녹여넣고자 한 과격함과 전위적 시도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의 무대는 베르크의 그로테스크한 음향과 룰루의 광기를 차가운 색조, 거울과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상징화했다.

– 작은 체구의 키릴 페트렌코가 이끄는 음악은 정교하다. '룰루'를 비롯하여 베르크의 여러 작품을 꿰고 있는 피에르 불레즈와 비교를 꿰고 있는 피에르 불레즈의 뒤를 이을 역작이라 볼 수 있겠다.



BelAir BAC615 [4DVDs]
BelAir BAC616 [4Blu-ray]

**** 2013년부터 출시된 영상물들을 부지런히 모은 마니아에게나, 자하로바를 통해 발레 명작으로 다가가고 싶은 초심자에게나 적극 권장하는 싶은 '자하로바 종합 선물 세트'이다.**

볼쇼이발레단 수석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BOX
백조의 호수 · 라 바야데르 · 잠자는 숲속의 미녀 · 파라오의 딸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오데트/오딜, 니키야, 오로라 공주, 파라오의 딸), 데니스 로드킨, 세르게이 필린 등, 볼쇼이발레단 단원, 파벨 소로킨 · 바실리 시나이스키(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볼쇼이발레단의 꽃이자 명품인 자하로바의 출연작 4종 모음

블루레이와 DVD로 출시된 이 영상물은 '백조의 호수'(2015실황 · 출시), '라 바야데르'(2013실황 · 출시), '잠자는 숲속의 공주'(2011실황 · 2012출시), '파라오의 딸'(2003실황 · 2017출시)로 구성된 박스물로, 볼쇼이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1979~)가 주역을 맡은 화제의 공연을 모은 것이다. 1996년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 후 수석 무용수로의 승격 후, 2003년 볼쇼이발레단으로의 이적을 통해 러시아 발레의 양대산맥을 정복한 그녀의 대표작들이다. 특히, 블루레이(BAC 616)의 화질이 대단히 우수하다. 2003년 '파라오의 딸'은 자하로바가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볼쇼이 발레단으로 이적한 이후 바로 가진 공연이지만, 관록과 여유가 돋보인다. 젊은 시절의 미모와 움직임 또한 보는 이에게 매력을 선사한다. 볼쇼이 극장 특유의 섬세한 무대미술, 독무와 2인무 그리고 군무를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 또한 보는 재미와 소장 가치를 높인다. 자하로바는 2008년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과 만나 결혼하며 국내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도 또 한 번의 이슈를 던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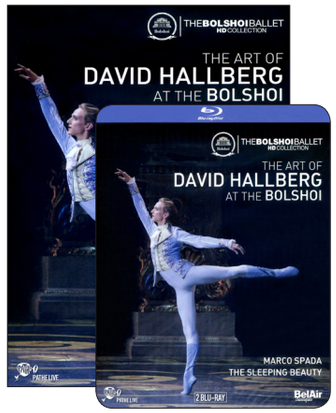
[보조자료]

– 1979년 생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1996년 바가노바를 졸업한 해에 키로프 발레단(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했고 1년 만에 수석무용수로 승급했다. 그러던 중 2003년 여름에 볼쇼이발레단으로 옮겼다. 그녀의 이적은 러시아 발레 양대 산맥의 정상을 연거푸 오른 흔치 않은 사건이어서 세계 무용계의 이슈가 됐다. 현재 볼쇼이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 중인 그녀는 2005년 내한한 바 있으며, 2008년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과 만나 결혼하며 국내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도 또 한 번의 이슈를 던진 바 있다.

– 블루레이와 DVD로 출시된 이 영상물은 '백조의 호수'(2015년 실황 · 출시), '라 바야데르'(2013년 실황 · 출시), '잠자는 숲속의 공주'(2011년 실황, 2012년 출시), '파라오의 딸'(2003년 실황 · 2017년 출시)로 구성된 박스물로, 자하로바가 주역을 맡은 화제의 공연을 모은 것이다.
(1) '백조의 호수': 자하로바(오데트/오딜), 데니스 로드킨(지그프리트 왕자), 아르데미 벨랴코프(악마), 파벨 소로킨(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2) '라 바야데르': 자하로바(니키야), 블라디슬라프 란트라토프(솔러), 마리아 알렉산드로바(감자티), 유리 그리고로비치(재안무), 파벨 소로킨(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3) '잠자는 숲속의 미녀': 유리 그리고로비치(안무 · 2011년 버전), 자하로바(오로라 공주), 다비트 홀베르크(데지레 왕자), 마리아 알라쉬(라일락 요정), 바실리 시나이스키(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4) '파라오의 딸': 자하로바(파라오의 딸), 세르게이 필린(윌슨 왕), 알렉산더 소트니코프(지휘), 볼쇼이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 2013년부터 출시된 영상물들을 부지런히 모은 마니아에게나, 자하로바를 통해 발레 명작으로 다가가고 싶은 초심자에게나 적극 권장하는 싶은 '자하로바 종합 선물 세트'이다.

– 특히, 블루레이(BAC 616)의 화질이 대단히 우수하다. 4종의 영상물 중 2003년 '파라오의 딸'은 자하로바가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볼쇼이 발레단으로 이적한 이후 바로 가진 공연이지만, 관록과 여유가 돋보인다. 젊은 시절의 미모와 움직임 또한 보는 이에게 매력을 선사한다. 볼쇼이 극장 특유의 섬세한 무대미술, 독무와 2인무 그리고 군무를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 또한 보는 재미와 소장 가치를 높인다.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BelAir BAC617 [2DVDs]
BelAir BAC618 [2Blu-ray]

볼쇼이발레단의 '데이비드 홀버그의 예술'
'마르코 스파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데비이드 홀버그(마르코 스파다, 데지레 왕자), 예프게냐 오브라츠소바(안젤라),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오로라 공주), 알렉시 보고러드 · 바실리 시나이스키(지휘), 볼쇼이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미래의 전설이 되려는 발레리노 데이비드 홀버그의 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를 거쳐 2011년 볼쇼이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이적한 데이비드 홀버그(1982~)는 냉전 시기에 옛 러시아의 무용수들이 서방으로 망명한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며 많은 언론이 화제의 무용수로 추켜세운 인물이다. 이 영상물은 홀버그가 출연한 두 개의 대표작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출신의 젊은 무용수에게 이러한 박스물을 내어준 볼쇼이발레단은 현재 과거의 위엄 유지와 함께 개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마르코 스파다'는 2014년 실황으로 같은 해에 출시되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2011년 실황으로 2012년에 출시되었다. 다니엘 오베르가 안무한 '마르코 스파다'는 최근에 피에르 라코트가 볼쇼이발레단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리메이크해 상연했는데, 그 공연이 이 영상물이다. 이 영상물에는 '마르코 스파타와 볼쇼이발레단의 프랑스 발레'라는 제목의 보너스 트랙(23분)이 붙어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볼쇼이발레단의 '산 전설'이 되어버린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오로라 공주 역을, 홀버그가 데지레 왕자 역을 맡아 화제가 된 영상물이다.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보조자료]

–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였던 데이비드 홀버그(1982~)는 2011년 볼쇼이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이적하며 화제를 낳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세르게이 필린에 의해 발탁된다. 언론은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나 루돌프 누레예프 같은 옛 러시아의 무용수들이 냉전 시기에 서방으로 망명한 것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으로 자체적인 스타를 길러냈던 볼쇼이발레단이나 마린스키발레단은 이처럼 외국에서 정상급 무용수를 데려온 적이 없었다.

– 이 영상물은 홀버그가 출연한 두 개의 대표작으로 구성되었다. 제목도 '데이비드 홀버그의 예술'이라 이름 붙였다. 무엇보다 미국 출신의 젊은 무용수에게 이러한 박스물을 내어준 볼쇼이발레단은 현재 과거의 위엄 유지와 함께 개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마르코 스파다'는 2014년 실황으로 같은 해에 출시되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2011년 실황으로 2012년에 출시되었다.

(1) 다니엘 오베르가 안무한 '마르코 스파다'는 1857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 되었고 1981년 피에르 라코트에 의해 리메이크 되었다. 최근에 피에르 라코트가 볼쇼이발레단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리메이크해 상연된 작품이 이 영상물이다. 기술적인 면이나 스토리가 독특한 작품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안무로 구성되어있다. 도적 마르코 스파다와 그의 딸 안젤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마르코 스파다는 총에 맞아 쓰러지지만 딸 안젤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홀버그는 마르코 스파다 역을 맡았다. 이 영상물에는 '마르코 스파타와 볼쇼이발레단의 프랑스 발레'라는 제목의 보너스 트랙(23분)이 붙어있다.

(2)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볼쇼이발레단의 '산 전설'이 되어버린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오로라 공주 역을, 홀버그가 데지레 왕자 역을 맡아 화제가 된 영상물이다.

– 두 작품 모두 예전에 출시되었다. 하지만 이 박스물은 데이비드 홀버그의 예술세계와 볼쇼이발레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보다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기에 소장 가치도 높다.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1808 [DVD]
C Major 741904 [Blu-ray]

2017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
모차르트: 레퀴엠

민코프스키(지휘), 루브르의 음악가들, 바르타바스(승마연출), 베르사이유 승마 아카데미, 제니아 퀴메이에르(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컬먼(메조소프라노), 줄리앙 베흐(테너), 샤를르 드키세(베이스)

승마와 음악의 만남!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의 역사를 바꾸다

2017년 1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에 펠젠라이트슐레에 오른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모차르트의 '레퀴엠' 공연은 "소리와 승마의 최고 예술"이라는 평을 들을수 밖에 없는 무대였다. 승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바르타바스(b.1957)가 연출한 이 공연을 위해 펠젠라이트슐레 무대에는 말이 뛸 수 있게끔 흙이 깔렸다. '레퀴엠'에 맞춰 마상(馬上)의 기수들은 말의 속도와 연기를 감동적으로 선사한다. 조명연출도 제각각. 'Agnus Dei'(15트랙)에는 마상의 해골 전신이 '레퀴엠'이 죽은 자를 위한 음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인간과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연출하는 스펙터클 앞에서 민코프스키의 음악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펠젠라이트슐레 특유의 피부로 와 닿는 음향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영상물. 70분 동안 민코프스키와 연주자들의 대열 사이를 말들이 뛰어다녀도 현장의 잡음은 일체 들어 있지 않다. 정말 놀라운 세계다.

[보조자료]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심장과도 같은 펠젠라이트슐레는 원래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여름 승마학교로 만들어진 곳으로, 암벽을 파고 만든 60여 개의 아치로 둘러싸여 있다. 1926년 라인하르트가 이곳에 처음 연극을 올린 뒤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정례적인 공연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 공연장의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승마와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펠젠라이트슐레에서 펼쳐진다면 어떠할까? 이에 답이라도 하듯 2017년 1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에 선보인 민코프스키&루브르의 음악가들의 모차르트 '레퀴엠'은 신선하고 파격적인 답을 내놓았다.

– 오스트리아의 유력지 '크로넨 자이퉁'지로부터 "소리와 승마의 최고 예술"이라는 평을 받은 이 공연은 승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바르타바스(b.1957)의 승마 연출과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함께 하는 공연 실황 영상물이다. 바르타바스는 승마와 춤, 음악, 시, 샤머니즘이 한데 융합된 예술을 구상해왔으며, 필립 글래스와 피에르 불레즈가 그의 예술과 함께 하기도 했다.

– 펠젠라이트슐레 무대에는 말이 뛸 수 있게끔 흙이 깔려 있다. 민코프스키는 오페라 지휘자처럼 폭넓은 시선으로 마장(馬場)과 무대 전체를 조망하며 지휘한다. 모차르트의 '미제레레' K85와 헨델 '캐롤라인 왕비를 위한 장례식 송가' HWV264의 일부가 나온다. 이후 '레퀴엠'의 선율을 타고 등장한 말과 마상(馬上)의 기수들은 음악에 맞춰 팔을 벌리고, 감격어린 표정을 짓는 등의 마상의 연극을 펼친다.

– 무대의 일부를 보자. 'Dies irae'(5트랙)에서 말들은 거친 속도로 무대 위를 뛰어다닌다. 이어지는 'Tuba mirum'(6트랙)에서 평화롭게 거닌다. 무대 전경을 비추는 조명연출도 압도적이다."저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Confutatis'(9트랙)에서 빛과 어둠을 교차시키며 펼쳐지는 흑백의 무대도 파격적. 'Agnus Dei'(15트랙)에는 마상에 앉은 해골의 전신이 '레퀴엠'이 죽은 자를 위한 음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 인간과 동물이 만든 스펙터클 앞에서 민코프스키의 음악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다. 펠젠라이트슐레만의 피부로 와 닿는 음향 감각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물만의 매력. 70분 동안 민코프스키와 연주자들의 대열 사이를 말들이 뛰어다녀도 현장의 잡음은 일체 들어 있지 않다. 정말 놀라운 세계다.

C Major 740608 [2DVDs]
C Major 740704 [Blu-ray]

2016 브레겐츠 페스티벌 실황
프랑코 파치오의 오페라 '햄릿'

파벨 체르노카(햄릿), 클라우디오 스구라(클라우디오), 율리아 마리아 단(오펠리어), 쉐밀리아 카이저(거트루드), 올리베에르 텅보쉬(연출), 파올로 카리그나니(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하 필하모닉 합창단

햄릿을 소재로 한 귀한 오페라. 145년 만의 귀환!

밀라노 라 스칼라의 예술감독이었던 파치오와 극작가 보이토가 만든 오페라 '햄릿'은 1871년 라스칼라에서 공연되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2014년 미국에서 콘서트 버전으로 빛을 본, 수록된 해설지에 의하면 'A Long-Lost Masterpiece'다. 2016년 7월 18일, 브레겐츠 실내 페스티벌 극장에 오른 '햄릿'은 145년 만의 부활로 Cmajor에서 세계최초로 발매한 영상물로 그 소장 가치 역시 충분하다. 연출가 올리비에르 텅보쉬는 햄릿의 불안하고 어두운 내면을 무대에 구현하려는 듯 검은색 톤으로 일관한다. 배역들의 의상도 하나같이 눈길을 끈다. 총 4개의 막을 가로 지르는 햄릿 역의 파벨 체르노카가 압도적이다. 광기와 정신분열로 가득 찬 모습, 그리고 폭 넓은 성량, 여유 있는 고음의 발성, 유장한 호흡의 프레이징은 보는 이를 압도당하게 한다. 해설지에는 작품 해설(영 · 프 · 독)이 수록.

[보조자료]

– 밀라노 라 스칼라의 예술감독이었던 파치오는 극작가 보이토와 오페라 '햄릿'을 통해 셰익스피어 연극의 정신을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했다. '햄릿'은 1871년 라스칼라에서 공연되었지만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2014년 미국에서 콘서트 버전으로 빛을 본, 수록된 해설지에 의하면 'A Long-Lost Masterpiece'다. 2016년 7월 18일, 브레겐츠 페스티벌 중 브레겐츠 실내 페스티벌 극장에 오른 '햄릿'은 145년 만에 부활이다. C major에서 세계 최초로 발매한 영상물로 그 소장 가치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 이 영상물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다.

– 추천의 두 번째 이유는 햄릿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연출, 세 번째는 그러한 공간을 배경삼아 활약하는 햄릿 역의 테너 파벨 체르노카의 활약이다.

– 오페라 '햄릿'은 연극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프랑스 태생의 올리비에르 텅보쉬는 햄릿의 불안하고 어두운 내면을 무대에 구현하려는 듯 검은색 톤으로 일관한다. 시대적 재현보단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무대지만, 그것을 수놓는 배역들의 의상도 하나같이 눈길을 끈다.

– 햄릿 역의 파벨 체르노카는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라는 호평을 받은 테너. 극중 극을 위해 흰색으로 분장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불안한 젊은 세대의 변화와 심리를 능숙하게 표현'('아벤 차이퉁')한다는 말과 잘 맞아 떨어진다. 연극 '햄릿' 속에도 등장하는 극중극은 이 오페라에서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 영상물의 보는 재미를 선사하는데, 광기와 햄릿의 정신분열로 가득 차 있다. 총 4개의 막을 가로 지르는 파벨 체르노카의 목소리는 폭 넓은 성량, 여유 있는 고음의 발성, 유장한 호흡의 프레이징으로 요약되겠다.

– 셰익스피어 연극의 특징인 독백이 아리아화된 작품으로 보아도 좋다. 햄릿, 오필리어, 거트루트 등의 아리아들은 음악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해설지에는 작품 해설(영 · 프 · 독)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2608 [DVD]
C Major 742704 [Blu-ray]

푸치니 '라 보엠' 초연 120주년 기념작 테아트로 레지오의 '라 보엠'

지안드레아 노세다(지휘), 테아트로 레지오 오케스트라 · 합창단 · 어린이 합창단 · 베르디 음악원 합창단 / 알렉스 올레(연출), 알퐁스 플로흐(무대디자인) / 이리나 룽구(미미), 조르지오 베르루기(로돌포), 마시모 카발레티(마르첼로), 켈리보즐 □송(무제타).

해피 버스데이! 120살의 '라 보엠'

푸치니의 '라 보엠'이 초연된 때와 장소는 1896년 2월 1일, 이탈리아의 북부 토리노에 위치한 테아트로 레지오이다. 이 영상물은 '라 보엠' 초연 120주년 기념하기 위해 테아트로 레지오가 제작 · 공연한 실황(2016년 10월)을 담고 있다. 연출은 스페인의 전위예술 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La Fura dels Baus)의 알렉스 올레가 맡았다. 이 프로덕션을 통해 오페라 연출계에 입봉한 그는 도시 외곽의 작업실과 누추한 거리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주인공들은 청바지와 가죽 재킷, 후드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다. 노세다의 지휘는 푸치니 특유의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이끌고 받쳐준다. 내한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미미 역의 소프라노 이리나 룽구, 로돌포 역의 조르지오 베르루기는 '라 보엠'의 120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한 목소리로 전혀 손색이 없다.

[보조자료]

– 푸치니의 '라 보엠'이 초연된 때와 장소는 1896년 2월 1일, 이탈리아 테아트로 레지오이다. 이 영상물은 '라 보엠' 초연 120주년 기념하기 위해 테아트로 레지오가 제작 · 공연한 실황(2016년 10월)이다.

– 파리의 라틴 지구 다락방에서 시인 로돌포(조르지오 베르루기)와 그의 친구들은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아간다. 그러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돌포는 촛불을 빌리러 온 이웃집 미미(이리나 룽구)와 우연히 만나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마르첼로(마시모 카발레티)는 옛 연인이었던 무제타(켈리보즐 □송)와 재회한다. 그러던 중 미미의 폐병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괴로워하던 미미와 로돌포는 결국 헤어지게 된다.

– 연출은 스페인의 전위예술 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La Fura dels Baus)의 알렉스 올레가 맡았다. 연주는 지안드레아 노세다가 이끄는 테아트로 레지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라 보엠'을 통해 오페라 연출계에 입봉한 알렉스 올레는 '라 보엠'의 서사를 무대가 아닌 일상 속에 풀어 놓은 것 같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 델라 세라'로부터 '이것은 극장이며, 삶이고, 열정 그 자체이다'라는 평을 들었던 만큼 그는 사실주의 기법에 입각해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예술가의 작업실과 누추한 거리가 무대의 전부다. 주인공들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청재킷과 청바지, 가죽재킷과 후드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다.

– 간소한 무대를 통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 노세다의 지휘는 교향곡을 작곡했어도 성공했을 법한 푸치니의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출연진들의 목소리를 받쳐준다. 국립오페라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라 트라비아타' 등의 무대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미미 역의 소프라노 이리나 룽구는 사랑에 빠진 여인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의 흐름을 고품격 음색으로 그려낸다. 로돌포 역의 조르지오 베르루기는 '세련된 뉘앙스로 빛나는 음색을 그렸다('라 스탐파')는 평처럼 빛나는 음색으로 '라 보엠'의 주요 아리아를 선사한다.112분 분량으로 자막은 한국어 ·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함께 하면 좋은 영상물]

토레 델 라고의 2014 푸치니 페스티벌 '라 보엠'(Blu-ray Cmajor 736204) : 다니엘라 드세(미미), 파비오 아르밀리아토(로돌포), 발레리오 갈리(지휘)

C Major 742008 [DVD]
C Major 742104 [Blu-ray]

베르디: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프란체스코 포스카리), 프란체스코 멜리(자코포 포스카리), 안나 피로치(루크레치아), 알비스 헤르마니스(연출), 미셸 마리오티(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이 작품과 함께 하는 도밍고의 전성기는 그 끝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전성기! 도밍고의 눈물과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프로덕션

2016년 밀라노 라 스칼라 실황으로, LA오페라 총감독이자 현존 최고의 스타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아들을 잃게 되는 고뇌에 찬 프란체스코 역을 맡았다. 그동안 도밍고와 함께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로열 오페라 등에서 호흡을 함께 해온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가 출연하여 두 사람의 안정된 호흡이 인상적이다. 소프라노 안나 피로치, 지휘자 미셸 마리오티의 합류는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준다. 연출을 맡은 알비스 헤르마니스는 같은 해에 있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후기작 '다나에의 사랑'을 올려 화제를 낳았던 인물. 그의 이 프로덕션과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은 국내에도 개봉하여 화제를 낳은 바 있다. Full HD 1080p의 화질의 영상은 성악진의 표정은 물론 알비스 헤르마니스 특유의 역사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무대를 섬세히 비춘다.

[보조자료]

–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연이 잘 되지 않는 베르디 초기작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공연 자체가 드문 작품이다.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 자코포를 구출하지 못하는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운명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러한 캐릭터는 정치 속에서 희생되는 가족사를 그린 '돈 카를로'의 필리포 왕과 닮아 있거나 '시몬 보카네그라'를 연상케 한다.

– 하지만 간결하게 압축된 줄거리와 빠른 사건 전개, 단순하면서도 긴박감 넘치는 음악은 '돈 카를로'보다 이 작품을 대하기 수월하게 한다. 그래서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이 잘 공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주인공 프란체스코 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성악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 이 작품이 2012년 9월 LA오페라에 오를 때부터 프란체스코 역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플라시도 도밍고의 명성과 열연은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로열 오페라 등으로 지속되는 동안에도 힘을 발휘했다. 이번 무대에서도 같은 역을 맡은 그의 존재로부터 눈을 떼려야 뗄 수 없다. 1막 3장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옛 심정이여'부터 3막 2장 '운명의 종소리인가'로 이어지는 도밍고의 음성은 그의 전성기를 연상케 한다. '섭외 0순위'의 테너로, 2016년 베르디 '가면무도회'로 내한하여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프란체스코 멜리는 '제2의 도밍고'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코포 역을 소화해내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는 루크레치아 역의 안나 피로치는 열의에 가득 차 있다. 1979년 태생의 젊은 지휘자 미셸 마리오티 지휘의 속도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은 극적인 흐름을 쥐었다 폈다 한다.

– 도밍고의 지속적인 출연으로 인하여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는 곧 '도밍고'라는 도식이 굳어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알비스 헤르마니스의 연출이다. 무대에 많은 부분을 비워내고, 배경 막의 회화로 대체하는 그의 무대와 동선은 성악가들이 노래에 집중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끔 조각물을 등장시켜 입체감을 살려내기도 한다. 자막은 한국어 ·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함께 하면 좋은 영상물]

프란체스코 역할을 열연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도밍고의 팬이라면, 혹은 '돈 카를로'와 같은 남성 서사 중심의 오페라를 선호한다면 로열 오페라의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OA BD7197 D)과 비교하면 감상하는 것도 재밌다.

C Major 742208 [2DVDs]
C Major 742304 [Blu-ray]

2017 브레겐츠 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가엘르 아르케(카르멘), 다니엘 요한슨(돈 호세), 스콧 헨드릭스(에스카미요), 엘레나 찰라고바(미카엘라), 파올로 카리야니(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레겐츠 페스티벌 합창단 · 프라하 필하모닉 합창단, 카스퍼 홀텐(연출), 에스 데블린(무대디자인)

호수 위, 카르멘의 뜨거운 유혹

국내에서 지난 6월 14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며 화제를 모았던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비제 '카르멘' 공연 실황물(7월 19 · 21일)이다. 런던 로열오페라의 예술감독 카스퍼 홀텐이 연출을, 아델 · U2 · 테이크 댓 · 펫샵 보이즈 · 카니예 웨스트 등 팝스타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에스 데블린이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지휘는 2015/16 시즌에 '투란도트'를 지휘했던 파올로 카리야니. 라모 · 륄리 · 비발디 등 바로크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메조소프라노 가엘르 아르케는 색다른 카르멘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목소리와 요염한 연기력이 인상적이다. 영상물은 현장의 거친 음향도 잘 걸러내어 담고 있다. 유럽의 여느 오페라극장과 마찬가지로 호반을 울리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또렷하다. 보너스 트랙(14분)에는 연출가 카스퍼 홀텐과 디자이너 에스 데블린의 인터뷰(영어 · 독일어 자막), 그리고 세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상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2017/18 시즌,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비제 '카르멘'을 선택했다. 본 영상물은 개막하던 7월 19일과 21일 실황을 담은 것으로, 국내에도 지난 6월에 14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프로덕션은 런던 로열오페라의 예술감독 카스퍼 홀텐이 연출을 맡았고, 아델 · U2 · 테이크 댓 · 펫샵 보이즈 · 카니예 웨스트 등 팝스타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데블린이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지휘는 2015/16 시즌에 '투란도트'를 지휘했던 파올로 카리야니.

–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현재의 유명세보다는 세계적 명성을 갈망하는 젊은 성악가 위주로 캐스팅한다. 타이틀 롤의 메조소프라노 가엘르 아르케는 라모 · 륄리 · 비발디 등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그녀의 음반은 아르모니아 문디 · 알파 · 아파르테 등의 레이블을 통해 나와 있다. 하지만 '카르멘'의 무대 위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안정적인 목소리와 요염한 연기력이 인상적이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무대는 성악가들이 마이크를 사용한다. 공연에서 음악은 무대 세트에 잘 숨겨진 대형 스피커를 타고 장내로 흘러온다. 때로 현장의 소리가 아니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이 영상물은 현장의 거친 음향을 잘 걸러내어 담고 있다. 유럽의 여느 오페라극장과 마찬가지로 호반을 울리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또렷하다.

– 카스퍼 홀텐의 연출은 콘스탄스 호수를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처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1막에서 담배공장의 여공들은 호수가로 나와 물을 뜨고 목욕을 하고, 후반에 카르멘은 호세의 도움으로 탈출하며 호수에 뛰어들었다. 다소 밋밋하게 보이던 카드에 2막부터 영상과 조명이 더해지면서 변신이 시작된다. 3막 밀수꾼들의 합창은 모터보트를 타고 물 위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사랑을 거절당한 호세의 복수 장면 피날레도 호수가 사건 현장이었다. 호세는 카르멘을 호수 물에 빠뜨린 채 목을 조른다. 본 공연(124분)의 자막은 한국어 ·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보너스 트랙(14분)에는 연출가 카스퍼 홀텐과 디자이너 에스 데블린의 인터뷰(영어 · 독일어 자막), 세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주는 영상이 담겨 있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명작을 다시 보고 싶다면]
– 2009년 베르디 '아이다' (Cmajor DVD 707908/ Blu-ray 708004)
– 2011년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Cmajor DVD 702808/ Blu-ray 702904)
– 2013년 모차르트 '마술피리' (Cmajor DVD 713708/ Blu-ray 713804)
– 2015년 푸치니 '투란도트' (Cmajor DVD 731408/ Blu-ray 731504)

C Major 742408 [DVD]
C Major 742504 [Blu-ray]

빈 국립극장 발레단 & 오케스트라 누레예프의 '돈키호테'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루트비히 민쿠스(음악), 빈 국립극장 발레단, 마누엘 레그리스(발레 감독), 케빈 로데스(지휘), 빈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문학과 발레의 만남, 즐거움과 기교의 향연

발레 '돈키호테'는 1896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작곡가 루트비히 민쿠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만든 작품이다. 그 후 수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재안무되었다. 이 영상물은 3막 구성의 누레예프 버전으로 빈 국립극장 발레단과 오케스트라의 실황이다. 2016년의 5월 공연 무대인데, 이 해는 세르반테스의 서거 400주년인 해다. 시작부터 끝까지 경쾌하면서도 화려한 춤들과 희극적인 마임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막과 장 사이에 가끔씩 등장하는 지휘자 케빈 로데스도 풍부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현장의 흥을 돋운다. 재밌는 점은 타이틀 롤인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 판자는 단지 소재를 제공하는 조역으로 등장할 뿐이라는 점. 따라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여관집 딸인 키트리와 그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키트리와 바질의 2인무는 남녀 역할과 상관없이 무용수의 점프력과 빠른 회전력을 엿볼 수 있다. 빈 국립극장 발레단의 간판스타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자, 수많은 영상물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주역을 맡았다.

[보조자료]

– 발레 '돈키호테'는 1896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루트비히 민쿠스(1826~1917)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가 만든 작품이다. 1896년 초연 버전은 5막 11장 구성이다. 그 후 수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재 안무되었다. 그중 1900년 볼쇼이 발레단의 알렉산더 고르스키가 원작을 3막 7장으로 압축 · 재구성했고, 1940년 자카로프에 의해 모스크바에서 리바이벌 되었다. 서구에서도 보르코프스키, 누레예프, 그리고 지난 1974년 미국으로 망명한 바리시니코프에 의해 아메리칸 발레단(ABT)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

– 이 영상물은 3막 구성의 누레예프 버전으로 빈 국립극장 발레단과 오케스트라의 실황이다. 2016년의 5월 무대인데, 이 해는 세르반테스(1547~1616)의 서거 400주년인 해이다.

– '돈키호테'의 마지막 막의 그랑 파드되(2인무)가 발레 갈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적합한 명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 1막 키트리의 바리아시옹(독무), 2막 돈키호테의 몽상 장면 등 유명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돈키호테'는 시작부터 끝까지 경쾌하면서도 화려한 춤들과 희극적인 마임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스페인의 펠리페 3세는 한 젊은이가 포복절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성을 잃었거나,아니면 돈키호테'를 읽은 것이라 말했을정도인데 이러한 성격은 발레작품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빈 국립극장역시 이러한 흥으로 가득 차 있고, 막과 장 사이에 가끔씩 등장하는 지휘자 케빈 로데스도 풍부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현장의 흥을 돋운다.

– 재밌는 점은 타이틀 롤인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 판자는 단시 소재를 제공하는 조역으로 등장할 뿐이라는 점. 따라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여관집 딸인 키트리와 그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누레예프 버전은 한 세기를 풍미했던 무용수의 작품인 만큼, 테크닉이 복잡하고 어렵게 안무되어 있다. 따라서 키트리와 바질의 2인무는 남녀 역할과 상관없이 무용수의 점프력과 빠른 회전력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두 조역에 의해 막 간의 스토리의 연계도 강화되어 마치 한편의 문학작품을 보는 듯하다. 빈 국립극장 발레단의 간판스타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자, 수많은 영상물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주역을 맡았다.

[함께 추천해요]
– 2015년 라 스칼라 극장 발레단의 '돈키호테' (루돌프 누레예프 안무, 나탈리아 오시포바(키트리 역), 블루레이 C Major 735804)
– 2013년 로열 발레단의 '돈키호테' (카를로스 아코스타 안무 및 바질 역, 마리아넬라 누네즈(키트리 역))

Dacapo re-package

www.dacapo-records.dk

Dacapo 2.110433-35 [3Blu-ray]

DACAPO

라파엘 부르고스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외 3곡 실황

라파엘 부르고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알비나 샤기무라토바(소프라노), 샤롯테 헬레캔트(메조 소프라노), 스코트 맥알리스터(테너), 존 루터(베이스), 페페 로메오(기타)

'최고'의 지휘자와 악단, '최상'의 영상 · 음향 기술이 그려낸 베토벤

스페인 태생의 거장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1933~2014)가 2012년부터 상임지휘자로 재직했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과 로드리고 '아랑웨즈의 협주곡',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이 수록된 영상물이다. 재빠르고 매서운 노장의 지휘봉과 감각으로 무장한 단원들의 호흡이 눈부시다. 독특한 경사와 곡선을 주제로 설계된 코펜하겐 홀의 연주를 생생하게 담은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 음향을 한올 한올 살려낸 PCM 스테레오 2.0/DST-HD 마스터 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은 눈과 귀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수록곡]

3장의 디스크물(총 553분 분량)로 구성되었다.

1) Disc 1 : 교향곡 1번 · 2번(2012년 9월 실황), 3번 '영웅'(10월 실황), 4번(2013년 1월)
2) Disc 2 : 교향곡 5번 '운명'(2013년 3월 실황), 6번 '전원'(2013년 4월), 7번(2013년 5월), 8번(2013년 5월)
3) Disc 3 : * 9번 '합창'(2013년 6월)
* 로드리고 '아랑웨즈의 협주곡'(2013년 3월 실황/ 기타리스트 페페 로메오가 협연)
*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2013년 6월)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2014년 6월)와 함께
* 97쪽에 달하는 부클릿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덴마크어로 되어 있다. 덴마크의 유명 작곡가이자 오르후스 왕립음악원 교수인 카를 라스무센(b.1946)이 베토벤, 로드리고, 베를리오즈, 슈트라우스의 곡에 대한 해설을 썼다.

[보조자료]

– 스페인 태생의 거장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1933~2014)가 2012년부터 상임지휘자로 재직했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과 로드리고, 베를리오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을 수록한 영상물이다.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는 1962~1978년 스페인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후,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라인 도이치 오페라, 빌바오 심포니, 비엔나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등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은 바 있다.

– 2017년부터 파비오 루이지가 상임지휘자로 임기를 시작 할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은 1925년에 덴마크 방송 협회(DR)에서 발족했기에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국가대표격 오케스트라로 동향의 작곡가 카를 닐센을 위시한 자국과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와 녹음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곡을 암보하여 포디엄에 오르는 노장의 지휘봉은 재빠르고 매섭고, 단원들은 노장의 지휘에 맞춰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며 자신들의 사운드를 빚어낸다. 정확한 비트에선 독일풍의 스타일이, 여유 있는 포스에선 라틴 정서가 물씬 풍겨 나온다. PCM 스테레오 2.0/DST-HD 마스터 오디오5.0의 오디오 옵션은 현장의 음향을 생생히 그려낸다.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상주하는 코펜하겐 홀은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것으로 2009년에 완공된 곳. 1008석의 콘서트홀은 경사와 곡선을 주제로 건축 되었으며, 무대와 좌석 모두 비대칭 구조의 곡선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가장 높은 해상도인 1080p의 화질을 자랑하는 이 영상물은 22대의 카메라 워크가 무대와 관객석, 콘서트홀 전경의 생생함을 잡아내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관악 주자의 얼굴을 비추던 카메라가 줌아웃하여 무대 전체를 담고, 이어 더 과감하게 뒤로 빠져 관객석과 홀 전체를 담아내는 식이다. 이처럼 줌업-줌아웃을 오고가는 카메라의 포착력은 과감하고 재빠르다. 또한 카메라를 수평으로 트래킹하여 오케스트라를 수평으로 훑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며 보는 이에게 다이내믹함을 선사한다. 노장의 무르익은 해석과 정열, 덴마크 최고의 교향악단, 그리고 덴마크의 음악사를 조망하고 있는 다카포 레이블의 첨단 장비와 최고의 스태프들이 총동원하여 만든 걸작이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68 [DVD]
Dynamic 57768 [Blu-ray]

DYNAMIC

2016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 벨리니 '노르마'

마리아 호세 시리(노르마), 소니아 잔나시(아달지사), 루벤스 펠리차리(폴리오네), 니콜라 울리비에리(오로베소), 미쉘 감바(지휘), 마르셰 레지오날레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루이지 디 간지 · 우고 지아코마치(연출)

초대형 야외극장 위의 '노르마'와 새로운 목소리의 마리아 호세 시리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스테리오(Sferisterio) 야외극장에 오른 공연으로 2016년 7 · 8월 공연 실황이다. 먼저, 이 영상물은 야외 오페라의 독특한 분위기와 거대한 공간이 주는 규모감과 압도미를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한다. 간지와 지아코마치의 공동연출은 한 여인이 또 다른 시공간으로 건너가는 분위기로 막을 연다. 이어지는 무대는 원작이 기원전 50년 경 로마제국 관할 하의 고대 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대와 소품 역시 이러한 고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도록 세팅했다. 타이틀 롤은 우루과이 출신의 소프라노 마리아 호세 시리. 지난 2016년 12월,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1세기 만에 원본 그대로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될 때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 '노르마' 공연에서 그녀는 동선을 아끼며, 과감한 연기보다는 노래에 집중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르마와 아달지사가 부르는 정교한 이중창 '들어보세요, 노르마'와 '혼자 신전에 있을 때'에선 아달지사 역의 소니아 잔나시의 목소리에 눈뜨게 된다. 깊고 영롱한 소리다.

[보조자료]

–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에 오른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를 담은 영상물로, 2016년 7 · 8월 공연 실황이다. 먼저, 이 영상물은 야외 오페라의 독특한 분위기와 거대한 공간이 주는 규모감과 압도미를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다.

–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은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의 중심도시인 마체타라에서 매해 여름에 열린다. 1921년부터 시작된 이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는 영상에 나오는 스페리스테리오(Sferisterio) 야외극장. 1820년경부터 운동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현재 3,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이 된 것이다. 야외극장이지만 배우들은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관객을 압도하는 사이즈의 무대와 성악가의 표정을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덕션으로 인해 오페라 연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루이지 디 간지와 우고 지아코마치의 공동연출은 한 여인이 또 다른 시공간으로 건너가는 분위기로 막을 연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무대는 원작이 기원전 50년 경 로마제국 관할 하의 고대 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대와 소품 역시 이러한 고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도록 세팅했다.

– 1813년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초연된 '노르마'는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대사와 노래의 융합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타이틀 롤은 우루과이 출신의 소프라노 마리아 호세 시리이다. 그녀는 지난 2016년 12월,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1세기 만에 원본 그대로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될 때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인물. '노르마' 무대에서 그녀는 동선을 아끼며, 과감한 연기보다는 노래에 집중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리아 '정결한 여신'과 '배신당한 마음'을 능숙히 소화한다. 특히 노르마와 아달지사가 부르는 정교한 두 개의 이중창 '들어보세요, 노르마'와 '혼자 신전에 있을 때'에서 아달지사 역의 소니아 잔나시의 목소리는 깊고 영롱하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97038 [2DVDs]
EuroArts 2097034 [Blu-ray]

2016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구노 '파우스트'

표트르 베찰라(파우스트), 일다르 아브르다라자코프(메피스토펠레스), 마리아 아그레스트(마르그리트), 알렉시 마르코프(발렌틴) 알레호 페레즈(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합창단, 라인하르트 폰 데어 탄넨(연출 · 무대 · 의상 디자인)

귀와 눈이 즐겁다! 잘츠부르크에 뜬 '포토제닉'한 파우스트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선보인 9개의 오페라 중, 가장 화제작이었던 구노 '파우스트' 공연 실황(2016년 8월)이다. 연출가 라인하르트 폰 데어 탄넨이 총연출 및 무대 · 의상 디자인을 겸했다.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주제였던 '현실과 꿈의 경계'의 기운이 곳곳에 녹아 있는 듯한 연출과 무대 공간은 음악과 성악가들의 열연 못지 않게 이 오페라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베찰라(파우스트)에 비해 아그레스트(마르그리트)는 국내에 인지도가 낮지만, 연출과 무대미술은 마르그리트의 내적 상태와 슬픔을 기호화한 것이 많기에 이 작품을 통해 마리아 아그레스트의 진가와 만날 수 있다. 다만 '발푸르기스의 밤'의 무용 장면이 생략되어 보는 이에 따라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알레호 페레즈는 2015년 마스네 '베르테르'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했고, 이번 무대를 통해 보다 안정된 사운드를 들려준다.

[보조자료]

–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선보인 9개의 오페라 중, 가장 화제작이었던 구노 '파우스트' 공연 실황(2016년 8월)이다. 연출가 라인하르트 폰 데어 탄넨은 학창 시절부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레지덴츠 등의 극장에서 무대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으로 경험을 쌓았으며, 1994년 다름슈타트 주립극장의 살리에리 '카탈리나' 세계 초연을 통해 연출가로 데뷔했다. 현재 배우 · 각본가 · 화가 · 디자이너 ·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번 프로덕션에서 총연출과 무대 · 의상디자인을 겸했다.

–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주제는 '현실과 꿈의 경계'. 이러한 주제를 부각시키기라도 하듯 이 프로덕션에도 초현실적인 설정들이 곳곳에 녹아 있다. 까마귀와 서류뭉치들이 빼곡한 파우스트 서재가 등장하는 1막, 광대 같은 복장에 총대를 이리저리 흔드는 괴상한 군인과 우주선 내부를 연상케 하는 2막, 널브러진 의자와 마르그리트의 정원, 침대가 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3막, 그로테스크한 적막감만을 뿜어내는 마르게리타의 방이 나오는 4막, 적막감으로 가득찬 형이상학적인 5막의 공간 등이다. 공간이 주는 힘은 음악과 솔리스트들의 노래가 주는 감동 못지 않게 이 오페라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특히 4막 중 전쟁터에 갔다 돌아온 군인들이 부르는 '병사들의 합창'이 펼쳐지기 전에 등장하는 거대한 해골은 인간의 사악함과 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연출가와 괴테의 메시지를 상징화한 시각적 시그니처로 강하게 작용한다.

– 3막 마르게리트가 부르는 일명 '보석의 노래', 파우스트의 아리아('Salut! demeure chaste et pure'), 4막 메피스토펠레스의 세레나데 등은 이번 캐스팅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 특히 표트르 베찰라에 비해 마르그리트 역의 마리아 아그레스트는 국내에 인지도가 낮지만, 연출과 무대미술은 마르그리트의 내적 상태와 슬픔을 기호화한 것이 많기에 이 작품을 통해 마리아 아그레스트의 진가와 만날 수 있다. 작품의 줄거리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인문적 연출이지만 '발푸르기스의 밤'의 무용 장면이 생략되어 보는 이에 따라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페라가 완성된 후에 이 대목을 작곡했다는 역사적 근거와 "그 음악은 아름답지만, 오페라하우스의 흐름보다는 콘서트홀에서의 흐름에 더 적합하다"는 연출가에 의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작품이지만, 그 속에는 연출가만의 깊은 철학이 도사리고 있다. "지식의 경계에 도달한 파우스트는 환멸을 느끼고, 마르그리트와 사랑에 빠진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에서 나온 유혹자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두 영혼이 있습니다'라는 가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억압되지 않은 원초적인 힘의 징표이며, 악마도 아니라 파우스트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라인하르트 탄넨)"

– 지휘자 알레호 페레즈는 바로크부터 20세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마스네 '베르테르'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했고,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초연의 '파우스트'를 지휘했다. 다양한 표정이 내재된 구노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유연하게 흐르게 하며, 성악가들과 정밀하게 호흡을 맞춘다.

EuroArts 2064198 [DVD]

티에리 말랑당: '실루엣' 등 여섯 개의 대표작

티에리 말랑당(안무), 말랑당 발레 비아리츠(발레단)

창작발레의 숨은 보석, 말랑당의 대표작들

티에리 말랑당(1959~)과 그의 무용단 말랑당 발레 비아리츠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투어 중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어 늘 아쉬움을 남긴다. 이미 브리튼 · 드뷔시 · 브람스 · 쇼팽 · 쇼스타코비치 등의 주요작들을 발레의 언어로 탈바꿈하여 현대발레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의 핵심을 느낄 수 있는 대표작 중 여섯 개가 들어 있는 영상물이다. 2016년 프랑스 랑부예 등불극장의 실황의 '실루엣'(베토벤), '녹턴'(쇼팽), '영감'(비발디), 2012년 스페인 빅토리아 에우제니아 극장 실황의 '목신의 오후'(드뷔시), '장미의 정령'(베버), '마지막 샹송'(전통음악)이다. 특히, 독무에서 무용수의 기량과 안무가로써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에 '실루엣'과 '목신의 오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보조자료]

– 현재 프랑스에서 클래식 발레 테크닉을 잘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발레 안무가가 있다면 바로 티에리 말랑당(1959~)이 아닐까 싶다. 티에리 말랑당의 무용단 말랑당 발레 비아리츠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투어 중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어 늘 아쉬움을 남긴다.

– 1986년부터 굵직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던 티에리 말랑당은 1998년부터 프랑스 비아리츠 지역에 위치한 국립안무센터의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2009년부터는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Le Temps d'Aimer la Danse')도 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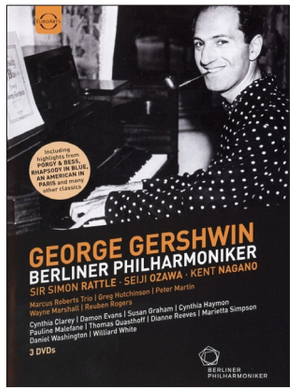
– 그는 음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브리튼, 드뷔시, 브람스, 쇼팽,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며, 2013년에 프로코피예프 음악에 맞춰 선보인 '신데렐라'는 그해 언론과 관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결국 이듬해에 베를린 말라코프 재단이 주관하는 베를린 탈리오니 발레 어워드에서 '최고의 안무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이 영상물은 음악이 발레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하거나, 역으로 발레를 통해 그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말랑당의 대표작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2016년 프랑스 랑부예 등불극장의 실황으로 만날 수 있는 (1) '실루엣'은 베토벤과 남성 독무(1인), (2) '녹턴'은 쇼팽과 22명의 무용수들, (3) '영감'은 비발디와 20명의 무용수들이 함께 한다.

– 2012년 스페인 빅토리아 에우제니아 극장 실황인 (1) '목신의 오후'는 드뷔시와 남성 독무(1인), (2) '장미의 정령'은 베버와 2인무, (3) '마지막 샹송'은 전통음악과 10명의 무용수들이 어우러진다.

– 특히 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무용수의 기량과 안무가로써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에, '실루엣'과 '목신의 오후'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EuroArts 2053768 [3DVDs]

THE BEST OF GEORGE GERSHWIN
죠지 거쉰의 베스트

베를린 필하모닉홀 그리고 발트뷔네 공연에서
스펙타큘하게 공연되었던 거쉰 작품 모음집

[DVD 1]
George Gershwin
– A Gershwin Night from the Waldbuhne Berlin

[DVD 2]
George Gershwin – From the Waldbuhne Berlin
American Night – Waldbuhne 1995

[DVD 3]
George Gershwin
– Gala concertos from The philharmonie Berlin
Ravel meets Gershwin – Gala 2003

EuroArts 2097028 [2DVDs]
EuroArts 2097024 [Blu-ray]

2016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다나에의 사랑'

크라씨미라 스토야노바(다나에), 토마츠 코니에츠니(주피터), 노르베르트 에른스트(머큐리), 볼프강 아브링게르 스페르하케(플록스), 게르하르트 지겔(미다스), 알비스 헤르마니스(연출), 프란츠 뵐저 뫼스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빈 국립오페라합창단

명작이 되기 위해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황금빛 오페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후기작 '다나에의 사랑'은 오늘날 거의 공연되지 않는다. 이 영상물은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2012년 같은 페스티벌에 치머만의 '병사들'을 연출하며 화제를 낳았던 연출가 알비스 헤르마니스의 베르디 '포스카리 가의 두 사람'과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은 국내에도 개봉하여 화제를 낳았던 프로덕션이다. 선과 악, 사랑과 질투의 예각을 날카롭게 세우며 원작의 긴장감을 잘 살리는 그의 연출은 이 작품에서 황금으로 상징되는 허황된 사랑과 인간적 내음이 물씬한 진정한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려낸다. 다나에 역의 소프라노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의 활약은 단연 돋보이며, 다나에와 미다스의 사랑을 방해하는 주피터 역의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코니에츠니는 '탁월한 목성'(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라는 찬사와 '다나에가 미다스를 선택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할 정도로 매력'(파이낸셜 타임즈)을 발산한다. 프란츠 뵐저 뫼스트와 빈 필하모닉은 슈트라우스 후기 작품 속의 낭만과 서정적인 감정을 무대 위의 색채처럼 금빛 사운드로 뽑아낸다.

[보조자료]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후기에 속하는 오페라 '다나에의 사랑'은 오늘날 거의 공연되지 않는다.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물로, 이 오페라는 사실 잘츠부르크와 특별한 인연을 지닌 작품이다. 1944년, 드레스 리허설이 잘츠부르크에서 있었으나, 전쟁의 여파로 중단되었고 1952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정식 초연되었기 때문이다.

– 201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른트 치머만의 오페라 '병사들'을 연출하며 화제를 낳았던 연출가 알비스 헤르마니스의 베르디 '포스카리 가의 두 사람'과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은 국내에도 개봉하여 화제를 낳았던 프로덕션이다. 선과 악, 사랑과 질투의 예각을 날카롭게 세우며 원작의 긴장감을 잘 살리는 그의 연출은 '다나에의 사랑'에서 황금으로 상징되는 허황된 사랑과 인간적 내음이 물씬한 진정한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려낸다. 1막에서 다나에의 꿈속에서 금비가 내리는 장면, 3막에서 다나에와 주피터가 결합하는 장면 속의 음악은 타악기와 관악기를 이용해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헤르마니스가 만든 황금의 무대와 너무 잘 어울린다.

– 다나에는 아버지 플록스 왕의 재정 파탄 때문에 미다스에게 팔려갈 상황이다. 결혼식 전에 미다스의 심부름꾼이 찾아오는데, 다나에는 이 친절한 심부름꾼에서 반한다. 그의 정체는 미다스. 다나에와 결혼할 미다스는 진짜 미다스가 아니라 주피터가 변장한 모습이다. 다나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주피터가 미다스에게 황금으로 변신시키는 능력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미다스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계약을 했던 것이다.

– 진짜 미다스는 주피터와의 계약 상 어쩔 수 없이 심부름꾼 행세를 하지만, 다나에가 그에게 반한 것이다. 결국 미다스는 주피터에게 다나에를 못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다나에와 사랑을 확인하며 키스를 하지만, 그 순간 다나에는 황금상으로 변해버린다. 이때 주피터가 나타나 평범한 인간 미다스인지 신적 능력을 지닌 주피터인지 선택하라고 하고, 깨어난 다나에는 미다스를 선택한다.

– 이러한 사실을 안 머큐리는 이제 미다스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기에 다나에가 성에 안 찰것이라고 한다. 주피터는 다나에를 다시 찾아간다. 하지만 가난한 움막 속에서도 다나에는 미다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피터는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물러난다.

– 다나에 역의 소프라노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의 활약이 돋보이는 무대. 주피터 역의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모니에츠니는 '탁월한 목성'(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다나에가 미다스를 선택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할 정도로 매력'(파이낸셜 타임즈)을 발산한다. 프란츠 뵐저 뫼스트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은 슈트라우스 후기작 속의 낭만과 서정성을 무대 위의 색채처럼 금빛 사운드로 뽑아낸다. "성공적으로 돌아 온 작품"이며, "부드러운 낭만적인 사운드에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이미지"('오페라 온라인')라는 평이 와 닿는 프로덕션이다.

EuroArts 2060578 [DVD]
EuroArts 2060574 [Blu-ray]

드보르자크: '레퀴엠' Op. 89

필리프 헤레베헤(지휘), 일세 에렌스(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알토), 막시밀리안 쉬미트(테너), 나탄 베르크(베이스), 콜레기움 보칼레,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로열 플레미시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반으로 받았던 감동, 영상으로 다시 한 번!

2014년 벨기에 안트베르펜(안트워프)에서 선보인 드보르자크 '레퀴엠' 공연 실황물. 파이(PHI) 레이블 발매의 드보르자크 '레퀴엠' CD(2CD/LPH016)에서 감동을 받은 이라면, 이 영상물을 통해 그 현장을 직접 만날 수 있기에 필청을 추천한다. CD에 로열 플레미시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oyal Flemish Philharmonic)로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는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른 이름. 특히 함께 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의 존재가 이 공연의 백미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이들은 16세기로부터 전해 내려온 레퀴엠의 전통이 피부에 와 닿게 전통적인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케스트라는 놀라울 정도의 세련된 음색으로 앙상블을 이룬다.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라틴어 자막을 갖췄다.

[보조자료]

– 2014년 벨기에 안트베르펜(안트워프)에서 선보인 드보르자크 '레퀴엠' 공연 실황물이다. 필리프 헤레베헤가 설립한 파이(PHI)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던 드보르자크 '레퀴엠' CD(2CD/LPH016)에서 감동을 받은 이라면, 이 영상물을 통해 그 현장을 직접 만날 수 있기에 필청을 추천한다. CD에 로열 플레미시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oyal Flemish Philharmonic)로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는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른 이름. 헤레베헤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과거에 맞춰 본 호흡의 이력 탓인지 헤레베헤의 손끝에 반응하는 안트베르펜 심포니는 민첩하고 유연하게 헤레베헤의 음악적 성격을 잘 대변한다.

–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레퀴엠'은 1890년 영국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작곡되었고, 이듬해 10월 영국 버밍엄 음악제에서 드보르자크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드보르자크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 16세기 레퀴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발전된 대위법과 화성에서 오는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 헤레베헤가 1970년에 설립한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의 존재가 이 공연의 백미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이들은 16세기로부터 전해 내려온 레퀴엠의 전통이 피부에 와 닿게 전통적인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케스트라는 놀라울 정도의 세련된 음색으로 앙상블을 이룬다. 이 사운드의 양면성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배가시킨다. 이로써 드보르자크 '스타바트 마테르'로부터 이어지는 헤레베헤의 드보르자크 및 종교음악 해석관을 이해하게 된다.

– 총 15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라틴어 자막을 갖췄다.

EuroArts 2060578 [DVD]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1번, 버르토크 '허수아비 왕자' Sz.60

투간 소키에프(지휘), 툴루즈 카피톨 국립교향악단, 바딤 글루즈만(바이올린)

미래 거장의 고전 · 낭만 · 현대음악 오디세이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교향악단은 미셸 플라송이 35년 동안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악단이다. 2008년에 취임한 러시아의 투간 소키예프와 악단은 2016년 내한하며 국내에 신선한 첫 인사를 마쳤다. 이 영상물은 2014년 툴루즈의 알로그랭(Halle aux Grains) 실황이다. 같은 해에 서울시향과 멘델스존 협주곡 1번을 연주했던 바딤 글루즈만과 소키에프의 베토벤 협주곡은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굵은 글루즈만의 사운드와 육중하고 무게감 있는 소키에프의 사운드가 한데 어우러진다. 브람스 교향곡 1번에서 소키에프는 한결 같은 두터움으로 귀를 두드린다. 버르토크의 1917년 초연작 '허수아비 왕자' Op.13 Sz.60에서 소키에프는 현대음악에 정통한 만큼 모던한 감각으로 난해한 작품의 텍스처를 투명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리해나간다. 20세기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만큼 그의 연주는 참신하다. 베토벤 · 브람스의 화성감과 버르토크 특유의 섬세한 악기 소리를 투명하게 담고 있는 현장 녹음도 일품.

[보조자료]

–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교향악단(ONCT)은 1960년 카피톨 오케스트라(당시에는 카피톨 극장의 오페라 · 발레 반주 연주)와 툴루즈–피레네 교향악단이 합병한 교향악단이다. 서울시향의 객원지휘로 몇 차례 내한했던 미셸 플라송은 1968년부터 2003년까지 35년에 걸쳐 툴루프 카피톨 국립 교향악단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다.

– 2008년부터 이 악단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투간 소키예프와 툴루즈 카피톨 국립교향악단은 2016년 4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함께 성남아트센터에서 내한 공연을 가지며 국내에 신선한 첫 인사를 마쳤다.

– 이 영상물은 2014년 툴루즈의 알로그랭(Halle aux Grains) 실황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르주만은 2014년 내한하여 마이클 프랜시스의 지휘로 서울시향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하여 놀라운 순간을 선물했던 젊은 연주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두 사람의 호흡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하모니를 이룬다. 오케스트라는 육중하고 무게감 있게 스피커를 울리고, 글르주만은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굵은 연주를 선보인다. 화려한 3악장이 끝나고 앙코르곡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중 3번 '사라방드'를 통해서는 글루즈만의 지적이고 차분한 이면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어지는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무게감과 깊이감을 정확히 구현한다. 한결 같은 두터움으로 귀를 두드린다.

– 고전주의(베토벤)와 낭만주의(브람스)의 다리를 건너온 소키에프는 버르토크의 1917년 초연작 '허수아비 왕자' Op.13 Sz.60을 통해 20세기의 다리로 건너온다. 베토벤과 브람스가 그의 음악적 정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주라면, '허수아비 왕자'는 피에르 불레즈 · 다비드 아자그라 · 벤야민 아타히르 등 현대음악에도 능한 그의 모던한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빈의 영원성, 독일의 낭만주의, 슬라브의 풍경이 한데 녹아 있는 영상물이다. 베토벤과 브람스의 화성감과 버르토크 특유의 섬세한 악기 소리를 투명하게 담고 있는 현장 녹음도 일품이다.

EuroArts 2056268 [DVD]
EuroArts 2056264 [Blu-ray]

2015 · 2016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 – 베토벤 교향곡 2 · 7번, 베토벤 '합창환상곡'

세이지 오자와(지휘) ·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 · OMF합창단,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라디아 테슈 · 리에 미야케(소프라노), 나탈리 슈츠만(알토), 케이 푸쿠이 · 장 파울 푸쉐코(테너),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일본 클래식계의 높은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OMF)은 오자와 세이지(1935~)의 스승인 사이토 히데오를 기념하던 사이토 키넨 페스티벌이 2015년부터 세이지 오자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사이토는 오자와를 비롯해 일본의 다수 지휘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영상물에는 베토벤 교향곡 2번(2015년 9월 실황)과 7번(2016년 8월 실황)이 담겨 있다. 교향곡 2번을 관통하는 오자와의 기운은 선율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생생하고 놀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난 음악적 사고의 우주를 만들어낸다. 교향곡 7번은 영웅적 인물의 초상이 떠오를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표현에 힘이 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함께 한 베토벤 '합창환상곡'과 오자와 세이지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도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에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와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에 관한 설명(영어 · 일본어 · 독어), 그리고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OMF)은 오자와 세이지(1935~)의 스승인 사이토 히데오를 기념하던 사이토 키넨 페스티벌이 2015년부터 세이지 오자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는 1987년 유럽 5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990년에 로열 알버트 홀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다.

– 첼리스트 겸 지휘자였던 사이토는 오자와를 비롯해 일본의 다수 지휘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도호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관계로 오자와도 이 음악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자와는 페스티벌 발족 때부터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 영상물에는 베토벤 교향곡 2번(2015년 9월 실황)과 7번(2016년 8월 실황)이 담겨 있다. 교향곡 2번을 관통하는 오자와의 기운은 선율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생생하고 놀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난 음악적 사고의 우주를 만들어낸다. 교향곡 7번은 영웅적 인물의 초상이 떠오를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표현에 힘이 있다.

–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함께 한 베토벤 '합창환상곡'도 볼 수 있다. 이 곡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다는 점에서 피아노 협주곡으로도 보며, 후반부에 중창과 합창이 잇달아 등장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상시키는 작품이기도 하다. 독주 피아노와 협연, 합창과 교향곡이 서로 중첩되어 형식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악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된 곡이다.

– 오자와 세이지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도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다. 오케스트라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관객들은 일본이 낳은 세기 최고의 마에스트로에게 '해피 버스 데이!'를 선사한다.

– 해설지에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와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에 관한 설명(영어 · 일본어 · 독어), 그리고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4238 [DVD]
EuroArts 2064234 [Blu-ray]

2017 라 그랑드 단차 무용단의 밀라노 피콜로 테아트로 실황

이르지 포코르니 · 주세페 스포타 · 필리프 카르츠(안무), 라 그랑드 단차 무용단

유럽 현대무용계를 견인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세 역작들

라 그랑드 단차는 2003년에 창단한 이탈리아 무용단으로 클래식부터 팝,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과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영상은 2017년 밀라노 피콜로 극장 실황으로, 이르지 포코르니 안무의 '말과 공간', 주세페 스포타의 '나르시소스', 필리프 크라츠의 '불사조'가 수록되어 있다. 단체는 물론 세 안무작은 국내에 생소하다. 하지만 이 영상물을 택한다면 그 이유는 전통과 디자인의 나라인 이탈리아 컨템퍼러리 무용과 유럽에서 활약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안무 경향과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컨템퍼러리 작품과 달리 세 작품은 영상이나 무용 외의 효과보다는 무용수들의 '정직한 몸과 움직임'에 집중한다. 특히 '불사조'는 어떤 서사적 흐름보다는 무용수 개개인의 몸짓과 표정이 돋보이며, 음악의 분위기와 잘 맞물리는 작품이다. 공연 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안무가들의 심도 깊은 인터뷰가 실려 있다. 영어와 독일어 자막이 제공된다.

[보조자료]

– 라 그랑드 단차는 2003년에 창단한 이탈리아 무용단으로 클래식부터 팝,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과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영상은 2017년 밀라노 피콜로 극장에 오른 세 작품의 실황을 담고 있다.

– 단차는 물론 세 안무작은 국내에 생소하다. 하지만 이 영상물을 택한다면 그 이유는 전통과 디자인의 나라인 이탈리아 컨템퍼러리 무용과 유럽에서 활약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안무 경향과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컨템퍼러리 작품과 달리 세 작품은 영상이나 무용 외의 효과보다는 무용수들의 '정직한 몸과 움직임'에 집중한다.

– 프라하 태생의 이르지 포코르니가 안무한 '말과 공간'은 언어와 공중에 부유하는 언어들을 통해 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헨델의 음악을 기본으로 사와키 사유리가 전자음향을 디자인하여 고전과 컨템퍼러리, 음악과 음향이 묘하게 섞인다. 이러한 음악을 바탕으로 한 군무나 2인무는 차가우면서도 온정이 있고, 화려하면서도 조용하다.

– 주세페 스포타가 안무한 '나르시소스'는 삶의 순환과 윤회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작품이다. 한 존재의 출생 · 성장 ·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상과 실제 생활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 필리프 크라츠 안무의 '불사조'는 전자음향과 함께 한다. 어떤 서사적 흐름보다는 무용수 개개인의 몸짓과 표정이 돋보이며, 음악의 분위기와 잘 맞물리는 작품이다.

– 공연 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안무가들의 심도 깊은 인터뷰가 실려 있다. 영어와 독일어 자막이 제공된다. 컨템퍼러리 무용을 통해 작품에 사용된 음악에 빠져 들기도 한다. 오디오 옵션은 PCM 스테레오/DTS-HD 마스터 오디오 5.0으로, 극장 공간에서 관람하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86 [DVD]
Naxos NBD0060 [Blu-ray]

무라드 메르조키: 현대무용 '픽셀'

무라드 메르조키(연출 · 안무), 아르망 아마르(음악), 벤자민 리브레톤(영상), 컴퍼니 카피그

현대무용과 첨단 테크놀로지, 묘한 사운드의 삼위일체

빗줄기처럼 내려온 빛들이 무대에 흩어지면 물방울들로 변모한다. 그러고 나서 무용수들의 힘찬 도약과 함께 그것들은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간다. 시간의 흐름과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점 · 선 · 면을 일구는 빛(조명)이 무용컴퍼니 카피그와 펼쳐내는 춤과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만남은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현대무용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보여준다. 수차례 내한 공연했던 프랑스 안무가 무라드 메르조키 총연출, 영화음악가 아르망 아마르의 일렉트로닉적 감수성이 서린 음악, 벤자민 리브레톤의 무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픽셀'은 2~10분 분량의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 장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이다. 오늘날의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예술과 어떻게 만나고, 활용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이 작품은 현대무용의 초심자부터 마니아를 아우르는 최고의 작품이다.

[보조자료]

– 2014년 말부터 블루레이 영상물 제작과 시장에 뛰어든 낙소스 레이블은 음악 외의 장르로도 그 가지를 뻗고 있다. 무라드 메르조키가 연출한 '픽셀'은 가상의 환경에서 11명의 무용수를 위한 현대무용이다. 육체가 빚는 에너지, 문학적 감수성, 첨단의 테크놀로지, 미니멀한 음악 그리고 힙합을 결합한 작품이다. 특히 디지털 프로젝션에 의해 실제 무용수와 디지털로 합성된 무용수의 조화와 춤의 대화는 눈길을 끈다.

– 1973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무라드 메르조키는 컴퍼니 카피그를 이끌고 있으며, 2006년과 2012년 내한하여 삼바, 힙합, 카포에라(브라질 전통무술), 보사노바 그리고 전자음악을 믹스한 작품을 선보여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처럼 메르조키는 현대무용과 여러 장르는 물론이고 브라질, 대만 출신의 다국적 음악가들과 함께 예술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픽셀'에는 프랑스의 영화음악가로 유명한 아르망 아마르가 함께 했다.

–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프랑스의 힙합 대사'라는 칭호를 받은 메로즈키의 '픽셀'은 2~10분 분량의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벤자민 리브레톤의 무대 디자인은 무대 위에 점 · 선 · 면으로 된 빛의 영상을 만들고, 무용수의 다국적 성격의 춤과 움직임에 따라 점 · 선 · 면은 살아 있는 빛의 생명체처럼 반응하고 움직인다. 예를 들어, 빗줄기처럼 내려와 무대에 깔린 빛의 물방울들은 무용수들의 힘찬 도약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시간의 흐름과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영상들이 펼쳐지는 이 영상물은 철학과 사색이 짙게 담긴 현대무용이라기보다 오늘날의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예술과 어떻게 만나고, 활용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 영화음악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아르망 아마르의 전자음향적 음악이 '픽셀'에 음악 · 음향적 디테일을 더한다. 대중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는 메로즈키의 의도처럼 이 영상물 역시 현대무용에 관심을 지닌 초심자나,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원하는 마니아에게 두루 권장하고 싶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39D [DVD]
OpusArte OABD7219 [Blu-ray]

OPUS ARTE

2016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
베를리오즈 코믹오페라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

베아트리체(스테파니 두스트락), 베네딕트(폴 애플비), 클라우디오(필립 슬라이), 돈 페드로(프레드리크 카통), 소마네로(리오넬 호트) 안토넬로 마나코르다(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로랑 펠리(연출 · 의상), 바바라 림버그(무대디자인)

베를리오즈가 '웃음' 담가 만든 오페라.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

2016년 7월,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 싸움이 잦은 연인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가 끝내 화해하고, 새로운 사랑에 국면한다는 내용으로, 셰익스피어의 '야단법석'을 원작으로 하여 베를리오즈가 극작과 작곡을 맡은 작품이다. 프랑스 연출가 로랑 펠리의 무대는 회색조의 단일색상이 시선의 중심을 잡는다. 무대디자이너 바바라 림버그도 회색 음영의 대조를 통해 깔끔하고 미니멀한 무대 연출에 일조한다. 깔끔한 화질의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베를리오즈의 풍성한 관현악법은 이 작품에서도 빛을 발한다. 런던 필은 "우아한 연주"를 선보였다는 평('텔레그라프')을 받았으며, 베네딕트 역의 폴 애플비도 노래와 연기 모두 능청스럽게 자연스럽다. 중간마다 등장하는 희극적 장면과 무반주의 대사는 이 작품이 왜 희극 오페라에 속하는지 결정짓는 아킬레스건이다.

[보조자료]

– 2016년 7월,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 우리에게 교향곡으로 익숙한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그것도 코믹 오페라라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원작인 '야단법석'을 기본으로, 작곡자가 대본을 직접 작성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기본으로 했지만, 그리 많은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성당의 음악감독 소마네로(바리톤 리오넬 호트)가 펼치는 코믹한 요소를 삽입하거나, 몇몇의 장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 1막의 배경은 시칠리아다. 백성들은 돈 페드로(바리톤 프레드리크 카통)의 군대가 무어군을 격퇴한 것을 기뻐한다. 개선장군 페드로가 돌아오면 함께 출전했던 클라우디오(베이스바리톤 필립 슬라이)도 돌아와 사랑하는 헤로(소프라노 소피 카르트호이저)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헤로의 사촌 여동생 베아트리체(메조소프라노 스테파니 두스트락)는 기분이 좋지 않다. 사랑은 식고 싸움만 잦은 연인 베네딕트(폴 애플비)와의 재회가 썩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온 클라우디오와 헤로는 곧장 결혼식을 올린다.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본 베네딕트는 고민에 빠진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매사에 덤벼드는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신부로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딕트는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우연히 엿듣는다. 헤로가 친구 우르술레(메조소프라노 카타리나 브래딕)와 짜고 일부러 베네딕트와 베아트리체에 관한 소문을 낸 것이다.

– 2막은 헤로와 클라우디오의 결혼 축하장이다. 신부 헤로를 위한 합창에 베아트리체는 점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다가 베네딕트와 마주치게 된다. 신랑신부가 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주례가 혹시 또 결혼할 사람이 없느냐는 물음에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는 서로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화해를 하게 된다. 이 작품은 '트로이 사람들'처럼 무겁고 비극적인 오페라를 내놓은 베를리오즈가 자신도 유머가 풍부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작곡했다는 설도 있다. 중간에 무반주의 연극적 대사가 있어서 징슈필(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 있는 독일어 노래극)의 느낌이 들기도 한다. 프랑스

연출가 로랑 펠리의 무대는 깔끔하다. 회색조의 단일색상이 시선의 중심을 잡는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대디자이너 바바라 림버그도 회색 음영의 대조를 통해 깔끔하고 미니멀한 무대 연출에 일조한다.

– 시선은 무대로 분산되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음악에 집중하게 한다. 베를리오즈의 풍성한 관현악법은 이 작품에서도 빛을 발한다. 런던 필하모닉은 "우아한 연주"를 선보였다고, '텔레그라프'지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폴 애플비는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능청스럽게 연기한다. 40분경에 나오는 성당의 음악감독 소마네로의 코믹 연기와 런던 필을 이끄는 안토넬로 마나코르다의 호흡은 이 작품이 왜 희극 오페라에 속하는지를 입증하는 장면이다.

OpusArte OA1241D [3DVDs]
OpusArte OABD7220 [3Blu-ray]

카데르 벨라르비 연출의 3작품

('Le corsaire', 'La Bete et la Belle', 'La reine morte) 박스물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DVD 1] 발레 '해적' (Le Corsaire)
마리아 구티에레스(노예소녀)/ 다비트 갈스티안(해적)/ 타카후미 와타나베(술탄) 외/ 발레 뒤 캐파톨/ 데이비드 콜맨/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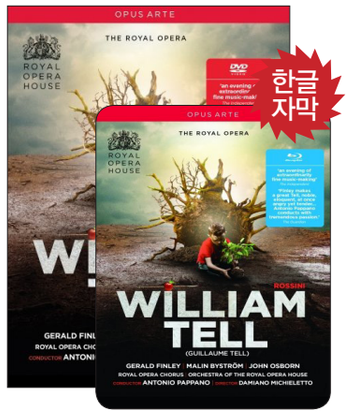
비극으로 재창조된 노예소녀와 해적의 강렬한 러브스토리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The Corsair)는 당대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2차 창작물들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중 베르디의 오페라 (Il Corsaro)와 베를리오즈의 연주회용서곡(Le Corsaire), 그리고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기초한 발레(Le Corsaire)가 널리 알려져 있다. 발레 '해적'은 조셉 마질리에르의 안무로 1856년 파리에서 초연되었지만, 현재는 마우리스 프티파의 리바이벌 버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영상물에 수록된 툴루즈 발레 뒤 카피톨의 2013년 공연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카데르 벨라르비의 새로운 안무가 사용되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였으며, 현재 발레 뒤 카피톨의 디렉터를 맡고있는 벨라르비는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작품을 재창조하였다. 이를위해 지휘자 데이비드 콜맨의 도움을 받아 아당의 오리지널 발레음악의 상당부분을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했으며, 여기에다 마스네, 아렌스키, 랄로, 시벨리우스 등의 음악을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다 다채롭게 그려내었다.

[DVD 2] 발레 '미녀와 야수' (La Bete et la Belle)
카데르 벨라르비(안무)/ 타카후미 와타나베(야수)/ 줄리 로리아(미녀)/ 카즈벡 아크메댜르코프(투우사)/ 발레 뒤 카피톨 툴루즈

리게티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토대로 펼쳐지는 미녀와 야수의 사랑이야기
장-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의 동화 "미녀와 야수"는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과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타데르 벨라르비는 2005년 몬트리올 그랑 발레를 위해서 이유명한 동화를 한 편의 매력적인 모던 발레로 재창조하였다. 벨라르비는 기존에 알려진 동화의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는데, 야수와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는 모두 한 소녀의 몽상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전체적인 플롯을 구성하였다. 벨라르비는 죄르지 리게티가 남긴 다양한 음악들을 동원하여 이 발레의 전반적인 배경음악을 구성하였으며, 라벨, 하이든, 다캥의 작품들도 양념처럼 작품 곳곳에 효과적으로 삽입되었다. 본 영상물은 2013년 10월 툴루즈 라 카피톨에서 있었던 리바이벌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이 무대는 몬트리올에서 공개되었던 초연무대를 능가하는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으로 평단과 객석의 호평을 받았었다. 발레 뒤 카프톨의 두 주역인 줄리 로리아와 타카후미 와타나베가 미녀와 야수를 열연하였다.

[DVD 3] 발레 '죽은 여왕' (La Reine Morte)
아르톰 마크사코프, 마리아 구티에레즈, 다비트 말스티앙 외/ 오케스트레 나쇼날 두 카피톨르/ 코엔 케셀(지휘)

700년전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의 21세기적 육체언어로의 부활
2011년 발레 두 카피톨르를 위해 창작된 창작 발레 죽은 여왕(La Reine morte)은 안무가 카데르 베랄비(Kader Belarbi)의 스펙타클한 작품. 앙리 드 몬테를랑 (Henry de Montherlant, 1895~1972)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네 드 카스트로(Inês de Castro, 1325~1355)의 애절하고도 섬찟한 실제 러브 스토리를 각색한 것이다. 왕녀의 시녀인 돈나 이네스 드 카스트로와 사랑에 빠진 포르투갈의 왕자인 돈 페드로는 왕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죽은 이네스를 대관식때 그녀의 시체를 옥좌에 사람처럼 옷을 입혀놓고 충성을 맹세케 했다는 이야기.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안무가의 새로운 통찰력과 고전적인 스타일에 의해 넘치는 생명력을 가진 화려한 발레로 재탄생했다.



OpusArte OA1205D [2DVDs]
OpusArte OABD7195 [Blu-ray]

2015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
로시니 '윌리엄 텔'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다미아노 미켈레토(연출), 제럴드 파인리(윌리엄 텔), 멀린 비스트롬(마틸데), 존 오스본(아놀드)

영화만큼의 압도감과 영상미를 제공하는 오페라 실황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20여년 만에 선보인 '윌리엄 텔'로, 2015년 6월 29일 실황이다. 4막의 오페라가 3시간 20분의 영상에 담겼다. 이탈리아 연출가 다미아노 미켈레토는 오페라의 배경을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으로 설정한다. 무대 전체에 깔려 있는 흙은 빼앗긴 조국의 땅을, 뿌리째 뽑힌 거대한 고목 한 그루는 뿌리 뽑힌 사람들을 상징한다. 제럴드 파인리는 타협을 모르는 전사 윌리엄 텔을 사실적으로 연기한다. 멀린 비스트롬은 공주 마틸데 역할로 콜로라투라에 강렬함을 더했고, 존 오스본 아놀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아놀드의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한다. 무엇보다 파파노의 지휘 덕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 화질, 사운드, 연기 모두 실제 공연장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실감과 임장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보너스 트랙에는 (1)프로덕션 소개(약 6분), (2)합창 연습(약 4분), (3)존 오스본 인터뷰 및 연습장면(5분), (4)캐스팅 갤러리가 담겨 있다. 47쪽 분량의 고급스러운 부클릿에는 '점령된 땅'이라는 글과 작품 해설이 수록(영 ·

프 · 독)되어 있다.

[보조자료]

–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20여년 만에 선보인 '윌리엄 텔'로, 2015년 6월 29일 실황 영상이다. 4막의 오페라가 3시간 20분의 영상에 담겼다. 화질, 사운드, 연기 모두 실제 공연장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실감과 임장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 '윌리엄 텔'에는 제2의 고향이 된 파리에 완전한 프랑스 오페라를 선사하고자 한 로시니의 바램이 담겨 있다. 중세 스위스인들이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투쟁한다는 쉴러의 원작은 로시니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다. 그는 게슬러 총독에 대항하는 윌리엄 텔의 투쟁을 그렸으며, 게슬러의 여동생인 합스부르크의 공주 마틸데를 향한 아놀드의 순수한 사랑도 그렸다. 그리고 '윌리엄 텔'에서 그려진 민족주의 성향은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 잘 들어맞았다.

– 이탈리아 연출가 다미아노 미켈레토는 오페라의 배경을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으로 설정한다. 파리 국립오페라에서 2014년 '세비야의 이발사'와 2015년 '아이다'를 통해 유럽 오페라계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데뷔작으로, 무자비하게 무력을 휘두르는 집단과 그들에게 자유와 문화를 빼앗긴 사람들 사이의 대립,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전반적으로 미니멀한 미장센이 펼쳐지지만,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묘사 또한 눈길을 끈다. 무대 전체에는 빼앗긴 조국의 땅을 상징하듯 두꺼운 흙이 깔려 있다. 등장인물들은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 흙을 움켜쥐거나 몸에 바르며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드러낸다. 또한 뿌리째 뽑힌 거대한 고목 한 그루를 배치하여 뿌리 뽑힌 사람들을 상징하는 한편 무대를 분할하여 다양한 공간을 창출한다.

– 캐나다 출신으로 IMG소속 바리톤 제럴드 파인리는 타협을 모르는 전사 윌리엄 텔을 사실적으로 연기한다. 멀린 비스트롬은 공주 마틸데 역할로 콜로라투라에 강렬함을 더했고, 존 오스본 아놀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아놀드의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한다. 무엇보다 파파노의 지휘 덕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

– 보너스 트랙에는 파파노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무대미술, 리허설 등의 영상이 수록된 (1)프로덕션 소개(약 6분), (2)합창 연습(약 4분), (3)존 오스본 인터뷰 및 연습장면(5분), (4)캐스팅 갤러리가 담겨 있다. 47쪽 분량의 고급스러운 부클릿에는 주인공과 무대를 담은 컬러 사진과 함께 '점령된 땅'이라는 글과 작품 해설이 수록(영 · 프 · 독)되어 있다.

OpusArte OA1243D [DVD]
OpusArte OABD7222 [Blu-ray]

2016 로열 발레 실황
케네스 맥밀란 '아나스타샤'

케네스 맥밀란(안무), 나탈리아 오시포바(아나스타샤/안나 앤더슨), 마리아넬라 누에즈(마틸데), 페데리코 보넬리(아버지), 에드워드 왓슨(안나 앤더슨 남편), 티아고 소아레(라스푸틴), 시몬 휴잇트(지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영광을 누리고 광기와 함께 사라져 버린 비극적 여인을 위한 명작 발레

'아나스타샤'는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이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딸로 황실의 유일한 생존자라 주장하던 안나 앤더슨의 저서 'I Anastasia'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와 체코의 보후슬라프 마르티누(1890~1959)의 음악을 토대로 한 이 작품은 1971년 로열 발레가 초연한 바 있다. 이 영상물은 2016년 11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으로, 로열 발레의 수석 무용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스타 무용수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과감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단 한명의 여인, 아나스타샤만을 위한 작품이다. 아타스타샤로 분한 수석무용수 나탈리아 오시포바는 최고의 연기와 춤을 보여준다. 1막과 2막에선 귀족적인 풍모와 움직임으로, 3막에선 광기와 괴로움으로 일관하는데, 특히 3막에서 짧은 머리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일관하는 그녀는 어두우면서도 담담한 정서를 잘 표현한다.

[보조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대표작인 '세 자매'는 물론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인 '아나스타샤'도 발레로 만들었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작품은 맥밀란이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딸로 황실의 유일한 생존자라 주장하던 안나 앤더슨의 저서 'I Anastasia'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와 체코의 보후슬라프 마르티누(1890~1959)의 음악을 토대로 케네스 맥밀란이 안무하여 1971년 7월 22일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처음 발표한 작품이다.

– 1막.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 아나스타샤와 황실가족이 단란한 소풍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제1차 대전 소식이 전해진다.

– 2막. 차이콥스키 교향곡 3번. 러시아 차르의 겨울궁전은 10월 혁명으로 인해 포위당하고 황실가족은 볼셰비키에 의해 에카테린부르크로 유배된다.

– 3막. 전자음향과 마르티누 교향곡 6번 '교향적 환상'. 베를린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나 앤더슨이라는 환자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아나스타샤라고 생각하며 환상 속에 괴로움을 겪는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11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으로, 로열 발레의 수석 무용수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다. 스타 무용수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과감히 말하면 이 작품은 단 한명의 여인, 아나스타샤만을 위한 작품이다. 따라서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한명의 발레리나가 담당해야 한다. 아타스타샤로 분한 로열 발레의 수석무용수 나탈리아 오시포바는 최고의 연기와 춤을 보여준다.

– 1막과 2막에선 귀족적인 풍모와 움직임으로, 3막에선 광기와 괴로움으로 일관하는데, 특히 3막에서 짧은 머리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일관하는 그녀는 어두우면서도 담담한 정서를 잘 표현한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물]

맥밀란의 '마농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적 인생을 다룬 또 다른 명작 발레이다. 2015년 5월 18일 파리 가르니에 실황으로 파리 국립오페라발레 '마농 이야기'(Belair BAC135)를 추천한다. 프랑스 최고의 발레리나 오를리 듀퐁의 은퇴작으로 오를리 듀퐁(마농 레스코), 로베르토 볼레(데 그리외), 스테판 뷔용(레스코), 벤자민 페슈(귀요 모르폰텐)이 출연한다.

OpusArte OA1234BD [2DVDs]
OpusArte OABD7227BD [2Blu-ray]

크리스토퍼 월던의 두 편의 발레 컬렉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신데렐라'

무한한 상상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마법과 같은 두 편의 발레 컬렉션

크리스토퍼 월던의 기발하고 생생한 매력이 담긴 동화 같은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신데렐라' 컬렉션. 루이스 캐롤의 초현실적 상상력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타임즈에서 환상적인 가족 연극으로 호평을 받아 큰 흥행을 거두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BBC 다큐멘터리 'Being Alice Cast Gally'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과 공연한 프로코피예프의 '신데렐라'는 이 공연을 위해 새롭게 완성한 혁신적인 안무를 선보였는데, 캐릭터의 깊이와 복잡성을 새롭게 구성하여 마법과 같은 경험을 선물한다. 신데렐라 역시 크리스토퍼 월던과 무용수들의 인터뷰, 코멘터리가 수록되어 있어 백 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엿볼 수 있다.

• Comming Soon !! •

Berlin Philharmonic
BPHR170141

The John Adams Edition

Mahler/ Symphony No.2 (D. Gatti/ Cond.)

RCO Live
RCO17003 **(2SACD)**

RCO Live
RCO17108 **(Blu-ray)**

RCO Live
RCO17109 **(DVD)**

EUROARTS

아프로디테의 섬, 키프로스에서 열린 베를린 필의 생일잔치!

베를린 필 2017 유로파 콘서트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1번 ·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마리슨 얀손스(지휘) · 베를린 필하모닉, 안드레아스 오텐자머(클라리넷)

DVD EuroArts 2056268

Blu-ray 2056264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는 발트뷔네 콘서트와 더불어 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1991년부터 매년 5월 1일 유럽의 명승지를 순회하는 유로파 콘서트는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연주해왔고,
2017년에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파포스에서 공연을 가졌다.
파포스는 그리스 신화 속 미와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탄생지로, 건축물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1번과 베를린 필의 첼로 주자 슈테판 콘츠가 작곡한
'베버 주제에 의한 헝가리 판타지'를 협연하는 오텐자머는 2013년 솔리스트와 베를린 필의 단원으로 내한을 시작하여 현재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다.
헝가리 정서의 레퍼토리에 능한 그의 다이내믹한 연주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택해도 좋다.
설령, 오텐자머를 모르고 택한다 해도 그의 팬이 될 정도로 오텐자머의 연주는 매력적이다.
바다와 정박된 배들, 파란 하늘, 태양 아래 음악을 듣는 관객들의 열정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자유롭고, 음악은 알차다.

표지사진
C major 2017 브레겐즈 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DVD, Blu-ray

〈아울로스뉴스〉 2017년 10월호
통권 제 73호 발행 2017년 10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